

농업·농촌경제동향

2004 가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경제동향』은 농림부의 지원으로 국내외 농업 여건의 변화와 농업·농촌경제의 주요지표에 관한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정책 담당자 및 농업종사자의 의사 결정에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분기별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봄(4월), 여름(7월), 가을(10월), 겨울(12월)에 작성되어 발간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농업관측정보/농업농촌경제동향”)

작성자: 농업정보화팀(김병률, brkim@krei.re.kr/김종선, sun589@krei.re.kr)

연락처: 3299-4220 / 팩스: 964-5631

목 차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1. 경제성장	1
2. 환율 및 원유가격	3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	5
2. 세계 곡물 전망	17

III. 국내경제 동향

1. 경기	31
2. 소비 및 투자	34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37
4. 고용	38
5. 물가	39
6. 금융 및 외환	44

IV. 농촌경제 동향

1. 농촌물가	46
2. 농가교역조건	49
3. 농업인력	50
4. 농산물 수출입	51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	57
2. 채소류	60
3. 과일	78
4. 과채류	89
5. 축산	101

VI. 특별주제

1. 국제유가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115
2. OECD, 중장기 농산물 수급전망	128

부 록

2004년 3/4분기 농정이슈와 여론동향	151
------------------------------	-----

<요 약>

I. 국제경제 동향

- 미국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8%(전기비 연율)를 기록하여 당초 추정치(3.0%) 보다 하락하였음. 그러나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하여 6월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 일본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3% 상승하여 1/4분기의 1.6%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광공업생산은 6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증가하여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동기비로는 2.0% 증가하여 1/4분기 성장률(1.3%)을 상회하였음.
- 9월 중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지속,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예상 등으로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당 110엔에서 안정되다가 9월 들어 유가 급등에 따른 일본경제 부담 우려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음.
- 국제유가는 2004년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한달 보름동안 초강세를 나타냈음. 8월 중순 이후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재개되는 등 9월 중순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음. 그러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멕시코 연안의 석유생산 차질, 미국 석유재고의 감소,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 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린룸 회의와 같은 소수국 회의와 NG5 등에 의해 난산 끝에 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은 WTO협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고비가 된 것이 분명하나 협상그룹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델리티 협상에서도 자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임.
- 태국과 호주는 지난 7월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5년 1월부터 협정 발효를 위해 준비중에 있음. 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대국인 호주와도 2003년 10월 FTA를 체결을 합의하였음. 케언즈 그룹으로서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도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2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FTA를 체결하였음. 호주로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은 3번째 FTA가 되었으며, 호주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45억 달러 하락한 5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출 상대국의 경쟁력 증가와 밀, 대두, 면화 등의 세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에 있음. 면화 수출량은 40만 톤 감소하고, 밀 수출량도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옥수수 수출량은 400만 톤, 대두 수출량은 3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쇠고기 수출은 일부 외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인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

임.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197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2~04년 수입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은 가공농산물의 가격상승에 있음. 이러한 수입가격 상승세는 2005년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옥수수홈페이지(中國玉米淀粉網)에서는 지난 7월 7일 중국의 2004년도 하반기 옥수수수시장동향을 전망하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음. 중국의 2004년도 곡물총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여 옥수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 금년도 중국은 기후의 영향으로 곡물 총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4%(1,500만톤 정도) 증가하여 재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4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서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9억 6,75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2,91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43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1,191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19억 7,0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2.8% 증가한 3억 9,778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태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10.5%, 1.1%, 10.0%와 1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02% 감소한 4억 1,28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43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04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04/05년에는 톤당 492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4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061만 톤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581만 톤보다 약 1,483만 톤 증가한 6억 6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6,446만 톤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6억 7,0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60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29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9.5% 늘어난 2억 87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252만 톤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7.0% 늘어난 1억 4,16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III. 국내 경제 동향

- 2004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지출이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 제조업은 섬유·의복, 목재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기계와 산업용화학물의 생산이 늘어나고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음.
- 8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음.
- 8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의 판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하였음.
- 2004년 2/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70.9천원으로 전년 동기 2,828.3천원에 비해 5.0%(142.6천원) 증가하였음.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2.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896.0천원에 비해 2.5%(46.8천원) 증가하였음.
- 2004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8% 증가한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6개월 만에 200억불 이하를 기록함.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3.2%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4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18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취업자 수는 22,382천명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하였음. 실업자 수는 80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음.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음.

- 2004년 9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7.5% 각각 상승하였음. 이는 추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의 호전으로 인한 출하량 증가로 농림수산품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여파와 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2004년 9월 중 소비자 물가는 우유 등 공업제품과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무, 배추, 배 등 채소류와 과일류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에 내려 전월대비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상승하였음.
- 2004년 8월 중 수출 물가는 수요부진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및 공급부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크게 올라 전월대비 2.4%, 전년 동월대비 11.2%로 상승하였음.
- 8월 중 수입 물가는 이라크,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미국,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3.2%) 및 소비재(1.9%)가 상승함으로써 전월대비 2.8%, 전년 동월대비 16.7%로 상승하였음.
- 9월중 M3증가율은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민간 신용 공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낮은 6%내외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M1 증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국 고용지표 저조 및 무역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형성된 엔/달러환율 하락세,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도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

IV. 농촌경제 동향

- 2004년 8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5.8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7.5%,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전월대비 1.1% 상승)한 122.2를 기록함.
- 8월 중 패리티 지수가 102.9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동월대비 1.6%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0.2%로 악화되었음.
- 2004년 8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5 증가하였음. 농외취업자수는 49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감소하였음
-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1,275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1.1%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7%, 9.4%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3.4% 감소하였음.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0.8%로 크게 감소한 11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40.6%)과 축산물 수입(-14.4%)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2004년 8월까지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4억3천만 달러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호조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하였음.

I. 국제경제 동향¹⁾

1. 경제성장

- 미국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2.8%(전기비 연율)를 기록하여 당초 추정치(3.0%) 보다 하락하였음. 그러나 7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하여 6월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었음.
 - 8월 중 소매판매(자동차 제외) 및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비 농업부문 취업자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9월에는 자동차 판매가 증가로 반전되고 ISM 지수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등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8월 비농업부분 신규고용이 144천개 증가하고, 6~7월 일자리수도 59천개가 추가로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었으며, 실업률은 01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5.4%를 기록하였음.
- 일본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전기대비 0.3% 상승하여 1/4분기의 1.6%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음. 광공업생산은 6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나, 7월에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음.
 - 8월 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산업생산 및 가계소비지출이 호전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중 일본은행의 단관지수(대기업 기준)도 6분기 연속 개선되어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1)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유로지역 경제는 2/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5% 증가하여 1/4분기보다 소폭 하락하였으나, 전년동기비로는 2.0% 증가하여 1/4분기 성장률(1.3%)을 상회하였음.

- 8월 중 주요국 소매판매가 증가로 반전하였으며 9월 들어서도 경기체감지수와 기업심리지표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세계 주요국의 경제성장 추이 및 전망¹⁾

단위: %

	2001	2002	2003	2004
전 세계	1.4[2.4] ²⁾	1.8[3.0]	2.7[3.9]	4.3[4.6]
선진국	(1.1) ³⁾	(1.7)	(2.1)	(3.5)
미국	0.5	2.2	3.1	4.9(4.6)
일본	0.4	-0.4	2.7	4.5(3.4)
영국	2.1	1.6	2.2	3.3(3.5)
유로지역	1.7	0.9	0.5	1.7(1.7)
독일	1.0	0.2	-0.1	1.2(1.6)
프랑스	2.1	1.1	0.5	2.1(1.8)
개도국	(4.1)	(4.6)	(6.1)	(6.0)
아시아(일본제외)	4.2	5.7	6.4	6.9(-)
중국	7.3	8.0	9.1	8.5(8.5)
중남미	0.3	-0.9	1.5	4.2(3.9)
중동	2.3	1.8	2.8	6.0(4.1)
아프리카	3.5	3.0	3.6	4.3(4.2)
중앙·동유럽	-0.5	4.5	4.5	5.1(4.5)
러시아	5.1	4.7	7.3	6.8(6.0)

주: 1) 한국개발연구원, 2/4분기 KDI 경제전망, 2004.

2) []안의 수치는 IMF자료의 PPP방식 추정치임. UN 자료임.

3) ()안의 수치는 IMF자료를 참조.

원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Q 2004.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4.

2. 환율 및 원유가격

2.1. 환율

- 9월 중 미국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세,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음.
- 유로화에 대해서는 유로지역의 경기회복세 지속,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완화 예상 등으로 대체로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 엔화에 대해서는 달러당 110엔에서 안정되다가 9월 들어 유가 급등에 따른 일본경제 부담 우려 등으로 소폭 강세를 보였음.

환율 동향 (기말 기준)

	2002	2003	2004				
			4월	5월	6월	7월	8월
엔/달러	118.52	106.99	109.95	110.37	108.32	111.46	110.05
달러/Euro	1.0475	1.2545	1.1957	1.2239	1.2093	1.2019	1.2046

자료: 재정경제부

2.2. 원유가격

원유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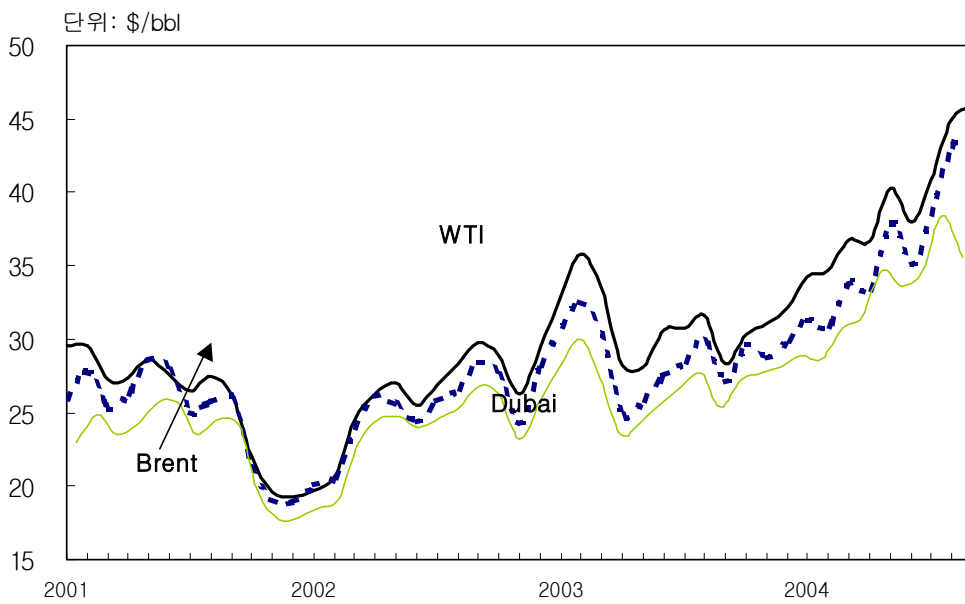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2003	200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WTI (텍사스 중질류)	31.08 (18.8)	36.71 (23.1)	40.27 (30.2)	38.02 (19.3)	40.81 (24.7)	44.92 (29.6)	45.92 (38.4)
Brent (북해산)	28.81 (14.3)	33.39 (25.5)	37.85 (31.8)	35.09 (21.5)	38.52 (26.2)	43.06 (30.7)	43.42 (37.5)
Dubai (중동산)	26.80 (12.2)	31.53 (25.4)	34.66 (29.9)	33.54 (23.8)	34.74 (23.0)	38.45 (28.0)	35.61 (28.6)

주: () 안은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국제유가는 2004년 7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거의 한달 보름동안 초강세를 나타냈음. 8월 중순 이후 이라크 중남부 지역에서의 원유 생산 및 수출이 재개되는 등 9월 중순까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음.
- 그러나 허리케인 피해로 인한 멕시코 연안의 석유생산 차질, 미국 석유재고의 감소, 나이지리아의 정정불안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음.

원유 가격 동향



II. 세계 농축산업 동향과 전망

1. 세계 농축산업 동향²⁾

1.1. 세계 농축산업 협상동향

가. DDA, 기본골격 합의와 각국 반응

- WTO 일반이사회가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 그린룸 회의와 같은 소수국 회의와 NG5 등에 의해 난산 끝에 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를 보았음.
- 지난 7월 16일에 공표된 기본골격 초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필요한 수정을 하지 않는 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음. 특히 G10과 EU는 “민감품목에 관한 기술이 애매하다”며,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G20은 “선진국의 민감품목에 대한 기술은 상세한데 비해, 개도국의 특별품목(SP)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한 생산제한 직접지불(Blue box)의 새로운 정의는 미국만을 구제하는 내용으로 개혁에 역행된다”며, 수정을 요구하였음.
- 반면, 미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기술을 더 애매하다고 해서, 반대로 관세 상한설정과 저관세 수입물량(TRQ)의 의무적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자국의 보조금에 적용되는 Blue box 정책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식량원조제도에 대해서도 필사적으로 옹호론을 펼쳤음.

2) 이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47호~제49호(농정연구센터 김태곤 연구위원(taegon@krei.re.kr)등 작성)에서 발췌하였음.

- 이러한 구도는 골격안 개정판을 위한 협의 및 그 후의 최종합의를 위한 협의까지 계속 이어졌음. 7월 30일 발표된 기본 골격안 개정안에서는 민감품목의 숫자를 “구간방식의 전체적 목적을 저해하지 않으며, ……향후 협상에서 결정되는 적절한 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하고, 현행 TRQ 품목수가 상한이면서 기준이 되는 1차안의 내용이 변경되는 한편, 관세상한 설정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에서) 다시 평가받을 것”라고 하여, 1차안의 “평가가 필요하다”보다는 약한 표현을 사용하였음.
- 또한 “개도국에 대한 표현이 애매하다”는 개도국 측의 요구에 따라 “개도국 회원국이 TRQ에 의한 시장접근 기회로 충분히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TRQ내의 세율감축 또는 철폐, 기존 TRQ 운영상의 효과적 개선이 포함된다”는 것이 명기되었음. 또한 개도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Blue box 정책의 새로운 정의를 “새로운 기준과 함께 향후 상기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였음.
- 개정안이 나온 후에도 주요 논점에 대해 의견대립이 계속되었음. 국내보조 감축에 대해서는 “전체적 감축 실시로서 실시 초년도 및 전체 실시기간 내 모든 무역왜곡적 보조의 합계는 AMS(감축대상 보조)의 최종 약속수준, 인정된 최소허용보조 및 15 패러그래프에서 결정되는 Blue box 정책 등의 합계의 8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문장이 삽입되었음.
- 시장접근과 관련해서도 G10과 미국이 참여하게 대립해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빚었으며 그 결과, “TRQ 초과분의 세율에 대해 최저 관세감축률이 설정된다”는 개정안의 문구가 삭제되었음.
- WTO협상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은 전반적으로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임.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이번 기본골격 합의는 세계무역에 있어서 중대한 한

결음이며 칸쿤에서의 결렬이후 협상을 다시 정상궤도로 돌려놓은 사건이다. 그러나 아직은 앞으로의 협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일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 많이 남아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USDA(미국 농업부)는 합의안이 도출되는데 기여한 자국 대표단의 공로를 치하하며 이번 합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였음.

- 그러나 미국 의회나 농민단체들 간에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음. 그래스리(Grassley) 상원의원(아이오와주)은 “미국 농민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구해오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또한 “가장 무역왜곡적인 수출보조의 철폐에 합의하였고 국내보조에 조화원칙을 적용함으로 인해 미국보다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EU가 국내보조를 더 많이 감축할 수 있게 되었음.
- 시장접근분야에서는 높은 관세일수록 많이 감축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율을 가진 미국으로서는 외국 시장에 대한 접근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노스다코다(North Dakota)주의 다셰(Daschle)상원의원은 이행 첫해에 국내보조를 20%나 삭감하는 것이 가족농 중심의 노스다코다 농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한편 50개 이상의 농업단체와 농산업그룹은 ‘농업무역연합(AgTrade Coali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기본골격합의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정부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전국농민연맹(National Farmers Union)은 수출보조와 시장접근분야를 모호하게 남긴 채 국내보조의 감축에 동의해 버려 대가없이 자유무역의 희생양이 되었다며 정부에 대한 지지에 반대를 하고 있음.

- EU는 이번 기본골격 합의를 “다자무역협상이 살아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음. 세부적으로 본다면 EU의 농업정책개혁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Farm Bill의 개혁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 등의 수출보조를 철폐하게 된 점을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음. 한편 민감 품목을 설정하여 EU의 농민들에게 중요한 품목을 일정 수준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에 안도하고 있음.
- 이번 기본골격이 나오기까지 협상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브라질의 경우 이번 기본골격을 “부자나라에 대한 개도국의 승리”로 표현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종결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였음.
- 브라질과 함께 수출개도국 그룹 G20을 이끌던 인도는 선진국의 수출보조금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철폐되고 이행 첫째에 국내보조를 20% 감축하여 선진국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 것과 더불어 TRQ증량을 통해 선진국에 대한 시장접근기회가 확대된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음. 그뿐 아니라 이번 기본골격에는 개도국 우대조치가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인정을 받아 민감 품목뿐만 아니라 특별품목을 선정하여 신축성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과 SSM (Special Safeguard Mechanism)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을 자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호주와 캐나다를 포함한 케언즈 그룹은 이번 기본골격이 WTO협상을 한 단계 진전시켰으며 수출보조 철폐와 국내보조 감축은 보다 공정한 무역을 보장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나 시장접근분야는 작년 칸쿤 각료회의에서 나온 안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음.
- 관세상한의 설정과 TRQ의무증량에 반대하였던 G10은 민감 품목

에 대해 TRQ증량이 요구되고 관세상한 설정의 여지를 남긴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일본은 품목별 관세상한 설정에 반대하고 있음.

- 지금까지 각국의 반응을 종합해 본 결과 이번 기본골격 합의안은 WTO협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고비가 된 것이 분명하나 협상그룹별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모델리티 협상에서도 자국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임.

나. 태국·호주, FTA 체결

- 태국과 호주는 지난 7월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05년 1월부터 협정 발효를 위해 준비중에 있음. 태국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이어서 농산물 수출대국인 호주와도 2003년 10월 FTA를 체결을 합의하였음. 케언즈 그룹으로서 농산물 수출국인 태국도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 20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FTA를 체결하였음.
- 태국·호주간 FTA는 2003년 10월 19일 정부간 합의가 이루어져 2004년 7월 5일 체결하였음. 호주로서는 싱가포르와 미국에 이은 3번째 FTA가 되었으며, 호주는 태국이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경제규모와 높은 경제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 호주 입장에서는 금년 2월 체결한 미국과의 FTA 협상이 ‘규칙·규제·기준에 관한 협상’이었던 점에 비교하면, 태국과의 협상은 관세가 중심이었음.

- 양국 관세구조를 비교하면, 호주의 관세는 평균 4%로 낮고, 태국은 16%로 높은 편임. 그 중에서도 호주의 농산물 관세는 이미 낮은 수준임. 따라서 양국간에 FTA가 체결되었어도 호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호주 정부의 전망이다.
- 태국 입장에서 본 이번 협정은 물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기타 무역관련 분야를 널리 대상으로 삼은 가장 포괄적 협정이라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음.
- 협정 전반에 걸친 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1) 양국의 FTA는 관세철폐 및 인하를 중심으로 전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 (2) 2005년 1월 1일에는 관세품목수의 49%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 (3) 2010년부터는 양국간 관세품목수의 98%가 관세 철폐되어 완전 자유화가 이루어지고, 현행 무역액의 95%에 상당하는 양이 자유무역으로 거래되게 되었다.
- 이를 양국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의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음.
 - (1) 호주는 협정발효시점(2005. 1)에서 태국 물품 3,080의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36% 상당)에 대한 현행 제로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 (2) 협정발효 시점에서 태국 물품 2,003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47%에 상당)의 관세를 철폐한다.
 - (3) 태국 물품 798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13% 상당)의 관세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
 - (4) 의류·최종섬유제품에 대해 239개 관세품목(현행 수입액의 4%에 상당)은 현행 25%의 세율 그대로 유지하지만,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호주는 의류·최종섬유제품의 일부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폐지하기까지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음. 농림수산물과 관련된 것으로는 참다랑어 캔에 대해 현행 5% 관세를 즉시 2.5%로 인하하고, 관세 폐지는 2007년까지 유예기로 한 것이 예외임.
- 이에 대한 태국측 양허 개요는 다음과 같음.
 - (1) 태국은 협정발효시점(2005년 1월)에서 2,934개 관세품목(전품목수의 53% 상당, 현행 대호주 수입액의 78% 상당)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이 중 현행 관세 제로는 206개 품목이다.
 - (2) 그리고 전품목수의 41%를 2010년까지 폐지한다. 이는 현행 수입액의 17%에 상당한다.
 - (3) 관세 의무수입물량까지 포함해 남은 모든 관세를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 철폐한다. 단 일부 유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경과기간을 확보했다.
- 양국이 속한 케언즈 그룹은 WTO 농업협상에서 선진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 폐지를 주장하고 있었으나 양국간의 FTA에서는 양국 모두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를 설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태국은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를 경과기간으로 하는 식육, 유제품, 원예작물의 41개 관세품목에 대해서, 그리고 호주는 참다랑어 캔, 가공한 파인애플, 파인애플 과즙 4개 관세품목에 대해 2008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고, 특별세이프가드의 대상으로 등록하였음.
- 이번 태국과 호주의 FTA 체결시, 태국은 농산물 자유화에 대해 호주에 비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간 협상에 합의한 후 농업, 특히 축산과 낙농분야에서 태국 국내에서 커다란 논쟁을 일어났음. 태국에서는 총리가 FTA를 체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호주와의 FTA 협상 과정에서 총리가 의회와 국민에 대해 협상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임.

- 이러한 정보공개 문제가 있었던 데다, 협정 내용이 밝혀짐에 따라 소규모 가족경영을 하는 태국 농업이 관세라는 국경조치 없이 대규모 근대적 경영을 하는 호주 농업과 경쟁하는데 대해 농민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커다란 요인이었음. 태국에서는 농업이 기간산업이기는 하지만, 축산과 낙농과 같이 민감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유지에 강한 우려가 확산되어 협상과정의 불투명함이 강력히 비난받았을 뿐 아니라 FTA 체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전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국으로서의 지위가 확고한 태국에서도 농업분야에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어, 단순히 물품무역으로 취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2. 세계 농축산물 무역동향

가. 미국, 2005년도 농산물 무역 전망

-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45억 달러 하락한 57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수출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수출 상대국의 경쟁력 증가와 밀, 대두, 면화 등의 세계 생산량 증가로 인한 국제가격 하락에 있음. 면화 수출량은 40만 톤 감소하고, 밀 수출량도 6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옥수수 수출량은 400만 톤, 대두 수출량은 38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원예농산물 수출은 다소 증가하겠지만, 쇠고기 수출은 일부 외국의 수입금지조치로 인해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미국 농산물 수입액은 5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임. 이에 따라 농산물 무역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197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2002~04년 수입 증가세의 주요 원인은 달러화의 약세에 힘입은 가공농산물의 가격상승에 있음. 이러한 수입가격 상승세는 2005년에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전년대비 17억 달러 감소한 16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런 감소추세는 주로 밀 수출량 감소와 일부 곡물 수출단가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음. 전년대비 밀 수출량은 600만 톤 감소한 2,5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04/05년 밀 생산량은 전년대비 9% 감소한 5,78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유럽과 흑해 지역의 밀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북아프리카와 중동 시장에서 이들 국가와의 수출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 2005년 쌀 수출량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한 37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쌀 수출액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년대비 1억 달러 감소한 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미국의 조곡(rough rice)은 다소 수요가 취약할 지라도 남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2003/04년 남미의 대두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올 가을 대두와 대두박 수출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반면, 세계 수요가 완만히 증가하고, 2004/05년 남미의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5년 대두와 조제품 수출은 급격히 감소하고, 수출단가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대두 수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수입은 전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05년 면화 수출량은 전년대비 40만 톤 감소하고, 수출단가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총 수출액은 31억 달러로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세계 면화 생산량과 수요량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가격 호조와 적절한 기후에 자극받은 생산은 130만 톤(세계 소비량의 5.9%) 정도 소비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됨. 세계 제2위의

면화 생산국인 미국의 면화 생산량은 2004/05년에 전년대비 11% 증가한 반면,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면화 생산량은 35%나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임.

- 2005년 가축, 가금류, 유제품 수출액은 2001년 대비 2억 달러, 전년대비 4억 달러 감소한 10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이런 감소추세는 주로 광우병이라 불리는 소 해면상뇌증(BSE)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를 감안한 결과 쇠고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임.
- 시장접근을 회복하기 위해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이번 전망에서는 모든 수입금지조치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수출량과 수출액은 각각 38만 톤, 1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돼지고기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고, 수출규모는 17억 달러, 71만 톤에 달할 전망이며, 캐나다, 멕시코, 일본으로의 수출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임. 동물성 기름, 가축, 가금육, 유제품, 기타 주요 품목의 수출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할 전망이다.
- 2005년 원예농산물 수출액은 전년대비 4억 달러 증가한 13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세계 수요의 강세, 보다 경쟁력을 회복한 달러화의 강세 등의 요인에 의해서 해외로의 수출이 증대할 것임. 그러나 수출액 증가세는 원예농산물 가격이 상승한 전년에 비해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 포도주, 식품향료(essential oil), 혼합 식품조제품을 포함하여 신선·가공 과일 및 채소류의 수출액은 상승할 전망이다. 견과류 또한 눈부신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몬드의 수출액은 11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원예농산물 수출의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 시장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주요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2005년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25억 달러 증가한 550억 달러를 달성할 전망이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에너지와 연료비용의 상승에 따른 식품에 대한 소비감소로 인해서 농산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2005년 농산물 수입단가는 평균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량은 연간 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원예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은 2004년에 230억 달러에서 2005년 250억 달러로 약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원예농산물의 가공품은 미국 농산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열대성 작물을 포함할 경우 60%를 차지하고 있음. 신선, 냉동 채소류 수입은 2004년 42억 달러인데 반해 2005년에 4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며, 아스파라거스, 브로커리, 오이, 고추류, 양파, 시금치, 감자 등의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최대 수입대상국은 멕시코, 캐나다, 남미, 중미의 국가들이 될 것임. 포도, 멜론, 감귤, 딸기, 사과, 아보카도, 망고, 파인애플, 양딸기 등이 과일류 수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됨.
- 열대성 작물 수입 가운데, 코코아, 고무, 커피의 2005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9억 달러 증가한 7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4년 커피 가격만이 상승했지만, 코코아와 고무와 비교할 때 커피의 수요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임. 무알콜 음료, 열대성 향료, 홍차류의 수요 강세에 힘입어 전반적인 수입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2005년 열대성 유지류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국내 유지작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채유, 유채박, 유지박 등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임. 세계 유지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수요 증가세가 주춤함에 따라 식물성 유지 가격을 향후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의 대두 재고량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2005년 수확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 2005년 적색육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2억 달러 감소한 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수입 가공 쇠고기에 대한 수요는 향후 약세를 보일 전망이며, 생축 수입은 200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2005년 유제품 수입은 미국의 생산 증가와 가격 하락세에 힘입어 감소할 전망이다.

나. 중국, 2004년 하반기 옥수수시장 전망

- 중국 옥수수홈페이지(中國玉米淀粉網)에서는 지난 7월 7일 중국의 2004년도 하반기 옥수수시장동향을 전망하는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하였음.
- 중국의 2004년도 곡물총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하여 옥수수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있음. 금년도 중국은 기후의 영향으로 곡물 총생산량이 작년에 비해 4%(1,500만톤 정도) 증가하여 재작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그중 옥수수의 생산량은 40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동북지역의 옥수수 출고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임. 동북지역은 전국 옥수수의 주요 공급지로 이 곳 가격이 중국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하얼빈지역의 3등 옥수수 수매가격은 톤당 1,160위안(元)으로 출고가격이 1,200~1,220위안 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길림성 백성(白城)지역의 옥수수 수매가격은 톤당 1,180위안이며 출고가격은 1,230위안임.
- 중국의 금년도 상반기 옥수수 수출은 감소하였음. 1~5월까지 옥수수 수출은 146만톤으로 전년동기대비 69.9% 감소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 옥수수 재고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중국은 식량안보를 고려하여 하반기 옥수수 수출 할당량을 높이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축산업은 상반기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인해 예년의 6월중의 사료 소비 피크(peak)가 금년은 8, 9월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임. 육류, 가금류, 계란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축산업의 회복과 더불어 옥수수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여 시장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 또한, 운송비가 대폭 상승하여 옥수수의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초과 적재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어서 옥수수의 단거리 운송원가는 30~50%, 원거리(100~150km)의 운송원가는 7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임.

2. 세계 곡물 전망³⁾

- 미국 농업부(USDA)는 지난 9월 10일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전망’에서 2004/05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19억 6,75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전년 전망치보다도 약 1억 2,910만 톤 정도 증가한 수준임. 주요 곡물인 쌀과 소맥, 옥수수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3억 4,434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3억 1,191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한 19억 7,05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1999/00년도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으나 2000/01년도부터 2001/02년도까지는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그 차이가 확대되었음. 그

3) 이 자료는 「월간 세계농업뉴스(제49호)」의 ‘세계 곡물수급 동향과 전망’(농정연구센터 김혜영 연구원(hykim@krei.re.kr) 작성)에서 발췌하였으며, 가격자료는 세계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Pinksheet, July, 2004. 내용과 미 농무성(USDA)에서 매월 발표하는 「Rice Outlook(RCS-04f)」 June 14, 2004 에서 발췌하였음.

러나 2004/05년도에는 생산량의 증가로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가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억 3,515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0%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곡물 소비량은 생산량을 297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4/05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0.9% 감소한 3억 4,137만 톤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도 2003/04년도 17.8%에서 17.3%로 0.5%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816.72	1,838.47	1,962.16	1,967.57	7.0	0.3
공 급 량	2,352.56	2,280.99	2,305.08	2,311.91	1.4	0.3
소 비 량	1,910.04	1,936.65	1,967.17	1,970.54	1.7	0.2
교 역 량	241.06	231.24	235.25	235.15	1.7	0.0
기말재고량	442.52	344.34	336.90	341.37	△0.9	1.3
기말재고율	23.2	17.8	17.1	17.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2002년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3/4
대 두	212.7	242.7	246.7	243.7	323.0	377.0	323.0	268.0
옥수수	99.3	105.9	106.8	100.5	108.3	122.3	128.3	102.3
소 맥	148.1	147.4	137.3	142.0	157.9	164.7	161.7	147.6

주: 대두는 U.S. c.i.f Rotterdam 가격임. 옥수수는 U.S. Gulf No.2, Yellow, f.o.b. 소맥은 U.S. Gulf No.1 HRW.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Pinksheets), October, 2004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백만 톤, %

구 분	생산량	공급량	소비량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46.90	1,642.30	1,463.20	215.20	190.90	13.0
1981/82	1,496.10	1,687.00	1,462.80	209.70	229.00	15.7
1982/83	1,547.70	1,776.70	1,499.90	200.60	354.70	23.6
1983/84	1,485.30	1,840.00	1,537.80	207.80	302.40	19.7
1984/85	1,646.60	1,949.00	1,585.80	218.70	364.30	23.0
1985/86	1,664.10	2,028.40	1,596.00	180.60	433.30	27.1
1986/87	1,663.20	2,096.50	1,633.00	186.50	465.20	28.5
1987/88	1,594.70	2,059.90	1,652.10	211.60	410.60	24.9
1988/89	1,546.10	1,956.70	1,637.00	211.80	319.40	19.5
1989/90	1,670.80	1,990.20	1,688.60	220.10	296.60	17.6
1990/91	1,768.90	2,065.50	1,726.50	202.10	338.90	19.6
1991/92	1,708.00	2,046.90	1,722.00	221.10	325.00	18.9
1992/93	1,789.60	2,114.60	1,751.60	220.10	362.80	20.7
1993/94	1,712.40	2,075.20	1,753.30	204.40	473.10	27.0
1994/95	1,758.90	2,232.00	1,772.00	220.60	459.80	25.9
1995/96	1,712.20	2,172.00	1,761.60	206.70	410.60	23.3
1996/97	1,870.90	2,281.50	1,827.80	213.20	450.60	24.7
1997/98	1,880.80	2,331.40	1,835.90	217.50	495.30	27.0
1998/99	1,872.70	2,368.00	1,839.70	223.40	528.40	28.7
1999/00	1,871.60	2,400.00	1,869.70	240.10	530.40	28.4
2000/01	1,839.80	2,370.20	1,868.30	231.60	501.90	26.9
2001/02	1,870.11	2,414.04	1,899.90	238.82	514.15	27.1
2002/03	1,816.72	2,352.56	1,910.04	241.06	442.52	23.2
2003/04	1,838.47	2,280.99	1,936.65	231.24	344.34	17.8
2004/05	1,967.57	2,311.91	1,970.54	235.15	341.37	17.3

주: 2003/04년은 추정치, 2004/05년은 전망치임.

자료: USDA, *Agricultural Outlook*, 1985~2003(1980/81~2000/01).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2001/02~2004/05).

2.1. 쌀

- 2004/05년도 쌀 생산량은 2003/04년 보다 2.8% 증가한 3억 9,778만 톤 수준인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 태국, 일본, 중국의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각각 10.5%, 1.1%, 10.0%와 1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0.02% 감소한 4억 1,283만 톤으로 전년보다 약 10만 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508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것은 미국의 수출량이 전년 대비 4.3%만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로 전망됨.
-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 대비 18.0%가 줄어든 6,872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2004/05년도 기말재고율은 16.6%로 2003/04년도의 20.3%보다 약 3.7%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전망됨.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377.86	386.98	397.35	397.78	2.8	0.1
공 급 량	517.04	496.69	481.03	481.55	△3.0	0.1
소 비 량	407.33	412.93	412.98	412.83	△0.02	△0.04
교 역 량	28.60	24.80	25.48	25.08	1.1	△1.6
기말재고량	109.71	83.77	68.05	68.72	△18.0	1.0
기말재고율	26.9	20.3	16.5	16.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17.04	496.69	481.03	481.55	△3.0	0.1
기초재고량	139.18	109.71	83.68	83.77	△23.6	0.1
생산량	377.86	386.98	397.35	397.78	2.8	0.1
미국	6.54	6.37	7.04	7.04	10.5	0.0
태국	17.20	17.70	17.90	17.90	1.1	0.0
베트남	21.53	21.34	21.50	21.50	0.8	0.0
인도네시아	33.41	34.25	34.40	34.75	1.5	1.0
중국	122.18	112.46	126.00	126.00	12.0	0.0
일본	8.09	7.09	7.80	7.80	10.0	0.0
수입량	26.19	24.20	24.40	24.25	0.2	△0.6
인도네시아	2.75	0.80	1.80	1.50	87.5	△16.7
중국	0.26	1.00	0.60	0.60	△40.0	0.0
일본	0.63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07.33	412.93	412.98	412.83	0.0	0.0
미국	3.53	3.68	3.82	3.82	3.8	0.0
태국	9.60	9.75	9.90	9.90	1.5	0.0
베트남	17.80	18.20	18.60	18.60	2.2	0.0
인도네시아	36.50	36.55	36.60	36.60	0.1	0.0
중국	134.80	135.40	135.70	135.70	0.2	0.0
일본	8.74	8.36	8.30	8.30	△0.7	0.0
수출량	28.60	24.80	25.48	25.08	1.1	△1.6
미국	3.86	3.26	3.40	3.40	4.3	0.0
태국	7.55	9.00	8.50	8.50	△5.6	0.0
베트남	3.80	3.75	4.00	3.75	0.0	△6.3
기말재고량	109.71	83.77	68.05	68.72	△18.0	1.0
미국	0.83	0.76	1.08	1.04	36.8	△3.7
태국	2.96	1.91	1.41	1.41	△26.2	0.0
인도네시아	4.34	2.89	2.54	2.49	△13.8	△2.0
중국	67.22	44.29	34.19	34.19	△22.8	0.0
일본	2.47	1.70	1.70	1.70	0.0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국제곡물시장에서의 주요 쌀 가격 동향

단위: \$/톤

품 목 ¹⁾	2002/03	2003/04	2004/05 ²⁾	2004				
				5월	6월	7월	8월	9월
중립종 쌀	286	504	492	568	533	507	498	485
장립종 쌀	199	221	244	239	234	236	244	244

1) 중립종 쌀은 U.S. Medium California 1등급, 장립종 쌀은 태국산 100% Grade B.

2) 추정치임.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4i, Sept. 13, 2004.

- 중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의 톤당 243달러에서 2003/04년에는 톤당 504달러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04년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2004/05년에는 톤당 492달러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USDA 계산 세계시장 쌀 가격 (rough basis)

단위: \$/cwt

달	2002/03		2003/04		2004/05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중립종	단립종
8 월	2.99	3.00	3.79	3.85	5.40	5.47
9 월	2.96	2.97	3.72	3.77	5.58	5.66
10 월	2.95	2.96	3.74	3.79		
11 월	2.91	2.92	3.80	3.86		
12 월	2.93	2.94	3.94	4.00		
1 월	2.96	2.98	3.91	3.96		
2 월	3.01	3.03	4.19	4.21		
3 월	2.97	2.99	4.72	4.74		
4 월	2.91	2.93	5.35	5.38		
5 월	2.92	2.94	5.64	5.67		
6 월	3.21	3.24	5.64	5.67		
7 월	3.43	3.45	5.73	5.77		
평 균 ¹⁾	3.01	3.03	4.40	4.44		

주1: 세계시장 주 단위가격 단순평균

단위 : Rice Conversions 1 cwt = 100 pounds = 2.22 bushels = .0453 metric ton

자료: USDA, Rice Outlook, RCS-04i, Sept. 13, 2004.

- 장립종 쌀 국제가격은 2001/02년 톤당 174달러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05년에는 톤당 244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2.2. 소맥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6억 1,061만 톤으로 전년보다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 유럽 등의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03/04년 5억 8,581만 톤보다 약 1,483만 톤 증가한 6억 6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2001/02년 1억 812만 톤까지 늘어났으나, 2004/05년에는 1억 577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 대한 교역량의 비율도 17.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566.92	550.77	608.64	610.61	10.9	0.3
공 급 량	768.98	718.18	740.94	742.97	3.5	0.3
소 비 량	601.59	585.81	598.61	600.64	2.5	0.3
교 역 량	108.38	107.51	105.77	105.77	△1.6	0.0
기말재고량	167.41	132.36	142.32	142.33	7.5	0.0
기말재고율	27.83	22.59	23.78	23.7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 2004/05년 기말재고량은 1억 4,233만 톤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과 유럽의 재고량이 5.9%와 53.6%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의 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전년의 22.59%에서 23.70%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68.98	718.18	740.94	742.97	3.5	0.3
기초재고량	202.06	167.41	132.30	132.36	△20.9	0.0
생산량	566.92	550.77	608.64	610.61	10.9	0.3
미국	43.71	63.59	57.78	57.78	△9.1	0.0
호주	10.13	24.92	24.00	23.50	△5.7	△2.1
캐나다	16.20	23.50	24.50	24.50	4.3	0.0
EU25	124.48	106.57	129.69	130.64	22.6	0.7
중국	90.29	86.49	90.00	90.00	4.1	0.0
러시아	50.55	34.10	43.50	43.50	27.6	0.0
수입량	107.83	102.98	102.63	102.48	△0.5	△0.1
EU25	13.92	6.00	5.00	5.00	△16.7	0.0
브라질	6.73	5.30	5.50	5.50	3.8	0.0
북아프리카	18.71	15.60	15.30	15.30	△1.9	0.0
파키스탄	0.19	0.05	1.00	1.00	1900.0	0.0
인도	0.03	0.01	0.02	0.02	100.0	0.0
러시아	1.05	1.00	1.50	1.50	50.0	0.0
소비량	601.59	585.81	598.61	600.64	2.5	0.3
미국	30.64	32.52	32.69	32.69	0.5	0.0
EU25	116.55	109.05	114.30	115.25	5.7	0.8
중국	105.20	104.50	102.00	102.00	△2.4	0.0
파키스탄	18.38	18.90	19.30	19.30	2.1	0.0
러시아	39.32	35.50	37.50	37.50	5.6	0.0
수출량	108.38	107.51	105.77	105.77	△1.6	0.0
미국	23.14	31.56	25.86	25.86	△18.1	0.0
캐나다	9.40	15.80	16.00	16.00	1.3	0.0
EU25	19.94	10.30	15.00	15.00	45.6	0.0
기말재고량	167.41	132.36	142.32	142.33	7.5	0.0
미국	13.37	14.86	15.73	15.73	5.9	0.0
EU25	16.83	10.05	15.44	15.44	53.6	0.0
중국	60.38	43.29	38.04	38.29	△11.6	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2.3. 옥수수

- 2004/05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6억 6,446만 톤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미국과 아르헨티나, 유럽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2004/05년의 소비량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6억 7,05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소비량이 생산량을 60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6.8% 증가한 7,926만 톤이고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가 될 것으로 전망됨.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67.3%, 13.9%로 이들 두 국가가 약 8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00.98	618.06	662.87	664.46	7.5	0.2
공 급 량	749.01	740.27	755.40	758.42	2.5	0.4
소 비 량	626.80	646.31	669.73	670.51	3.7	0.1
교 역 량	78.23	74.22	79.06	79.26	6.8	0.3
기말재고량	122.21	93.96	85.67	87.90	△6.4	2.6
기말재고율	19.5	14.5	12.8	13.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749.01	740.27	755.40	758.42	2.5	0.4
기초재고량	148.03	122.21	92.53	93.96	△23.1	1.5
생산량	600.98	618.06	662.87	664.46	7.5	0.2
미국	227.77	256.90	277.46	278.42	8.4	0.3
아르헨티나	15.50	12.75	15.50	15.50	21.6	0.0
EU25	49.08	39.50	51.28	51.43	30.2	0.3
멕시코	19.28	21.00	20.30	20.30	△3.3	0.0
동남아시아	14.85	15.32	15.64	15.64	2.1	0.0
중국	121.30	115.83	120.00	120.00	3.6	0.0
수입량	76.51	77.09	75.30	75.45	△2.1	0.2
EU25	4.33	5.70	2.50	2.50	△56.1	0.0
일본	16.86	16.80	16.80	16.80	0.0	0.0
멕시코	5.27	5.80	6.30	6.30	8.6	0.0
동남아시아	4.15	3.36	3.71	3.71	10.4	0.0
한국	8.79	9.50	9.10	9.10	△4.2	0.0
소비량	626.80	646.31	669.73	670.51	3.7	0.1
미국	200.75	212.74	218.96	218.96	2.9	0.0
EU25	49.24	46.50	51.50	51.65	11.1	0.3
일본	16.80	16.90	16.80	16.80	△0.6	0.0
멕시코	24.70	26.20	26.50	26.50	1.1	0.0
동남아시아	18.50	17.69	18.69	18.69	5.7	0.0
한국	8.78	9.67	9.12	9.12	△5.7	0.0
중국	125.90	128.60	131.60	131.60	2.3	0.0
수출량	78.23	74.22	79.06	79.26	6.8	0.3
미국	40.33	47.88	53.34	53.34	11.4	0.0
아르헨티나	11.20	8.65	11.00	11.00	27.2	0.0
중국	15.24	8.00	4.00	4.00	△50.0	0.0
기말재고량	122.21	93.96	85.67	87.90	△6.4	2.6
미국	27.60	24.22	28.75	30.72	26.8	6.9
아르헨티나	0.63	0.54	0.85	0.75	38.9	△11.8
EU25	4.83	3.12	4.90	4.90	57.1	0.0
중국	64.97	44.25	28.90	28.85	△34.8	△0.2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 2004/05년 옥수수 소비량이 생산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6.4% 줄어든 8,79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전년보다 606만 톤 정도 줄어든 수준임. 주요 옥수수 생산국인 중국의 기말재고량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임. 2004/05년도 기말재고율도 전년보다 1.4% 포인트 줄어든 13.1%가 될 전망임.

2.4. 대두 및 대두박

- 2004/05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2,299만 톤으로 전년보다 18.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대두 소비량은 전년보다 9.5% 늘어난 2억 872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1,427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14.6% 증가한 6,358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2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미국이 42.8%, 브라질이 36.1%, 아르헨티나가 12.5%의 비중을 차지,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9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96.81	188.52	222.84	222.99	18.3	0.1
공 급 량	229.52	228.68	259.03	260.35	13.8	0.5
소 비 량	190.42	190.57	208.51	208.72	9.5	0.1
교 역 량	62.66	55.46	64.81	63.58	14.6	△1.9
기말재고량	40.16	37.36	50.20	51.54	38.0	2.7
기말재고율	21.1	19.6	24.1	24.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 대두의 기말 재고량은 5,154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736만 톤과 비교하여 38.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5.1% 포인트 높은 24.7%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004/05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4,252만 톤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소비량은 전년보다 7.0% 늘어난 1억 4,167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85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보다 7.0% 증가한 4,83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수출량에서 브라질이 36.4%, 아르헨티나가 41.8%의 비중을 차지, 이들 2국의 수출비중이 78.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두박의 기말 재고량은 446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379만 톤과 비교하여 17.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약 0.2% 포인트 높은 3.1%가 될 것으로 전망됨.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30.12	131.42	142.44	142.52	8.4	0.1
공 급 량	134.27	135.19	146.21	146.31	8.2	0.1
소 비 량	132.02	132.42	141.55	141.67	7.0	0.1
교 역 량	42.16	45.24	48.16	48.39	7.0	0.5
기말재고량	3.77	3.79	4.47	4.46	17.7	△0.2
기말재고율	2.9	2.9	3.2	3.1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229.52	228.68	259.03	260.35	13.8	0.5
기초재고량	32.71	40.16	36.19	37.36	△7.0	3.2
생산량	196.81	188.52	222.84	222.99	18.3	0.1
미국	75.01	65.80	78.29	77.18	17.3	△1.4
아르헨티나	35.50	34.00	39.00	39.00	14.7	0.0
브라질	52.00	52.60	66.00	66.00	25.5	0.0
중국	16.51	15.40	17.50	17.50	13.6	0.0
수입량	62.71	54.71	64.48	63.50	16.1	△1.5
EU25	16.82	15.29	16.16	16.16	5.7	0.0
일본	5.09	4.90	5.00	5.00	2.0	0.0
중국	21.42	16.90	23.00	22.50	33.1	△2.2
소비량	190.42	190.57	208.51	208.72	9.5	0.1
미국	47.52	43.86	48.11	47.84	9.1	△0.6
아르헨티나	24.86	26.60	27.57	27.77	4.4	0.7
브라질	29.76	32.85	38.02	38.02	15.7	0.0
EU25	17.84	16.08	16.96	16.96	5.5	0.0
일본	5.32	5.19	5.26	5.26	1.3	0.0
중국	35.29	34.37	38.20	37.70	9.7	△1.3
수출량	62.66	55.46	64.81	63.58	14.6	△1.9
미국	28.42	24.09	28.03	27.22	13.0	△2.9
아르헨티나	8.71	7.00	8.27	7.97	13.9	△3.6
브라질	19.73	19.70	23.07	22.97	16.6	△0.4
기말재고량	40.16	37.36	50.20	51.54	38.0	2.7
미국	4.85	2.87	5.18	5.16	79.8	△0.4
아르헨티나	12.47	13.24	15.97	16.85	27.3	5.5
브라질	15.42	15.98	21.47	21.59	35.1	0.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2/03	2003/04 (추정)	2004/05(전망)		변동률(%)	
			2004.8	2004.9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34.27	135.19	146.21	146.31	8.2	0.1
기초재고량	4.15	3.77	3.77	3.79	0.5	0.5
생산량	130.12	131.42	142.44	142.52	8.4	0.1
미국	34.67	33.07	35.12	34.85	5.4	△0.8
아르헨티나	18.59	19.85	20.69	20.75	4.5	0.3
브라질	21.46	23.64	27.37	27.37	15.8	0.0
EU25	12.88	11.62	12.32	12.32	6.0	0.0
중국	21.00	20.19	22.60	22.10	9.5	△2.2
수입량	43.68	46.26	47.97	48.21	4.2	0.5
미국	0.15	0.23	0.15	0.15	△34.8	0.0
브라질	0.32	0.28	0.15	0.15	△46.4	0.0
EU25	21.64	23.60	24.50	24.50	3.8	0.0
소비량	132.02	132.42	141.55	141.67	7.0	0.1
미국	29.37	29.35	30.48	30.48	3.9	0.0
브라질	8.13	8.75	9.65	9.65	10.3	0.0
인도	1.50	1.16	1.77	2.25	94.0	27.1
EU25	34.36	34.94	36.60	36.60	4.8	0.0
중국	20.21	19.61	21.80	21.30	8.6	△2.3
수출량	42.16	45.24	48.16	48.39	7.0	0.5
미국	5.46	3.95	4.72	4.49	13.7	△4.9
아르헨티나	18.46	19.71	20.15	20.21	2.5	0.3
브라질	13.75	14.94	17.60	17.60	17.8	0.0
기말재고량	3.77	3.79	4.47	4.46	17.7	△0.2
미국	0.20	0.20	0.23	0.23	15.0	0.0
아르헨티나	0.20	0.10	0.40	0.40	300.0	0.0
브라질	0.64	0.87	1.14	1.14	31.0	0.0
EU25	0.87	0.85	0.77	0.77	△9.4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14, September 10, 2004.

Ⅲ. 국내경제 동향4)

1. 경기

- 2004년 2/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지출이 계속 부진하였으나 수출호조와 설비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대비 5.5% 증가하였음.
- 민간소비지출은 승용차, 컴퓨터 등 내구재와 서적, 주방용품 등 준내구재에 대한 소비지출 감소로 전년 동기대비 0.7% 감소하였음.
- 설비투자가 일반기계 및 정밀기기 등 기계류투자의 증가에 힘입어 6.2% 증가하였고, 주거용 및 상업용 건물 등 건물건설투자의 증가로 인해 건설투자가 3.8% 증가함으로써 총 고정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였음.

경제성장률(실질)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G D P 성장률	3.7	2.2	2.4	3.9	5.3	5.5
최종 소비지출	0.9	△0.8	△0.9	△1.1	△0.6	0.2
(민 간)	0.3	△1.8	△1.9	△2.2	△1.4	△0.7
총고정자본형성	4.6	3.7	2.6	3.6	1.8	4.5
(건 설)	8.0	7.3	7.9	7.4	4.1	3.8
(설 비)	1.9	△0.6	△0.5	△2.4	△0.3	6.2
총 수 출	15.9	8.4	14.9	23.1	26.9	27.2
총 수 입	14.2	5.2	7.7	11.7	11.8	20.6

자료: 한국은행

4)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수출은 반도체, 통신기기, 사무용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제품이 전년 동기대비 33.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섬유, 음식료품 등 경공업제품과 서비스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27.2% 증가하였음.
- 수입은 원유 수입이 늘어나고 반도체 및 전자부품, 특수산업용기계, 정밀기기, 철강 등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서비스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0.6% 증가하였음.
- 최종수요에 대한 내수의 성장기여율은 설비투자가 증가로 돌아선 데 힘입어 플러스(+14.6%)로 전환하였으며, 수출의 성장기여율은 85.4%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농림어업은 어업이 부진하였으나, 재배업 및 축산업의 생산 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7% 증가하였음.
- 재배업은 배추, 마늘, 시설수박 등이 감소하였으나 보리, 양파, 감자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하였음.

경제활동별 성장률 추이(2000년 가격기준, 원계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3년				2004년	
	1/4	2/4	3/4	4/4	1/4	2/4
전 산 업	3.7	2.2	2.4	3.9	5.3	5.5
농 립 어 업	△5.1	△1.3	△9.1	△9.1	8.6	1.7
제 조 업	5.1	2.6	3.3	8.0	12.1	13.5
건 설 업	8.4	7.7	8.1	8.4	4.5	3.6
서 비 스 업	1.9	1.1	1.6	2.4	1.6	1.6

자료: 한국은행

- 축산업은 한우 선호로 육우 사육이 늘어나고 닭고기 소비 회복으로 양계도 증가함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하였음.
- 어업은 멸치, 낙지 등 연근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넙치, 볼락, 송어 등 양식업 생산도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19.5%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제조업은 섬유·의복, 목재 등 대부분의 경공업제품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산업용기계와 산업용화학물의 생산이 늘어나고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의 생산이 수출호조로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하였음.
- 건설업은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민간건설이 증가하고 정부건설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3.6% 증가하였음.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이 감소하였으나 운수창고 및 통신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하였음.
- 8월 중 산업생산은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음.

산업생산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년			2004년		
	연 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생 산	5.1	6.1	7.8	11.0	12.3	10.6
출 하	4.2	4.7	6.8	9.9	10.5	9.7
(수 출)	12.5	3.7	18.5	22.4	23.7	21.5
(내 수)	0.1	6.9	0.7	3.0	3.0	2.7
재 고	5.7	11.0	5.7	4.2	3.1	3.5
평균가동율	78.3	77.4	80.4	81.5	80.5	78.7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생산자제품 출하는 전년 동월 9.7% 증가하였음.
 - 수출출하는 사무회계용 기계, 섬유제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여 21.5% 증가.
 - 내수출하는 석유정제, 사무회계용 기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반도체 등에서 증가하여 2.7% 증가하였음.
- 생산자제품 재고는 기계장비, 제1차금속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5% 증가하였음.
-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영상음향통신, 사무회계용 기계 등은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반도체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3.1% 증가하였음.

2. 소비 및 투자

- 8월 중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자동차판매 및 차량연료의 판매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도매업과 소매업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전년 동월대비 1.5% 감소하였음.

소비 동향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년			2004년		
	연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도소매 판매	△1.0	△0.2	△2.0	0.1	△0.3	△1.5
내수용 소비재출하	△5.9	△1.6	△6.1	△2.4	△2.7	△3.7
(내 구 재)	△11.5	△4.2	△13.8	△6.4	△8.4	△3.3
(비내구재)	△3.1	△0.3	△2.1	△0.3	0.2	△3.9

자료: 재정경제부, 통계청

- 생산자의 내수용소비재 출하는 전년 동월대비 3.7% 감소함.
 - 내구소비재는 FPD TV, 냉장고 등은 증가하였으나 휴대용전화기, 승용차 등에서 감소하여 3.3% 감소하였음.
 - 비 내구소비재는 의약품, 담배 등은 증가하였으나 혼합조제분말, 남녀 기성복 등에서 감소하여 3.9% 감소하였음.
- 8월 중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컴퓨터 및 정밀기기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5.0% 증가하였음.
 - 기계류내수출하는 기계장비 및 기타 운송장비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1.6% 증가하였음.
- 국내 기계수주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6.2% 감소하였음.
- 국내 건설기성(경상금액)은 민간 및 공공발주 공사실적이 모두 증가하여 전년 동월대비 8.9% 증가하였음.

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월)대비)

	2003년			2004년		
	연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설비투자	△2.3	△3.4	△5.3	△3.8	2.5	5.0
기계류내수출하	△1.1	10.4	△4.2	△2.3	△1.2	1.6
국내기계 수주	△8.5	△18.2	△5.0	19.0	18.6	△6.2
건설투자 기성	18.8	16.0	18.6	9.8	10.7	8.9
건설투자 수주	22.5	△2.0	2.1	△14.2	△27.7	△39.2

자료: 통계청

- 건축공사는 주거용 주택 등의 증가로 10.0% 증가하였으며, 토목공사는 플랜트공사가 증가하여 6.7% 증가하였음.
- 국내 건설수주(경상금액)는 공공 및 민간부문의 발주가 모두 감소하여 전년 동월대비 39.2% 감소하였음.
- 2004년 2/4분기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970.9천원으로 전년 동기 2,828.3천원에 비해 5.0%(142.6천원) 증가하였음.
 - 근로소득은 2,625.7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2%증가하였음.
 - 2000년 기준 소비자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601.5천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6% 증가하였음.
- 도시근로자의 2/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은 1,942.8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1,896.0천원에 비해 2.5%(46.8천원)증가하였음.
 -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27.5%)을 차지하는 식료품비는 53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3%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전 분기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던 교육비는 0.7%의 증가율에 그쳤음.

도시근로자 가계수지 변화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연간	1/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소 득	6.4	5.3	4.3	7.2	6.8	5.0
소비 지출	4.3	6.0	4.8	7.0	8.0	2.5
(식료품)	3.9	7.1	2.9	11.2	9.3	7.3
(교 육)	5.0	11.2	2.4	19.4	18.3	0.7

자료: 통계청

3. 수출입 및 무역수지

- 2004년 8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8.8% 증가한 19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6개월 만에 200억불 이하를 기록함.
 - 품목별로는 승용차(60.3%), 화공품(54.9%), 철강·금속제품(53.5%), 기계류·정밀기기(37.4%), 반도체(30.3%), 정보통신기기(21.2%), 선박(3.1%) 등이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였으나, 수출금액면에서는 승용차(△1억불) 및 기계류(△3억불) 등이 전월보다는 감소하며 전체 수출금액이 200억불 이하 기록
 - 지역별로는 대EU(54.8%)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대중국(34.2%)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음.
- 8월 중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33.2% 증가한 18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전년 동기(월)대비), 억달러

	2003년				2004년		
	연간	2/4	3/4	4/4	1/4	2/4	8월 ^{주)}
수 출(FOB)	1,938.2	460.5	478.3	569.0	592.8	639.5	198.0
(전년동기증감율)	19.3	14.4	15.9	25.6	37.7	38.8	28.8
수 입(CIF)	1,788.3	417.1	429.7	499.2	527.4	552.7	180.4
(전년동기증감율)	17.5	12.1	10.5	18.1	19.3	32.5	33.2
무역수지	149.9	43.4	48.6	69.8	65.4	86.7	17.6

주: 관세청 확정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관세청

- 품목별로는 원유(70.4%), 철강재(34.5%) 등 원자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기계류·정밀기기(45.0%) 등 자본재 수입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별로는 대미국(40.5%), 중국(40.5%), 중동(39.0%)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음.
- 8월중 무역수지(18억불)는 전년 동월대비 0.8억불 감소하였으나, 1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누계로는 196억불의 흑자 달성하였음.

4. 고용

- 2004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3,182천 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고 용 활 동

단위: 천명, %

	2003년		2004년			동월대비 증감률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경 제 활 동 인 구 (경제활동참가율)	23,050 61.6	23,119 61.7	22,982 61.2	23,531 62.5	23,182 61.4	1.0
취 업 자	22,295	22,325	22,104	22,744	22,382	1.2
· 농 림 어 업	2,090	1,882	1,609	1,967	1,933	△7.0
· 광 공 업 (제 조 업)	4,184	4,264	4,297	4,324	4,239	2.6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건 설 업)	4,166	4,246	4,278	4,308	4,226	2.7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건 설 업)	16,021	16,179	16,198	16,453	16,209	1.8
·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건 설 업)	1,821	1,854	1,762	1,864	1,751	△2.7
실 업 자	756	794	878	787	801	6.0
실업률(계절조정)	3.5	3.6	3.8	3.3	3.6	

자료: 통계청

-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월대비 1%p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8월 중 취업자 수는 22,382천명으로 전월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하였음.
 -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7.0% 감소한 1,933천명을 기록함.
 - 광공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2.6% 증가하였으며,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1.8% 증가함.
- 실업자 수는 801천명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음. 또한 계절조정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0.1%p 증가하였음.

5. 물가

- 2004년 9월중 생산자물가는 전월대비 0.4%, 전년 동월대비 7.5% 각각 상승하였음. 이는 추석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상여건의 호전으로 인한 출하량 증가로 농림수산품이 내림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여파와 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 농림수산품은 채소류(-6.6%), 과일류(-10.0%) 등이 양호한 기상여건 등으로 인한 출하량 증가로 전월대비 4.2%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10.1%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가 수요부진 등으로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여파 및 고철 등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석유제품, 화학제품, 금속1차제품 등이 올라 전월대비 1.1%, 전년 동월대비 10% 상승하였음.

품목별 생산자 물가 지수(2000년=100)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9월
총 지 수	99.2 (△0.3)	101.1 (1.9)	102.3 (2.6)	105.5 (4.1)	107.3 (5.9)	109.1 (7.5)
농림수산물	106.3 (2.6)	112.6 (5.3)	120.1 (14.6)	128.7 (15.3)	128.0 (15.7)	129.2 (10.1)
광 산 품	109.1 (7.8)	111.1 (1.0)	109.7 (-)	110.5 (△0.3)	116.9 (4.5)	121.3 (10.7)
공 산 품	96.4 (△1.5)	97.5 (1.1)	98.6 (1.8)	102.2 (3.7)	105.1 (6.9)	107.6 (10.0)
전력/수도/가스	104.9 (△3.3)	107.9 (3.2)	107.1 (-)	108.2 (0.3)	107.8 (△1.2)	109.9 (2.8)
서 비 스	103.1 (2.1)	105.5 (2.4)	106.4 (2.6)	108.1 (3.1)	108.2 (2.9)	108.7 (2.9)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는 금융(1.0%)이 주가상승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 상승으로 올랐으나, 통신(-1.6%)이 LM통화료 및 이동전화이용료 인하로, 운수(-0.7%)가 항공여객료 및 외항화물운임 하락으로 내리면서 전체로는 전월대비 0.3% 하락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2.9% 상승하였음.
- 2004년 9월 중 소비자 물가는 우유 등 공업제품과 시내버스 등 공공서비스 부문은 올랐으나 무, 배추, 배 등 채소류와 과일류의 출하 증가로 농축수산물이 내려 전월대비 보합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3.9% 상승하였음.

-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대비 호박(-51.6%), 상추(-30.4%) 등이 하락하였으나 무(84.1%), 달걀(41.2%), 고등어(32.0%), 돼지고기(31.4%), 닭고기(30.6%)등이 올라 전체적으로 전년 동월대비 8.6% 상승하였음.

품목별 소비자물가 지수(2000년=100)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9월
총 지 수	106.9 (2.8)	110.8 (3.2)	111.7 (3.5)	113.4 (3.3)	114.2 (3.3)	115.9 (3.9)
상 품	106.4 (2.8)	109.3 (2.2)	111.0 (2.4)	113.2 (3.0)	113.8 (4.3)	116.5 (5.0)
농축수산물	112.9 (6.2)	118.9 (3.5)	124.7 (11.3)	128.6 (8.6)	128.7 (10.7)	136.2 (8.6)
공업 제품	104.3 (1.6)	106.3 (1.8)	106.7 (0.8)	108.4 (2.2)	109.1 (1.1)	110.4 (3.8)
서 비 스	107.5 (2.8)	112.0 (3.9)	112.3 (3.6)	113.5 (3.4)	114.6 (2.7)	115.4 (2.9)
집 세	110.1 (5.7)	114.5 (3.2)	115.1 (2.9)	115.6 (2.6)	115.8 (1.8)	116.0 (1.0)
공공서비스	106.1 (△1.3)	109.2 (3.4)	108.7 (2.4)	110.0 (2.2)	110.5 (1.0)	112.1 (2.8)
개인서비스	106.9 (3.7)	112.4 (4.6)	113.0 (4.7)	114.5 (4.4)	116.4 (4.2)	117.0 (4.0)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통계청

- 서비스 부문은 전년 동월대비 전세(1.5%), 전철료 등 공공서비스(2.8%), 보일러수리비 등 개인서비스(4.0%)가 모두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2.9% 상승하였음.

- 2004년 8월 중 수출 물가는 수요부진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이 내렸으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인상 및 공급부족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이 크게 올라 전월대비 2.4%, 전년 동월대비 11.2%로 상승하였음.
- 농수산품은 수확감소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참치, 조개, 미역 등이 올라 전월대비 8.6%, 전년 동월대비 30.4%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수요부진 등으로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품(-2.2%), 일반기계장비제품(-0.6%) 등이 내린 반면,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화학 및 고무제품(9.8%), 금속1차제품(2.0%) 등이 올라 전월대비 2.3%, 전년 동월대비 11% 상승하였음.

수출물가지수(2000년=100)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농 수 산 품	102.4 (△8.2)	103.1 (2.1)	117.2 (14.2)	121.0 (26.9)	119.4 (24.1)	130.7 (30.4)
공 산 품	89.4 (△7.0)	85.6 (△0.8)	88.0 (0.5)	91.1 (2.4)	92.2 (6.2)	95.6 (11.0)
원 자 재	84.0 (△6.2)	82.5 (1.3)	85.6 (2.8)	90.5 (5.2)	93.1 (12.8)	98.8 (18.7)
자 본 재	94.3 (△8.4)	83.8 (△6.9)	84.1 (△6.1)	83.7 (△4.2)	83.6 (△4.0)	82.4 (△1.8)
소 비 재	100.3 (△7.9)	94.4 (△2.2)	96.9 (△0.8)	97.4 (0.1)	95.1 (△2.3)	95.5 (1.0)
총 지 수	89.5 (△7.0)	85.7 (△0.7)	88.3 (0.6)	91.4 (2.0)	92.5 (6.4)	95.9 (11.2)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8월 중 수입 물가는 이라크,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에서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미국, 중국 등의 수요증가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원자재(3.2%) 및 소비재(1.9%)가 상승함으로써 전월대비 2.8%, 전년 동월대비 16.7%로 상승하였음.

수입물가지수(2000년=100)

	2002년	2003년		2004년		
	연간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8월
농 립 수 산 품	113.4 (2.0)	111.7 (1.0)	125.5 (9.6)	131.5 (13.4)	132.2 (14.4)	127.5 (14.9)
광 산 품	100.7 (△0.3)	104.5 (2.5)	108.5 (5.0)	114.4 (0.6)	128.6 (27.1)	146.3 (35.7)
공 산 품	95.0 (△8.4)	93.1 (1.1)	97.2 (3.2)	101.5 (5.7)	101.1 (6.7)	102.8 (10.2)
원 자 재	96.0 (△6.4)	96.0 (1.8)	100.6 (4.4)	106.2 (5.2)	109.9 (14.2)	115.8 (19.4)
자 본 재	100.5 (△6.3)	96.8 (△1.1)	100.6 (2.0)	100.8 (2.7)	98.7 (△0.6)	98.3 (1.9)
소 비 재	107.2 (△3.1)	103.6 (1.3)	108.0 (3.3)	111.0 (3.2)	112.6 (5.3)	114.1 (10.2)
총 지 수	97.1 (△6.2)	96.4 (1.4)	101.0 (4.0)	105.6 (4.8)	108.5 (11.7)	113.4 (16.7)

주: ()는 전년동기(월)대비, %
자료: 한국은행

- 원자재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광물이 크게 올라 기초원자재가 상승하고, 석유제품 및 화학제품이 올라 전월대비 3.2%, 전년 동월대비 19.4%로 크게 상승하였음.

- 소비재는 수요부진으로 내구재(-0.1%)는 내렸으나, 유가상승 및 수요증가로 비내구재(2.6%)가 올라 전월대비 1.9%, 전년 동월대비 10.2% 상승하였음.

6. 금융 및 외환

- 9월중 M3증가율은 내수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저조 등으로 민간신용 공급이 부진한 데 주로 기인하여 전월보다 다소 낮은 6%내외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M1 증가율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

통화지표 증감률(평잔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3			2004			
	연간	1/4	4/4	1/4	2/4	8월	9월
M1	6.9	10.3	5.4	7.3	9.4	8.4	8%초반
M2	7.9	13.1	3.3	2.6	3.8	4.9	4%후반
M3	8.8	12.4	5.4	5.1	5.8	6.3	6%내외
본원통화	6.5	7.7	4.7	6.9	4.4	2.8	1.2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8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등 장기시장금리는 콜금리목표 인하 이후 대폭 하락하였음. 이는 고유가 지속 등에 따른 경제회복지연 우려 및 정책금리 추가 인하 기대, 채권수급여건 호조 지속 전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CD(3개월) 유통수익률 등 단기시장금리도 크게 하락하였음.

금리

단위: %

	2003년	2004년				
	연중	4월	5월	6월	7월	8월
콜 금 리	3.95	3.74	3.74	3.74	3.75	3.59
CD유통수익률	4.31	3.90	3.90	3.91	3.91	3.70
회사채유통수익률	5.43	5.14	5.07	4.91	4.77	4.38

자료: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 원/달러 환율(기간 평균)은 미국 고용지표 저조 및 무역수지적자 확대 등으로 달러화 약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형성된 엔/달러환율 하락세, 비거주자의 역외선물환(NDF) 매도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음.

달러 환율

단위: 원(기간 평균)

	2002	2003년		2004년			
		연중	4/4	1/4	2/4	7월	8월
원/달러	1,251.2	1,191.7	1,181.3	1,172.3	1,161.9	1,157.7	1,159.0

자료: 재정경제부

Ⅳ. 농촌경제 동향5)

1. 농촌물가

- 2004년 8월 중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25.8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7.5%, 전월대비 0.6% 상승하였음.

농가판매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3		2004		등락률(%)	
		7월	8월	7월	8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 지 수	1000	114.9	116.4	125.0	125.8	7.5	0.6
곡 물	388	99.0	99.5	106.6	106.1	6.2	△0.5
미 곡	349.6	96.5	97.5	103.7	103.1	5.4	△0.6
맥 류	10.4	104.0	104.0	99.8	99.8	△4.2	0.0
잡 곡	4.2	108.2	108.1	108.8	108.8	0.6	0.0
두 류	8.4	105.9	103.9	150.7	140.6	26.1	△7.2
서 류	15.4	146.3	136.1	151.7	158.2	14.0	4.1
청 과 물	328.2	113.4	117.1	136.0	138.4	15.4	1.7
채 소	207.2	118.3	132.2	132.1	151.8	12.9	13.0
과 실	121	104.9	91.2	142.8	115.4	21.0	△23.7
축 산 물	225.2	145.2	144.9	143.7	146.0	0.8	1.6
가 축	196.5	151.5	151.0	148.9	151.4	0.3	1.7
유 란	28.7	101.9	102.8	108.4	109.4	6.0	0.9
기 타	58.6	111.6	115.1	114.1	108.6	△6.0	△5.1
특 작	45.3	117.8	118.9	122.7	117.8	△0.9	△4.2
화 훼	12.7	89.5	101.9	83.3	75.4	△35.1	△10.5
부 산물	0.6	110.8	111.4	118.5	118.5	6.0	0.0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5)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병률 연구위원(brkim@krei.re.kr), 김종선 전문연구
원(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두류의 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6.1%로 크게 상승하고 서류가 14.0%로 상승한데 기인하여, 8월 중 곡물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6.2% 상승(전월대비 5.0% 하락)한 106.1을 기록함.
 - 과실류와 채소류가 전년 동월대비 각각 21.0%, 12.9%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청과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15.4% 상승(전월대비 1.7% 상승)한 115.4를 기록함.
 - 가축의 판매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0.3% 상승에 그침으로써 축산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8% 상승(전월대비 1.6% 상승)한 146.0을 기록함
 - 부산물의 판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6.0%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 화훼의 판매가격지수가 35.1%로 크게 하락함으로써 기타작물의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6.0% 하락한 108.6을 기록함.
- 2004년 8월 중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전월대비 1.1% 상승)한 122.2를 기록함.
- 가계용품 구입가격지수는 120.6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대비 6.4%(전월대비 1.7%) 상승함. 이는 전년 동월대비 피복 및 신발류(-3.3%)가 하락하였으나, 식료품 구입비(14.4%), 광열·수도비(12.5%), 교육비(5.5%) 등이 크게 오른데 기인함.
 -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6.1%(전월대비 0.6%) 상승한 125.3을 기록하였음. 이는 가축 구입비(-9.0%)가 크게 하락하였으나, 영농광열비(19.6%), 영농자재비(18.1%), 사료구입비(18.0%) 등이 크게 상승한데 기인함.
 - 농촌임료금은 도정료(5.5%), 농기계 임차료(4.8%)가 상승하여 전년 동월대비 2.4% 상승한 118.9를 기록함.

농가구입가격지수(2000년=100)

	가중치	2003		2004		등락률(%)	
		7월	8월	7월	8월	전 년 동월대비	전 월 대 비
총지수	1000	114.6	114.9	120.8	122.2	6.0	1.1
가계용품	559.3	112.5	112.9	118.6	120.6	6.4	1.7
식료품	100.7	116.3	118.7	129.7	138.6	14.4	6.4
피복및	27.6	110.5	110.8	107.2	107.3	△3.3	0.1
가구집기및	42.2	94.2	93.9	96.3	96.3	2.5	0.0
광열수도	50	110.2	110.3	123.3	126.0	12.5	2.1
보건의료	79.5	115.0	115.0	117.3	117.3	2.0	0.0
교육	111.1	121.1	121.1	128.1	128.1	5.5	0.0
교양오락	7.9	102.3	103.2	104.2	104.0	0.8	△0.2
교통통신	109.4	107.2	106.9	111.2	111.6	4.2	0.4
기타잡비	30.9	114.5	114.8	115.3	116.7	1.6	1.2
농업용품	359.4	117.4	117.7	124.6	125.3	6.1	0.6
종자	19.6	98.2	98.2	97.1	97.1	△1.1	0.0
비료	34.2	100.2	100.2	113.7	113.7	11.9	0.0
농약	39.8	100.3	100.3	100.7	100.7	0.4	0.0
농기구	93.3	100.6	100.6	100.8	100.8	0.2	0.0
영농광열비	28	104.7	104.7	122.1	130.3	19.6	6.3
가축	45.8	214.7	217.1	198.7	199.1	△9.0	0.2
사료	63.4	111.4	111.4	135.9	135.9	18.0	0.0
영농자재	35.3	103.0	103.0	125.8	125.8	18.1	0.0
농촌임료금	81.3	116.7	116.1	118.7	118.9	2.4	0.2
농업노동임금	36.8	121.4	120.1	119.2	119.9	△0.2	0.6
기타임금	2.2	125.8	124.5	123.1	123.2	△1.1	0.1
도정료	7.4	111.8	111.8	118.2	118.3	5.5	0.1
농기계임차료	34.9	112.2	112.2	117.9	117.8	4.8	△0.1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2. 농가교역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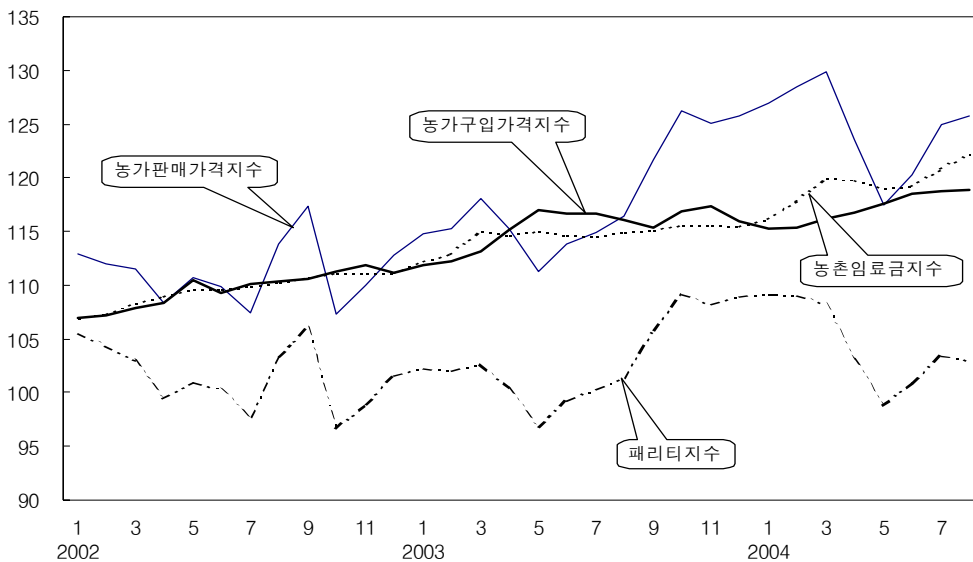
- 2004년 8월 중 두류, 과실류, 서류의 판매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함으로써 농가판매가격지수가 125.8을 기록하였으며, 영농광열비, 사료구입비, 영농자재 구입비 등이 올라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2.2를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8월 중 패리티 지수가 102.9로 나타나 농가의 교역조건이 전년 동월대비 1.6% 향상되었으나, 전월 대비 0.2%로 악화되었음.

농가교역조건 변화

	2003		2004		증감률(%)	
	7월	8월	7월	8월	전년동월	전월비
농가판매가격지수(A)	114.9	116.4	125.0	125.8	7.5	0.6
농가구입가격지수(B)	114.6	114.9	120.8	122.2	6.0	1.1
패리티지수(A/B*100)	100.3	101.3	103.5	102.9	1.6	△0.2

자료: 농협중앙회 조사부

농산물가지수의 변동추이



3. 농업인력

- 2004년 8월 중 농림업 취업자수는 193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0%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0.5 증가하였음.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1.4% 증가하였음. 한편,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하였으나 전월 대비로는 5.3% 감소하였음.

농림어업 취업자수 동향

단위: 천명

		2003년	2004년			증감률(%)	
		연간	1/4	2/4	8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경제활동 인구		22,916	22,982	23,531	23,182	1.3	1.0
취 업 자	전 산 업	22,139	22,104	22,744	22,382	1.2	△1.6
	농림어업	1,950	1,609	1,967	1,933	△7.0	0.5
	농가	1,733	1,420	1,708	1,701	△8.4	1.4
	비농가	217	188	259	233	5.9	△5.3

자료: 통계청

- 8월 중 농림어업 취업자수와 농가취업자 수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농외취업자수 또한 49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 감소하였음.

농가의 취업자 변화

단위: 천명

	2003	2004			증감률(%)	
	연간	1/4	2/4	8월	전년 동월대비	전월 대비
농림어업취업자	1,733	1,420	1,706	1,701	△8.4	1.4
농외취업자	539	558	516	499	△3.0	△1.8

자료: 통계청

4. 농산물 수출입

4.1. 수출동향

-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16.4% 증가한 1,275백만 달러임. 특히, 축산물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1.1%의 지속적인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

농림축산물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3. 1~8	2004. 1~8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1,859.8	1,094.7	1,274.6	16.4
농 산 물	1,563.2	963.1	1,101.6	14.4
축 산 물	119.5	68.1	96.2	41.1
임 산 물	177.1	63.5	76.8	20.9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산물 중 김치(8.9%), 인삼(24.3%), 채소(10.9%), 화훼(15.6%), 과일(8.8%)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닭고기(-56.3%), 밤 등 산림부산물(-13.6%)은 감소하였음.
- 가공농산물은 가공식품 및 목재류의 수출호조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
 - 연초류(17.1%), 주류(20.0%), 면류(13.2%), 소스류(26.4%), 목재류 (27.3%)

주요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2	2003	2004 (목표)	2003. 1~8	2004. 1~8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채 소	89.5	100.6	120	65.1	72.2	10.9
김 치	79.3	93.2	100	61.2	66.6	8.9
인 삼	55.0	66.6	73	35.1	43.7	24.3
화 웨	32.1	45.3	50	22.1	25.5	15.6
과 실	82.8	70.5	70	33.5	36.5	8.8
돼지고기	22.2	31.3	30	14.8	15.2	2.7
닭고기	3.3	3.8	2	2.2	0.9	△56.3
산림부산물	95.1	96.2	110	9.9	8.5	△13.6
가공식품	1,108.8	1,271.4	1,355	797.2	937.2	17.6
목재류	71.8	80.9	90	53.6	68.3	27.3
합 계	1,639.9	1,859.8	2,000	1,094.7	1,274.6	16.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2. 수입동향

- 2004년 8월까지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9% 증가하였음. 이 중 농산물의 수입과 임산물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17.7%, 9.4% 증가하였으나, 축산물은 23.4% 감소하였음.
- 주요 품목별로는 쇠고기(-102.8%), 닭고기(-93.2%)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돼지고기(38.6%), 옥수수(31.2%) 수입은 증가하였음.

농림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3. 1~8	2004. 1~8	전년 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8,328.2	6,834.8	7,585.8	9.9
농 산 물	6,212.7	4,035.9	4,901.7	17.7
축 산 물	2,115.6	1,378.5	1,117.0	△23.4
임 산 물	1,892.9	1,420.4	1,567.1	9.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품목의 수입액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2	2003	2003. 1~8	2004. 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 수 수	987.5	1,054.6	657.4	955.8	31.2
밀	543.4	612.1	421.4	425.4	0.9
대 두	328.9	410.7	264.7	331.4	20.1
쇠 고 기	946.8	1,177.0	771.0	380.1	△102.8
돼지고기	216.4	195.9	132.2	215.3	38.6
닭 고 기	101.9	95.0	59.7	30.9	△93.2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4년 8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와 파인애플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29.8%, 26.0% 증가하여 지난분기의 증가율을 계속 이어 갔음. 반면, 바나나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0.6% 감소하였음.

열대과일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품 목	2002	2003	2003. 1~8	2004. 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오렌지	147.6	168.7	145.8	162.5	10.3
키위	16.4	22.5	16.7	23.8	29.8
포도	30.3	39.0	29.5	31.4	6.1
파인애플	23.2	28.1	19.6	26.5	26.0
바나나	78.2	90.7	64.5	64.1	△0.6
레몬	6.0	4.7	3.1	3.5	11.4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4.3. 지역별 수출입동향

가. 대중국 농산물 수출입동향

- 중국으로부터의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4년 8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0.8%로 크게 감소한 11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이는 농산물 수입(-40.6%)과 축산물 수입(-14.4%)이 모두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중국산 농림축산물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3.1~8	2004.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농림축산물	2,321.0	1,412.1	1,169.2	△20.8
농 산 물	1,725.5	1,034.5	735.8	△40.6
축 산 물	38.5	24.7	21.6	△14.4
임 산 물	557.0	352.9	411.8	14.3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 대중국수출 품목의 수출액

단위: 백만달러

품 목	2002	2003	2003. 1~8	2004. 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과 자 류	7.4	12.5	6.7	14.3	53.1
면 류	4.7	18.0	10.1	12.1	16.5
당 류	21.4	24.3	14.2	18.1	21.5
화 화 류	4.7	10.0	3.2	4.0	20.0
커피	11.4	7.6	4.4	7.2	38.9
합 판	12.0	15.3	11.9	15.6	23.7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2004년 8월까지 중국에 대한 과자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가장 크게 증가(53.1%) 하였으며, 커피와 합판류의 수출 또한 지난 분기의 높은 증가율을 계속 이어갔음.

나. 대일본 농산물 수출입 동향

- 2004년 8월까지 대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은 4억3천만 달러로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호조영향으로 전년 동기대비 14.4% 증가하였음.
 - 신선농산물의 경우 김치(10.1%), 화훼(25.5%), 인삼(12.6%), 채소(7.1%) 등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닭고기(-53.8) 및 밤 등 산림부산물(-37.1%)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음.
 - 주류(21.6%), 과자류(32.5%), 면류(82.3%), 목재류(3.9%)

대일 농림축산물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백만 달러

품 목	2002	2003	2003.1~8	2004.1~8	비중 (%)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채 소	66.4	76.0	50.1	53.7	74.4	7.1
김 치	74.1	87.2	57.2	63.0	94.6	10.1
인 삼	28	29.2	15.9	17.9	41.0	12.6
화 훼	22.9	29.7	15.0	18.8	73.7	25.5
과 실	5.5	7.0	4.5	6.7	18.4	48.5
돼지고기	0.8	0.9	0.5	2.2	14.5	360.3
닭고기	2	2.6	1.4	0.7	77.8	△53.8
산림부산물	77.3	66.8	5.4	3.4	40.0	△37.1
가공식품	287	331.0	208.5	245.5	26.2	17.7
목재류	26	27.1	16.6	17.3	25.3	3.9
합 계	590.0	657.5	375.1	429.2	33.7	14.4

주: 비중은 전체 수출 중 일본 수출비중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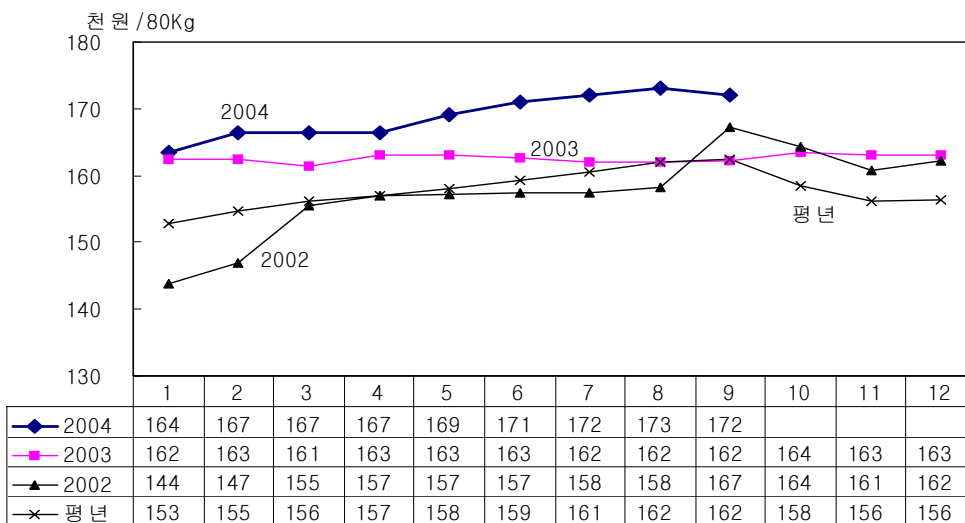
V. 주요 품목별 수급 및 가격 동향

1. 식량작물 및 사료곡물⁶⁾

1.1. 쌀

- 2003년도 쌀 재배면적은 101만 6천 ha로 전년도 재배면적(105만 3천 ha)에 비해 3.8% 감소하였음. 또한 2003년도 쌀 생산량은 445만 1천 톤으로 전년도 생산량(492만 7천톤)에 비해 9.7% 감소하였음.
- 2004년 3/4분기 중 쌀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9월 중 쌀 도매가격은(전라미, 상품기준) 80kg 당 17만 2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6.0% 상승하였으며, 평년 대비 5.9% 상승하였음.

쌀 도매가격 동향 (전라미,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3년의 평균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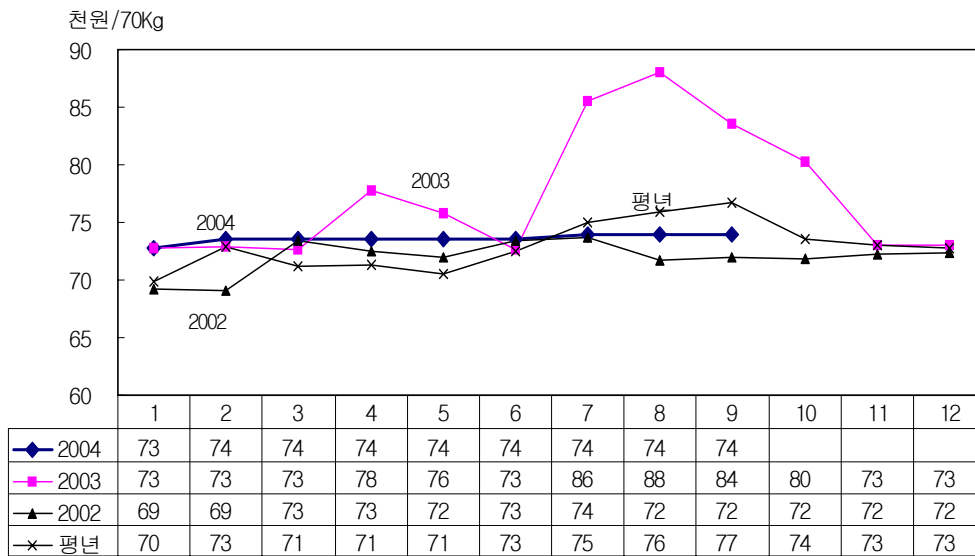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6)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중선 전문연구원 (sun589@krei.re.kr)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1.2. 보 리

- 2003년도 보리(쌀보리) 재배면적은 2만 4천 ha로 전년도(3만 6천 ha)에 비해 34.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6만 톤으로 전년도 (9만 4천 톤)에 비해 36.4% 감소하였음.
- 2004년도 3/4 분기 평균 보리(쌀보리, 상품기준) 도매가격은 70kg 당 7만 4천원으로 전 분기와 거의 변동이 없었음. 9월 중 쌀보리 도매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1.5% 하락하였음.

보리 도매가격 동향 (쌀보리, 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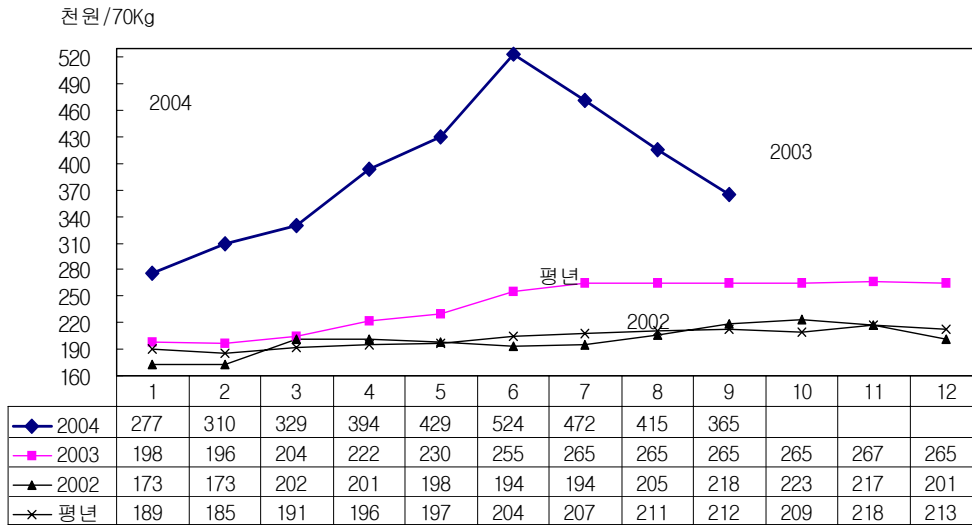


주: 평년은 1998~03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1.3. 대 두

- 2003년도 콩 재배면적은 8만 ha로 전년도(8만 1천 ha)에 비해 0.4% 감소하였으며, 생산량은 10만 5천 톤으로 전년도(11만 5천 톤)에 비해 8.6% 감소하였음.

콩 도매가격 동향 (국산 백태, 상품 기준)



주: 평년은 1998~03년의 평균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2004년 3/4분기 대두 평균 도매가격(국산 백태, 상품기준)은 70kg 당 41만 7천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7.7% 하락하였음. 특히 9월 중 대두 도매가격은 36만 5천으로 전년 동월대비 37.7% 상승하였으나 6월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

1.4. 사료곡물

- 2004년도 1~8월 누계 사료곡물 수입량은 477만 5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하였으나, 도입단가가 전년 동기대비 33.1%로 크게 상승함으로써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27.5% 증가한 8억 8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 같은 기간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422만 2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1% 증가하였음. 반면, 사료용 밀 수입량은 55만 3천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3%로 크게 감소하여 지난 분기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도입단가는 사료용 옥수수가 168달

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1.5%로 상승하였고, 사료용 밀은 179달러/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1.9%로 크게 상승하였음.

사료용 곡물 수입 실적

구 분			2002	2003	2003.1~8	2004.1~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옥수수	수입량	천톤	6,938	6,605	4,134	4,222	2.1
	단가	US\$/톤	106	117	115	168	31.5
	수입액	백만US\$	735	773	476	709	32.9
밀	수입량	천톤	1,609	1,372	1,058	553	△91.3
	단가	US\$/톤	100	109	104	179	41.9
	수입액	백만US\$	161	150	110	99	△11.1
계	수입량	천톤	8,547	7,977	5,192	4,775	△8.7
	단가	US\$/톤	105	111	113	169	33.1
	수입액	백만US\$	897	923	586	808	27.5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2. 채소류⁷⁾

2.1. 배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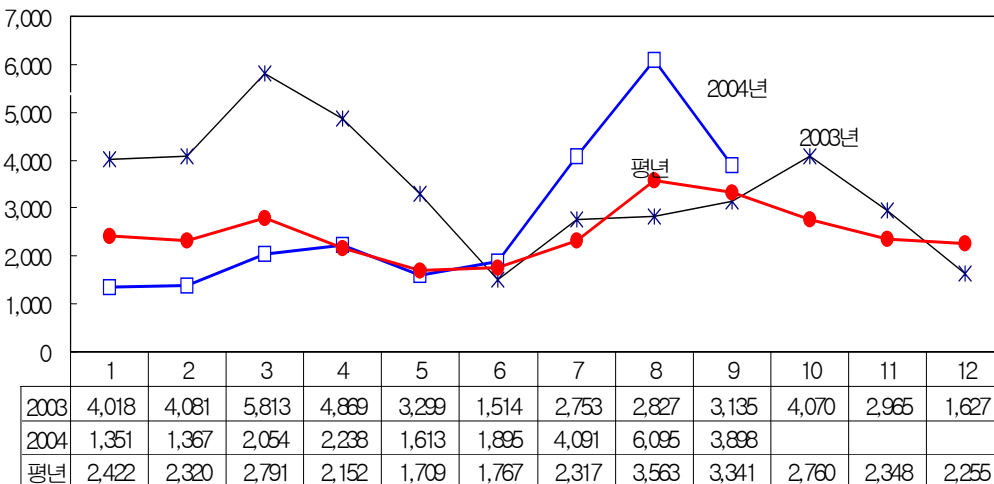
- 배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470만원(상품 기준)으로 지난 2/4분기보다 2배 이상, 평년 동기보다 53% 높았음.

7)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홍승지(hseungj@krei.re.kr), 한석호 (shohan@krei.re.kr), 김성우(swookim@krei.re.kr) 전문연구원, 송성환(song9870@krei.re.kr), 전상수(ssj@krei.re.kr), 박영구(ygpark@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문의 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바람.

- 가격이 크게 높았던 것은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7월 중순 이후 고온으로 인해 고랭지배추의 작황이 크게 나빠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지역모니터 및 표본농가 조사결과,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와 비슷한 1만 2,500ha 내외로 조사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만 3,231ha보다는 5% 적은 수준임.

배추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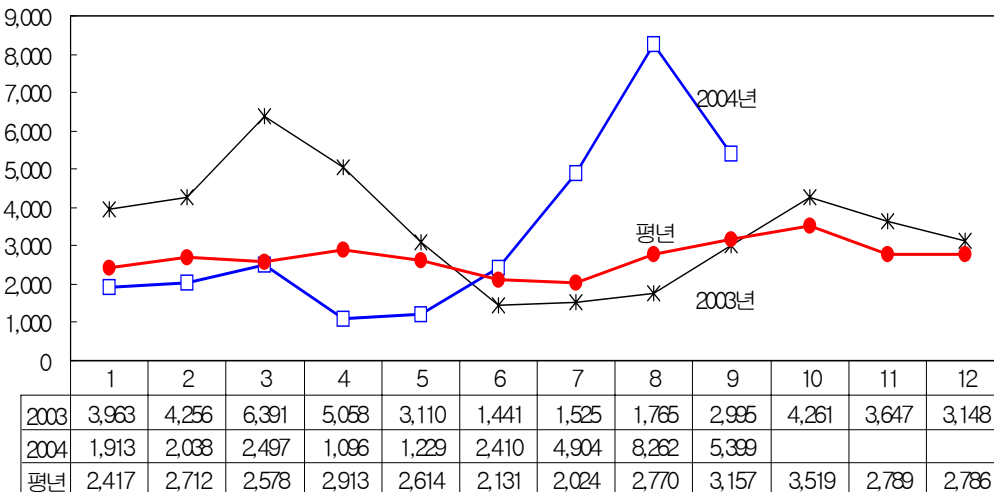
- 올해 가을배추 작황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4% 많으나, 평년보다는 5%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11~12월의 배추 도매가격은 가격인 낮았던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월동배추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7% 적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월동배추 출하기인 작년 겨울철 가격이 낮았기 때문이며, 대체작목은 양파, 월동무 등으로 조사됨.

2.2. 무

- 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5톤트럭당 620만원으로(상품 기준)으로 2/4분기보다는 3배 이상, 평년 3/4분기보다는 2배 이상 높았음.

무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천원/5톤트럭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농업관측정보센터 표본농가 조사결과, 금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 적은 1만 1,200ha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평년 재배면적인 1만 2,312ha보다는 9% 적은 수준임.
- 올해 가을무 작황을 평년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생산량은 작년보다 9% 많으나, 평년보다는 6% 적을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11~12월의 상품 5톤트럭당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다소 낮으나, 평년 동기보다 20% 내외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정보센터의 지역자문위원 조사결과, 금년 제주 월동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0% 많은 2,000ha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파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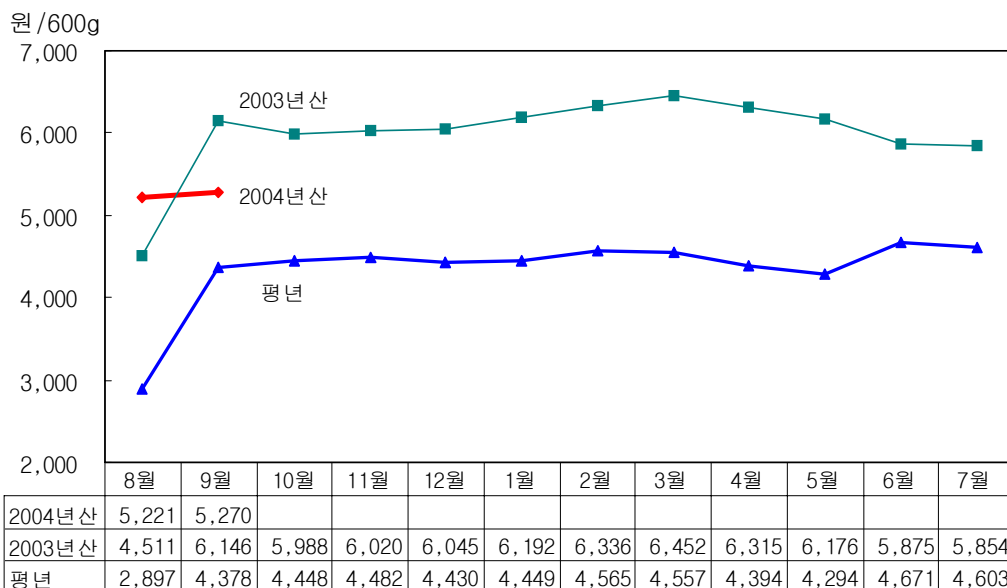
의 무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높았고, 집중호우로 당근, 감자의 유실 및 침수피해 면적 중 일부가 월동무로 대체되었기 때문임.

- 따라서 제주도 월동무가 본격 출하되는 내년 2월 이후 무가격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2.3. 고 추

- 건고추의 3/4분기 도매가격은 화건 상품 600g당 5,4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 평년 동기보다 38% 높은 반면, 2/4분기보다 11% 낮은 수준이었음. 이처럼 가격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높았으나 2/4분기보다 낮았던 것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출하량이 늘었기 때문임.

고추 도매가격 동향 (화건,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9.8~2004.7월 평균임.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61,894ha로 작년산보다 8% 많은 반면, 평년보다는 15% 적은 수준임.
-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5일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금년산 고추의 예상단수는 평년보다 2% 적으나, 작년산보다는 11% 내외 많은 250~260kg이 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작년보다 태풍 피해가 적었고, 적절한 강우로 가뭄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 재배면적에 추정단수를 적용한 금년산 고추 생산량은 15만 5,000~16만 1,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작년산보다 19% 많은 반면, 평년보다는 16% 적은 수준임.
- 9월말 현재 중국 산둥성의 익도산 건고추 재고량은 1천톤으로 작년 동기(1만톤)보다 9천톤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9월말 현재 중국 산지 거래가격은 햇고추 수확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작년 동기(4,000元)보다 2배 높았으나 지난달(10,000元)보다는 하락한 톤당 8,000元이었음. 이에 따른 민간수입 가능원가는 600g당 4,800원 내외, 도매원가는 5,2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9%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중국의 금년산 고추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육상황도 작년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고추 재고량은 9월 현재 1,168톤이며, 2004년 MMA 잔여물량 2,185톤 중 10월에 1,000톤, 11월에 1,185톤을 수입할 계획임.
- 금년산 고추 수확기인 8~9월말까지 고추의 전체 수입량은 고추관련품목을 건고추로 환산한 수입량을 포함할 경우 8,940톤으로 수입량이 많았던 작년 동기(7,670톤)보다도 많은 수준이었음. 이는 중국내 고추 생산량이 작년보다 많고 국내 고추 가격도 평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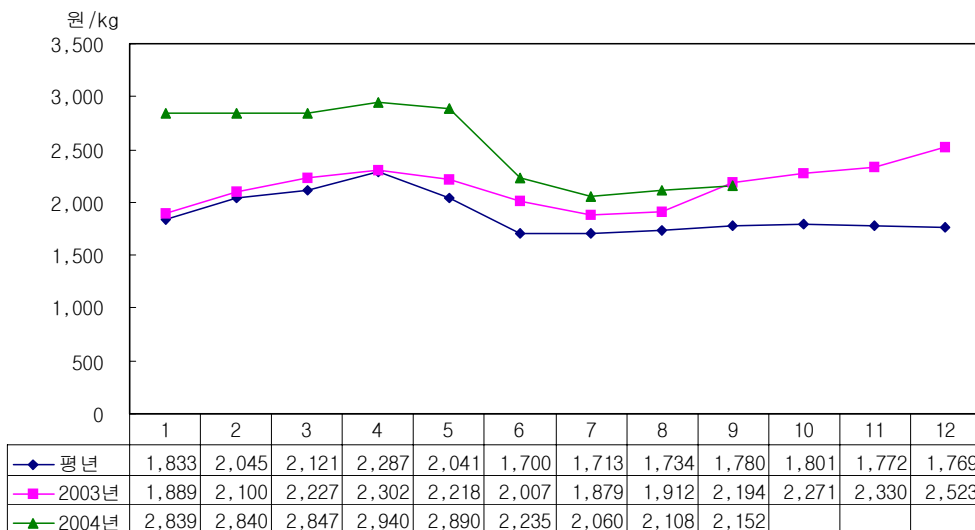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는 10월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금년산 고추 생산량이 작년산보다 많고, 고추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고추의 10월 가격은 약보합세로 전망됨.

2.4. 마늘

- 마늘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2,110원(난지형 상품 기준)으로 수확기인 2/4분기보다 22% 낮고, 작년 동기보다 6%, 평년 동기보다 21% 높은 수준임.
- 이처럼 3/4분기 가격이 작년보다 높았던 것은 금년 생산량이 작년보다 6% 적었기 때문임. 그러나 중국산 마늘수입 증가로 9월 이후 도매가격은 작년보다 2% 낮은 수준임.

마늘 도매가격 동향 (난지형, 상품 기준)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발표한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9% 감소한 3만 237ha임.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2% 감소한 6,060ha, 난지형은 10% 감소한 2만 4,177ha임.
- 금년산 마늘의 단수는 작년산보다 4% 많은 10a당 1,183kg으로 조사됨. 품종별로는 한지형이 작년 동기보다 2% 적고, 난지형이 5%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35만 7,697톤으로 작년산(37만 8,795톤)보다 6%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금년산 마늘생산량

	재 배 면 적			10a당 수 량			생 산 량		
	2003년	2004년	증감률	2003년	2004년	증감률	2003년	2004년	증감률
	천ha		%	kg		%	천톤		%
마 늘	33.1	30.2	△8.8	1,143	1,183	3.5	379	358	△5.5
한 지	6.2	6.1	△2.1	773	756	△2.2	48	46	△4.3
난 지	27.0	24.2	△10.3	1,228	1,290	5.0	331	312	△5.7

- 저장업체 조사결과,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보다 7% 적은 6,800톤, 재고량은 6% 적은 6만 7,200톤 내외로 조사됨.
- 출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적었던 것은 정부 비축물량 6,000여톤이 시장에 방출되었고, 중국산 마늘 수입량도 증가하였기 때문임.

마늘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톤

연산	저장량	9.20일까지 출고량	9.20일 현재 재고량
2003	78,700	7,270	71,430
2004	74,000	6,800	67,200
증감률(%)	-6.0	-6.5	-5.9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중국의 금년산 마늘 재배면적은 작년산 마늘의 농가판매가격 하락으로 작년산보다 1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수는 구비대기 기상호조로 최근 몇 년간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작년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중국의 금년산 마늘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다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창산 육쪽마늘의 경우 수출가능한 품위의 마늘은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9월 현재 중국의 산지수매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로 지난달보다 36달러 상승한 톤당 253달러로 조사되었음. 작년산 재고분이 거래되고 있는 다진마늘의 가격은 톤당 400~450달러, 금년산 햇마늘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냉동마늘은 톤당 400달러로 조사되었음.
- 중국산 마늘의 국내 수입원가는 신선·냉장마늘이 kg당 2,340원, 깐마늘은 2,510원 수준이며, 도매원가는 신선마늘이 2,570원, 깐마늘은 2,760원으로 추정됨.
- 2004년 9월 수입량은 통마늘 2,098톤(MMA 2,000톤 포함), 깐마늘 599톤, 냉동마늘 1,846톤, 초산조제마늘 434톤이며, 신선마늘로 환산할 경우 5,698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2배 많은 수준이었음. 특히, 깐마늘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415톤 많은 수준임.
- 생산량과 저온저장량은 작년 동기보다 적으나 10월 수입물량이 신선·냉장마늘과 냉동마늘 중심으로 작년 동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난지형 마늘의 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9월 15일 조사결과, 내년산 마늘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산보다 약 3% 증가한 3만 1,200ha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전북이 7%, 경남이 2% 감소한 반면, 그 외 지역은 3~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늘 재배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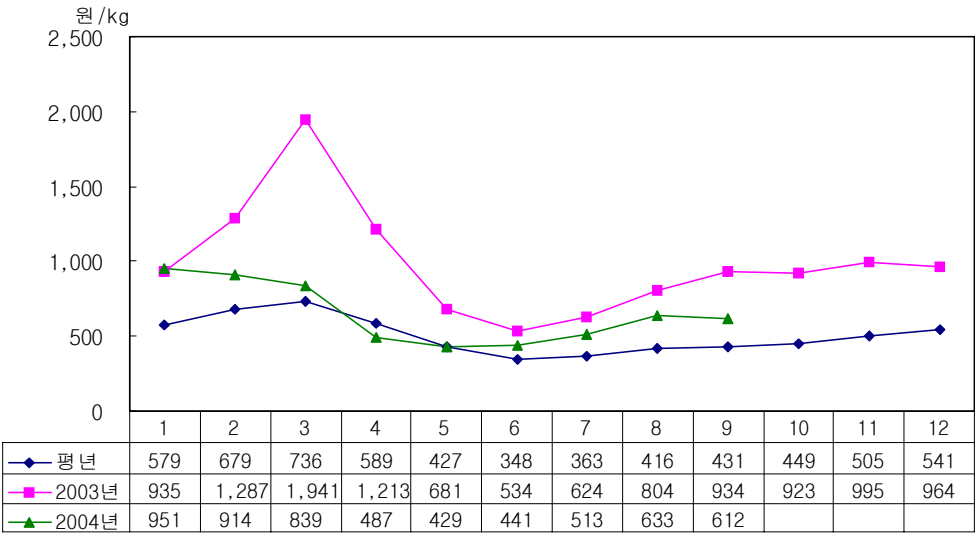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6.4	2.8	-7.3	3.7	4.6	-1.7	7.6	3.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 15일 조사치.

2.5. 양파

- 양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590원(상품 기준)으로 수확기인 2/4분기보다 30%, 평년 동기보다 45%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26%, 낮은 수준임.
- 이처럼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생산량이 작년 동기보다 27% 많았기 때문임.

양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최종 조사한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26% 증가한 1만 5,563ha임.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21% 증가한 2,769ha, 중만생종은 27% 증가한 1만 2,794ha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결과, 금년산 양파의 단수는 작년산보다 1% 많은 10a당 6,090kg으로 조사되었음. 품종별로는 조생종이 4% 많고, 중만생종은 작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산 양파 생산량은 94만 7,774톤으로 작년산(74만 5,203톤)보다 27% 많은 것으로 나타남. 품종별로는 조생종은 작년산보다 26% 많은 17만 2,841톤, 중만생종은 27% 많은 77만 4,933톤임.

금년산 양파생산량

	재 배 면 적			10a당 수량			생 산 량		
	2003년	2004년	증감률	2003년	2004년	증감률	2003년	2004년	증감률
	천ha		%	kg		%	천톤		%
양 파	12.4	15.6	26.0	6,033	6,090	0.9	745	948	27.2
조 생 종	2.3	2.8	20.8	5,983	6,242	4.3	137	173	26.1
중만생종	10.1	12.8	27.2	6,045	6,057	0.2	608	775	27.4

- 저장업체 조사결과, 9월 20일까지 출고량은 작년 동기보다 34% 많은 3만 9,500톤, 재고량은 12% 많은 40만 700톤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출고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았던 것은 금년산 민간 저온저장량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와 저장 중인 양파의 부패율이 높았기 때문임.
- 금년 고랭지양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17% 증가한 227ha로 조사되었으며, 예상단수는 3% 많은 4,800kg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작년보다 20% 많은 1만 800여톤으로 추정됨.

- 생산량과 저온저장량이 작년 동기보다 많아 10월의 양파 평균도매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는 낮으나 지난달보다 다소 높은 상품 kg당 650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양파 저온저장량 추정

단위: 톤

연산	저장량	9.20일까지 출고량	9.20일 현재 재고량
2003	387,300	29,460	357,840
2004	440,200	39,500	400,700
증감률(%)	13.7	34.1	12.0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20일 저장업체 조사치.

- 중국의 금년산 양파 재배면적은 작년산보다 5% 증가하였으며, 우량종자보급에 따라 단수는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금년산 중국의 양파 생산량은 작년산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샤먼, 운남성이 20만톤, 산둥성은 100만톤 이상, 간수성은 30만톤 이상으로 조사되었음. 산둥성 지역의 저장 및 수출가능물량은 20만톤 내외로 추정됨.
- 9월 현재 중국의 산지수매가격은 지난달보다 23달러 상승한 톤당 108달러로 조사되었음. 신선양파의 경우 국내수입원가는 kg당 620원 수준이며 도매원가는 690원으로 추정됨.
- 2004년 9월 수입량은 신선양파 350톤, 건조양파 122톤, 냉동양파 102톤이며, 신선양파로 환산할 경우 2,169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77% 적은 수준이었음.
- 중국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저장량 증가로 10월 양파 수입량은 가격이 높았던 작년 동기보다는 적으나 9월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9월 15일 조사결과, 내년산 양파의 재배의향면적은 금년산보다 약 4% 증가한 1만 6,200ha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는 충북 27%, 경북 14%, 전북 11%, 충남 7%, 경남4%, 전남이 1% 증가하고, 제주는 4%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양파 재배의향면적 작년대비 증감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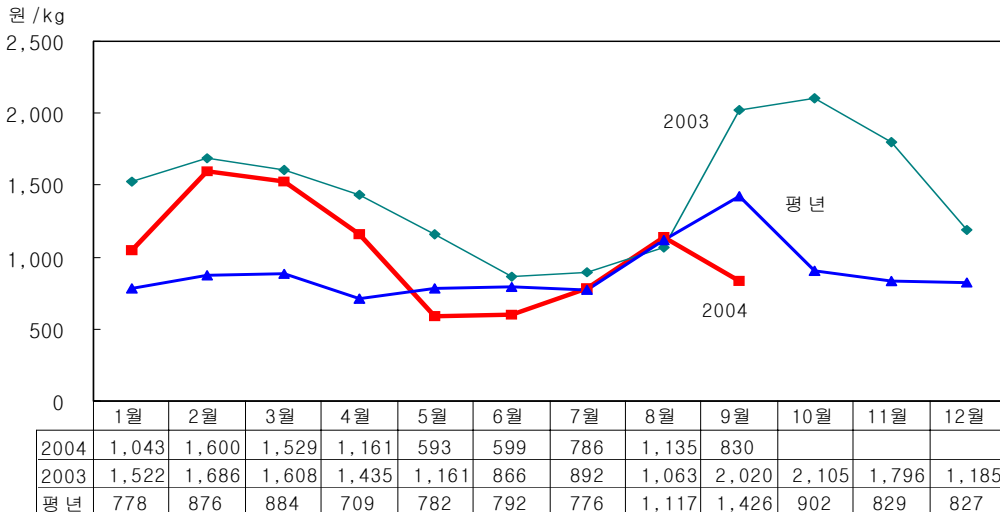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27.4	7.1	11.3	1.1	13.5	4.2	-4.3	3.8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월 15일 조사치.

2.6. 대 파

- 대파의 3/4분기 도매가격은 kg당 92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1%, 평년 동기보다 19% 낮은 반면, 2/4분기보다는 17% 높은 수준임. 이는 태풍 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어 전체 출하량이 작년과 평년 동기보다 많았기 때문임.

대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9.1~2003.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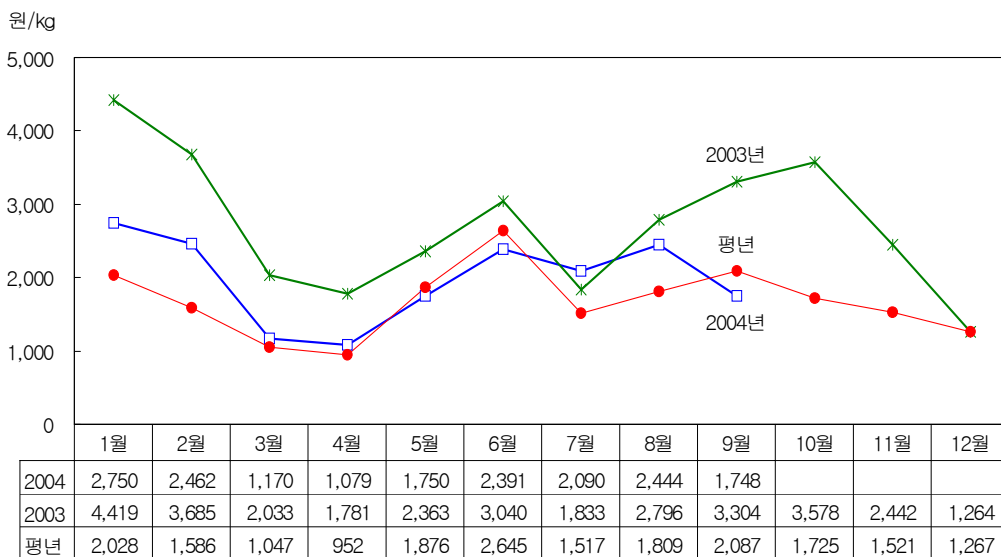
- 10~11월의 가을대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생육상황은 작년보다 좋은 편이어서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13% 많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10~11월의 가을대파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25% 많아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2,000원)보다 60% 낮은 상품 kg당 800원 내외로 전망됨.
- 11월 하순 이후에 출하되는 남부지방 겨울대파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작년 9월 겨울대파 포전거래가격은 평당 9,500원 내외로 높았으나, 금년은 재배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포전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포전거래는 농협 계약이 시작되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거래 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낮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의 도매가격도 전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 내년 3월 이후에 출하될 중부지방 시설 월동대파는 금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2.7. 쪽 파

- 쪽파의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kg당 2,094원으로 2/4분기보다는 20%, 평년 동기보다는 16% 높으나, 작년 동기보다는 21% 낮은 수준이었음.

- 3/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낮았던 것은 작년의 쪽파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늘었고, 기상여건 악화로 상품성이 나빴기 때문임.
- 10월의 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가격상승과 금년의 종구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파종을 늘려 작년 동기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됨.
- 10월에 출하될 쪽파의 생육상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좋아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3% 많을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10월 쪽파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4% 많아, 평균도매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크게 낮을 전망이다.

쪽파 도매가격 동향 (상품 기준)



주: 평년가격은 1999.1~2003년 12월 평균임. 1~3월 가격은 깎파 가격이며, 4~12월 가격은 홉파 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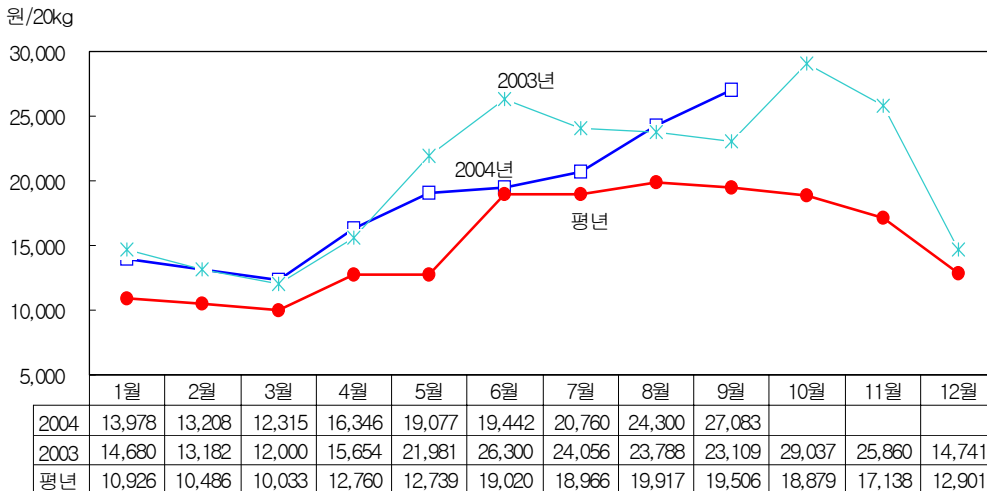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5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김장쪽파와 겨울쪽파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각각 6%, 4%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8월 조사치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잦은 강우로 인해 호남지역의 파종이 지연되었고, 작년 가격이 높아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늘리려고 하기 때문임.

2.8. 당 근

- 3/4분기 당근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19,05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 평년 동기보다는 24% 높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8월의 기상여건 악화로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작황이 부진하였고, 부산·경남지역 당근의 저장량도 적어 전체적인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10~11월의 당근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11% 내외 적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가을당근 재배면적이 양배추, 김장채소 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0~11월 당근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제주지역 겨울당근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제주지역 재배면적이 9월 초순의 해수와 중순의 집중호우로 유실되거나 침수피해를 입었고, 9월 중순 이후에는 재파종도 어렵기 때문임.

당근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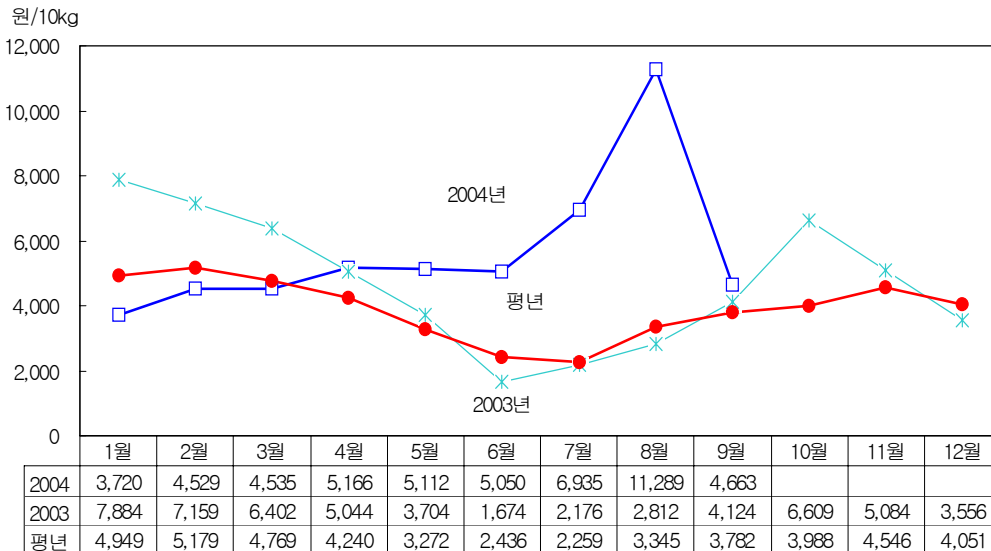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9. 양배추

- 3/4분기 양배추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7,630원으로 평년과 작년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임.
- 3/4분기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8월에 출하되는 고랭지양배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지속적인 고온현상으로 작황도 부진하여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 10~11월의 양배추 출하량은 작년 동기보다 26%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고랭지와 충청지역의 양배추 출하면적이 증가한데다, 기상여건도 호전되어 작황도 좋아 출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따라서 10~11월 양배추 가격은 작년 동기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제주지역 겨울양배추 재배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9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적었고 작년 겨울양배추의 가격이 크게 높았기 때문임. 지역별로는 호남 4%, 제주는 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양배추 도매가격 동향(상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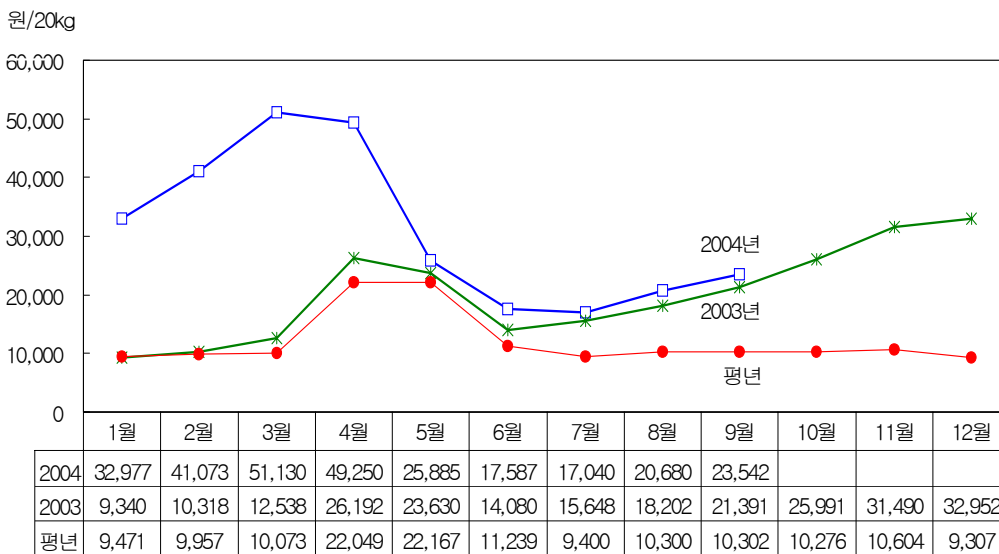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월~2003년 12월의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2.10. 감 자

- 감자 수미의 3/4분기 평균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0,421원으로 2/4분기보다는 34% 낮았으나, 작년 동기보다 11%, 평년 동기보다는 104% 높은 수준이었음.
- 3/4분기 가격이 작년 및 평년 동기보다 높았던 것은 기상여건 악화로 주산지인 강원도 고랭지감자의 작황이 나빠 출하량이 적었기 때문임.

감자(수미) 도매가격 동향 (상품)



주: 평년가격은 1999년 1~2003년 12월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10월 강원도 고랭지감자의 출하예상면적은 작년 동기보다 6% 증가하나, 작황이 나빠 예상단수는 작년 동기보다 10% 적을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10월 고랭지감자의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4% 적어, 도매가격은 상품 20kg당 27,000원 내외로 작년 동기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5일 표본농가 조사결과, 11월의 고랭지감자 출하예상량은 작년 동기보다 8%, 12월 이후에는 9% 적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금년 가격이 높고, 기상여건 악화로 부패율이 증가하면서 농가들이 출하를 앞당기고 있기 때문임.
- 농업관측정보센터 9월 15일 표본농가 및 지역모니터 조사결과, 금년 가을감자 파종면적은 작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8월 조사치보다 증가폭이 4%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가을감자의 발아상태는 작년보다 ‘ 좋음 ’이 59%, ‘작년수준’ 24%, ‘나쁨’이 16%로 조사되어, 작년보다 발아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파종 이후의 적절한 강우 등 기상여건이 좋았기 때문임.
- 그러나 가을감자의 주산지인 제주의 경우는 파종이 대부분 완료된 9월 중순 이후의 집중호우로 토양이 유실된 면적이 많아, 앞으로의 기상여건에 따라 생육상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 12월 이후에 파종되어 4월말~5월에 출하되는 내년산 제주도 겨울감자(대지)의 재배의향면적은 작년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주출하기인 5월에 봄감자와 출하가 겹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농가들이 재배면적을 줄이고자 하기 때문임. 겨울감자의 대체작목으로는 마늘과 양배추 등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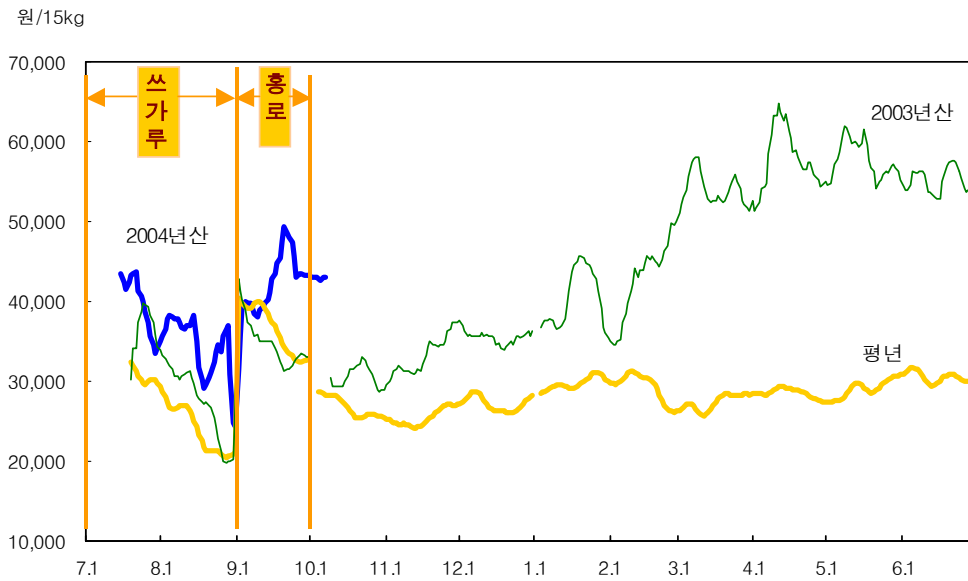
3. 과일⁸⁾

3.1. 사과

- 8월 쓰가루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21% 높았고, 9월 홍로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21%, 특품 가격은 7% 높았으며, 10월 상순 후지 가격은 지난해보다 35% 높은 수준임.
- 사과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6% 감소하였음. 쓰가루, 홍로 등 조·중생종의 단수는 개화기 저온과 장마 후 고온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하지만, 후지 등 만생종의 단수는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 사과 전체적으로 단수는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사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8만톤 수준일 전망.
- 지역별 생산량은 충청 지역이 2%, 지난해 태풍 피해가 심했던 경남 지역이 6%, 경북 지역이 4% 정도 증가할 전망.
- 10월 이후 사과 공급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1% 늘어난 27만톤 수준으로 전망됨.
- 개화기 저온과 장마 후 고온으로 과실 비대가 양호하지 못하여 과실 크기가 지난해보다 나쁠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앞으로 기상여건이 좋다면 과실의 선택 및 당도는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됨.
- 올해산 사과의 수출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32% 늘어난 6천톤(연산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8) 이 자료는 농업관측정보센터 김경필 부연구위원(kkphil@krei.re.kr), 이원진(wjlee), 박재홍(jhpark), 박미성(mspark)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바람.

사과 도매가격 (상품)



주: 7~8월은 쓰가루, 9월은 홍로, 10월부터는 후지 기준임. 평년은 '99. 7~'04. 6월의
일별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지역별 사과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충청	경북	경남	전체
성목면적	-7.9	-5.7	-3.9	-5.8
단수	9.9	8.9	10.2	10.3
생산량	1.5	4.0	5.9	3.8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추정치.
자료: 지역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월말 조사치.

사과 공급량 추정

		생산량 (A)	7~9월 공급량(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03	365	116	4.4	245
	'04	379	100	5.8	273
'04/'03 증감률(%)		3.8	-13.2	32.0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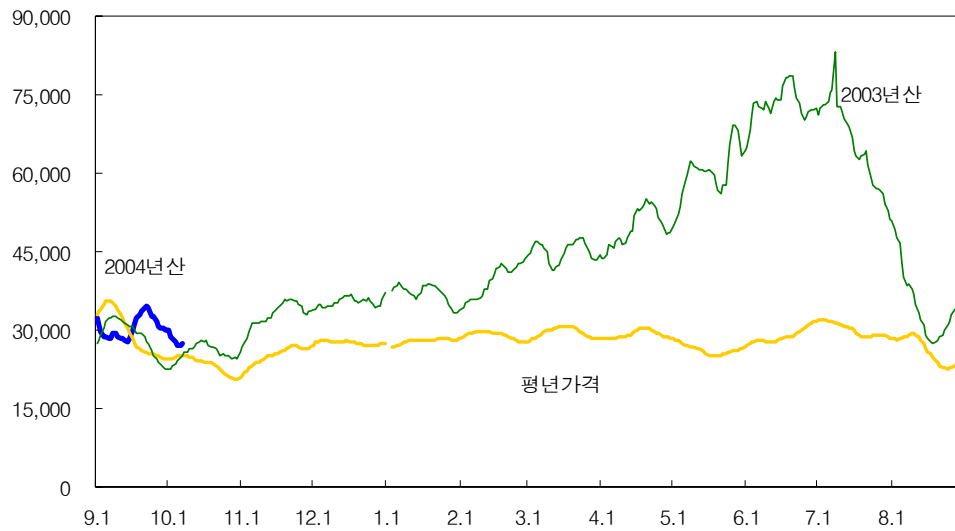
주: '04년산 생산량 및 시기별 공급량은 10월 1일 현재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2. 배

- 9월 신고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8% 높고, 특품 가격은 13% 낮은 수준이었음. 이는 과실 비대가 양호하여 특품 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10월 상순 신고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3% 높은 수준임.
- 배 성목면적이 1% 줄어들었지만, 성목단수는 올해 기상여건이 좋고 병충해가 적어 태풍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31%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41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지난해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심했던 호남 지역은 단수가 31% 증가하여 생산량은 28% 늘어나고, 영남 지역은 성목면적이 1% 증가하고 단수도 38% 늘어 생산량은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이후 배 공급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28만톤 수준일 전망.
- 올해 기상여건이 좋고 병해충 피해가 적어, 과실의 크기, 모양, 당도가 지난해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어 올해산 배의 품질은 전체적으로 좋은 편임.
- 올해산 배의 수출량은 생산량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33% 늘어난 1만 7천톤(연산기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배 도매가격 (신고, 상품)

원/15kg



주: 평년은 '99. 9~'04. 8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지역별 배 생산량의 지난해대비 증감률

단위: %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성목면적	0.2	-3.0	-1.9	1.3	-0.9
단수	27.4	29.7	30.6	38.4	31.4
생산량	27.7	25.8	28.2	40.3	30.2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추정치.
자료: 지역별 성목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월말 조사치.

배 공급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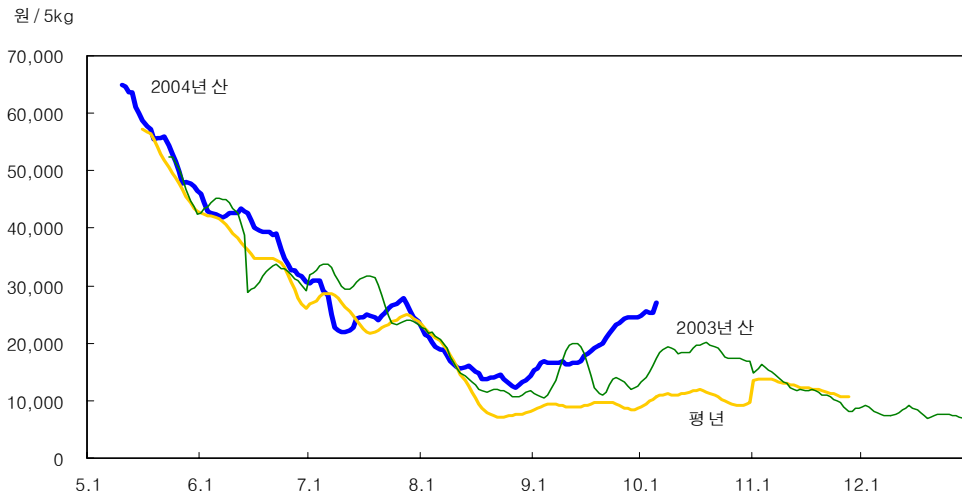
		생산량 (A)	9월 공급량(B)	수출량 (C)	10월 이후 공급량(A-B-C)
공급량 (천톤)	'03	317	76	12.9	228
	'04	412	112	17.1	283
'04/'03 증감률(%)		30.2	47.1	33.0	28.7

주: '04년산 생산량 및 시기별 공급량은 10월 1일 현재 농업관측정보센터 추정치임.

3.3. 포도

- 8~9월 캠벨얼리 상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5~43% 높았으며, 거봉은 3~15% 높았음. 8~9월 포도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노지면적의 감소로 포도공급량이 적었으며, 당도 등 품질이 좋았기 때문임. 또한 올해 포도 품질이 좋아서 캠벨얼리 상품과 하품의 가격 차이가 지난해(3.6배)보다 좁혀진 2.6배로 나타났음.
- 지난해 잦은 강우와 일조량 부족으로 수체내 저장양분이 부족하고, 이상고온현상으로 송이 크기가 작은 편이어서 포도 단수는 지난해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성목면적이 지난해보다 7%(1,560ha) 감소하고, 단수가 1% 감소하여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8% 감소한 35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 지역별 생산량은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7% 감소한 5만 8천톤, 충북이 9% 감소한 4만 6천톤, 충남이 11% 감소한 4만 3천톤, 전북이 10% 감소한 1만 9천톤, 전남이 11% 감소한 9천톤, 경북이 7% 감소한 16만 1천톤, 경남이 12% 감소한 8천톤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포도 생산량 감소로 인해 생과출하량은 지난해보다 5% 감소한 32만 1천톤, 가공량은 47% 감소한 1만 5천톤, 저장량은 6% 증가한 1만 1천톤일 것으로 추정됨. 가공량이 감소하는 것은 올해 생과 가격이 높고, 비상품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며, 저장량이 증가하는 것은 올해 품질이 좋아서 저장성이 좋아졌기 때문임.

포도 도매가격(상품)



주: 평년은 '98~'03년 가격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임. 5~6월 중순은 텔라웨어, 6월 중순~10월은 캠벨, 11~12월은 MBA 기준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포도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03	21,209	1,775	376
'04	19,645	1,766	347
증감률(%)	-7.4	-0.5	-7.9

주: '04년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04년 성목면적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월 조사치임.

포도의 이용형태에 따른 생산추정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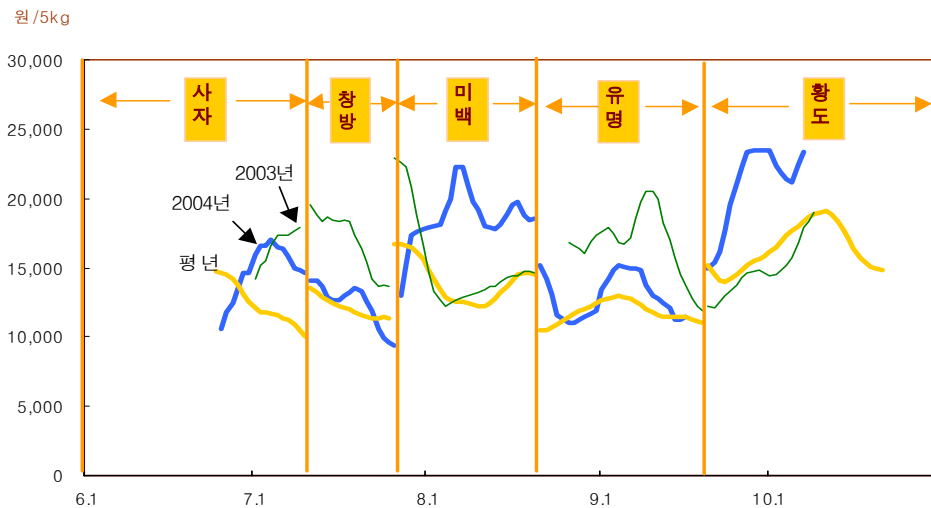
		전체	생과출하	가공	저장
생산량 (천톤)	'03	376(100.0)	338(90.0)	28(7.4)	10(2.6)
	'04	347(100.0)	321(92.7)	15(4.3)	11(3.0)
증감률(%)		-7.9	-5.1	-46.7	6.0

주: ()는 전체생산량중 이용형태에 따른 비율임. 가공알은 농가자체 가공량을 포함함.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모니터 및 표본농가에 의한 조사·추정치.

3.4. 복숭아

- 8월 유모계 복숭아 상품가격은 미백이 지난해보다 38%, 백도가 58% 높았음. 천도계 복숭아(천홍, 레드골드, 환타지아) 가격은 2~8% 높았음. 9월 가격은 유명이 5%, 황도는 28%, 환타지아는 19% 높았음. 8~9월 복숭아 가격이 높았던 것은 전체 공급량이 많았지만 복숭아 가격의 주요 결정요인인 당도 등 품질이 좋았기 때문임. 또한 올해 복숭아 품질이 좋아서 황도 상품과 하품의 가격 차이가 지난해(3.6배)보다 좁혀진 3.1배로 나타났음.
- 복숭아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2%(240ha) 증가한 9,860ha이고 단수가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6% 증가한 20만톤 수준으로 추정됨.
- 지역별 생산량은 경기·강원이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3만톤, 영남이 5% 증가한 9만 7천톤, 충청은 9% 증가한 5만 6천톤이지만, 호남은 3% 감소한 1만 8천톤으로 추정됨.
- 복숭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생과 가격이 높아 생과출하량은 8% 증가한 19만 6천톤이지만 가공량은 38% 감소한 5천톤일 것으로 추정됨.

복숭아 도매가격 (상품)



주: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값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복숭아 생산량 전망

	성목면적(ha)	단수(kg/10a)	생산량(천톤)
'03	9,622	1,969	189
'04	9,857	2,042	201
증감률(%)	2.4	3.7	6.2

주: '04년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04년 성목면적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7월 조사치임.

복숭아의 이용형태에 따른 생산추정량

		전체	생과출하	가공
생산량 (천톤)	'03	189(100.0)	181(95.7)	8(4.3)
	'04	201(100.0)	196(97.5)	5(2.5)
증감률(%)		6.2	8.2	-38.0

주: ()는 전체생산량중 이용형태에 따른 비율임.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모니터 및 표본농가에 의한 조사·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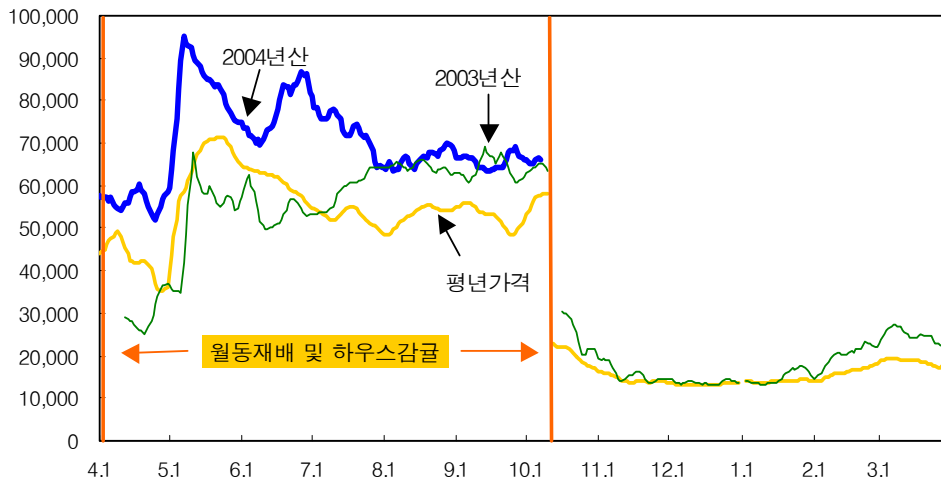
3.5. 감귤

- 감귤(하우스온주 상품 5kg) 도매가격은 7월에 지난해보다 23%, 평년보다 35% 높은 2만 4,200원, 8~9월에 지난해보다 2~3%, 평년보다 24~26% 높은 2만 1,900원~2만 2,300원이었음. 3/4분기 하우스온주 가격이 높았던 것은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하였고 당도 등 품질이 좋았기 때문임.
- 노지온주의 재배면적은 폐원(2,500ha) 등으로 지난해보다 11% 감소하였음. 단수는 간벌, 휴식년, 열매숙기 등의 감산정책에도 불구하고 해거리 풍작해로 지난해보다 16~1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62~63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노지온주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됨. 당도는 8월까지 일조량이 많았고 10월에도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해(9.8°Bx)보다 높은 10.2°Bx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열매크기는 8월까지 여름가뭄 등으로 지난해보다 작았지만 9월 강수량이 많아 비대가 촉진된 것으로 조사됨.
- 10월 노지온주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이는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과일시세가 좋아 조기출하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임. 11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3/4분기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툼레이와 프레스노카운티지역 오렌지 수입금지가 지속되었고 수입원가가 상승하여 지난해보다 62% 감소한 3,500톤 수준이었음. 수입단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36% 높은 1.0US\$이었음. 국내가격은 지난해보다 28~50% 높은 4만 1천원~5만 1천원(발렌시아 상품 18kg당) 수준이었음.

감귤 도매가격(상품)

원/15kg



주: 4월 1일~10월 10일까지는 월동 및 하우스온주 5kg을 15kg으로 환산한 가격. 일별 가격은 전후 2일간을 포함한 5일 이동평균. 평년가격은 '97년 5월~'03년 4월 가격 중 최대치와 최소치를 제외한 평균.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단위: 천ha, kg/10a, 천톤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03	22.5	2,655	597
'04	19.7	3,085~3,157	616~630
증감률(%)	-11.2	16.2~18.9	3.2~5.6

주: '0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임.
자료: '03년 재배면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생산량은 제주도 자료임.

감귤 시기별 공급량 추정

		생산량	10월 공급량	11월 이후 공급량
공급량 (천톤)	'03	597	40	557
	'04	623	45	578
'04/'03 증감률(%)		4.4	12.4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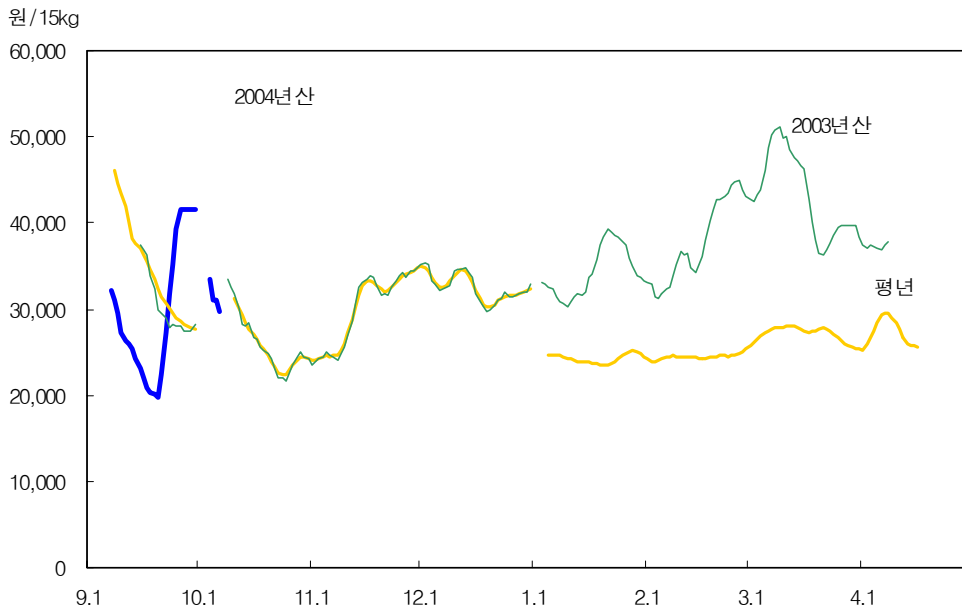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추정치.

3.6. 단감

- 9월 단감 도매가격(서촌조생 상품 15kg당)은 지난해보다 14%, 평년보다 18% 낮은 2만 8,500원이었음. 10월 상순가격(부유 상품 15kg)은 지난해보다 5% 낮은 3만 1,100원 수준임. 9월 단감가격이 낮았던 것은 생산량 증가와 추석 수요에 대한 기대로 출하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임.
- 단감 성목면적은 지난해보다 4%(580ha) 감소한 1만 5,660ha 수준임. 성목단수는 지난해 태풍피해에 따른 영향과 차량의 해거리가 있었으나, 생육기 기상여건이 좋아 태풍피해가 컸던 지난해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20만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경남지역 생산량은 재해가 없고 기상이 순조로워 태풍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37% 증가하고, 경북지역은 일부지역 조생종의 서리피해가 있었으나 기상여건이 좋아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전남 지역은 차량품종의 해거리로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올해 단감의 품질은 대체로 지난해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됨. 당도는 생육 기간에 일조량이 많아 지난해(14.2°Bx)보다 높은 15.4°Bx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됨. 외관은 큰 재해가 없어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일소피해 및 탄저병이 발생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9월 단감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70% 증가하였고, 10월 공급량도 3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10월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은 생산량이 증가한 데다 9월말~10월 상순가격이 지난해 및 평년보다 높아 조기출하에 대한 기대가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11월 이후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단감 도매가격(상품)



단감 생산량 전망

단위: ha, kg/10a, 천톤

	성목면적	성목단수	생산량
'03	16,247	1,003	163
'04	15,663	1,252	196
'04/'03 증감률(%)	-3.6	24.8	20.3

주: '04년 생산량은 10월 1일 기준 농업관측정보센터 전망치.
자료: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감 시기별 공급량 추정

		생산량	9월 공급량	10월 공급량	11월 이후 공급량
공급량 (천톤)	'03	163	8	41	114
	'04	196	13	54	129
'04/'03 증감률(%)		20.3	69.5	32.7	12.5

주: 농업관측정보센터, 10월 1일 기준 추정치.

4. 과채류9)

4.1. 오이(백다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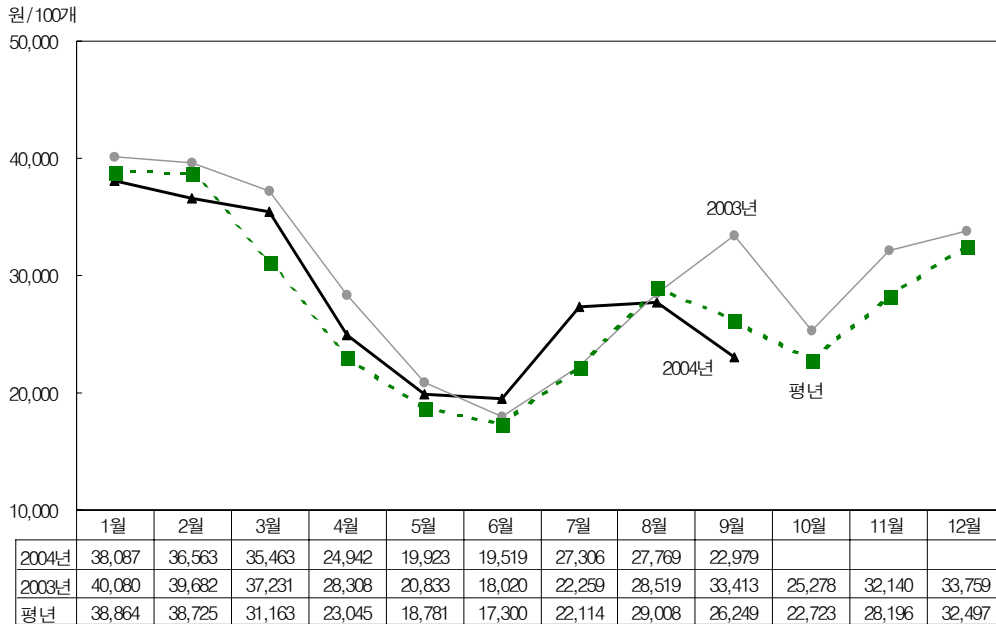
- 백다다기 오이의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100개당 7월에 2만 7,300 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평년보다 24% 높았고, 8월에는 2만 7,800 원으로 지난해보다 3%, 평년보다 4% 낮았음. 9월에는 2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1%, 평년보다 13% 낮았음.

9)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정학균(hak8247@krei.re.kr), 김원태(wtkim@krei.re.kr), 최익창(cic@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 7월 백다다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7월 집중호우와 고온의 영향으로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0% 감소하였기 때문임. 8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강원 주산지의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23%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 백다다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강원 주산지의 일사량이 많아 출하량이 비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47% 많았고, 평년보다도 36% 많았기 때문임.
- 10월 백다다기 출하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고, 11월 중순 이후에 8%정도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난해 출하기 가격이 좋아 경기 용인의 억제재배가 늘어난 반면, 경기 평택, 충남 공주에서는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가지, 토마토로의 작목전환으로 10월 출하예정면적이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11월 중순 이후 출하면적이 많은 것은 유가 상승으로 남부 축성재배 일부 농가가 정식시기를 조금 앞당겼던 면적이 출하되기 때문임.
- 10월 중순 이후에 출하될 백다다기 단수는 지난해보다 조금 낮거나 비슷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강원 춘천에서 연작장해가 있는데다 최근의 추위로 과비대 속도가 늦어지고, 기형과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경기 평택, 충남 천안 등 억제재배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에 따른 저온관리로 11월 백다다기 단수가 낮을 것으로 추정됨.
- 10~11월 백다다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조금 많고 대체재인 취청 공급량도 지난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백다다기 도매가격은 지난해(상품 100개당 10월 2만 5,300원, 11월 3만 2,1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0월 백다다기 축성재배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5~19% 감소하고 11월에는 4%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유가 상승으로 경북 상주에서 겨울재배를 기피하여 정식시기를 지난해보다 10~30일 앞당기고, 전남 고흥에서 방울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하기 때

문임. 하지만 정식이 9월로 당겨진 면적을 고려할 때 축성 정식면 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추정됨.

오이(백다다기)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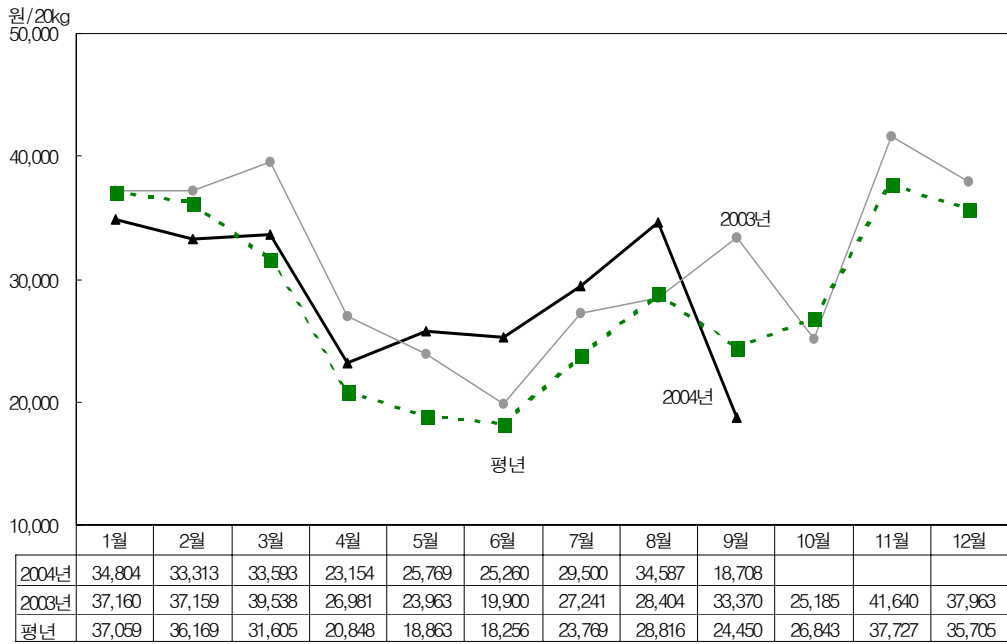
4.2. 오이(취 청)

- 3/4분기 취청오이 도매가격은 20kg 상품기준으로 7월에 2만 9,500 원으로 지난해보다 8%, 평년보다 24% 높았고, 8월에 3만 4,600 원으로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20% 높았음. 9월에는 1만 8,700 원으로 지난해보다 44%, 평년보다 24% 낮았음.
- 7월 취청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약간 많았지만 취청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대체재인 백다다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었고, 기온이 높아 냉면에 이용되는 취청오이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

문임. 8월 취청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전남 주산지에서 금년 여름의 고온과 태풍 ‘메기’ 피해로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6% 감소한데다 기온이 높아 냉면에 이용되는 취청오이에 대한 수요가 지난해와 평년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9월 취청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적었지만 가격이 낮았던 것은 소비 대체재인 백다다기 공급량 증가로 백다다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10월 취청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10~19% 감소하고, 11월은 13%정도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주산지인 전남 구례, 순천에서 농가들이 난방비 부담으로 정식시기를 10~30일정도 앞당기기 때문임. 그러나 취청은 정식이 9월로 당겨진 면적을 고려하면 축성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나타났음.

오이(취청)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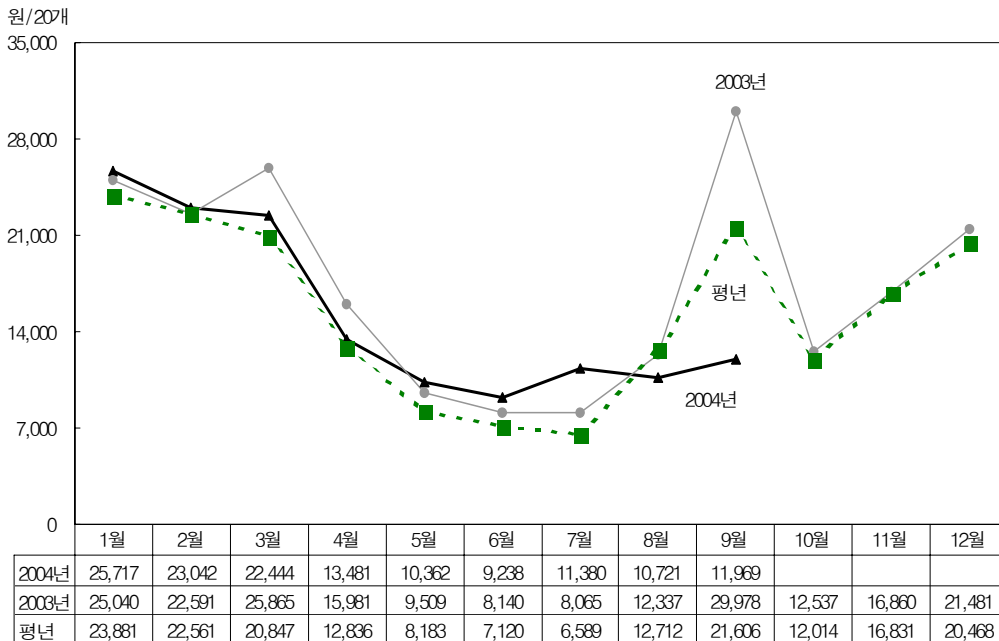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3. 호박(애호박)

- 애호박 3/4분기 도매가격은 상품 20개당 7월에 1만 1,4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평년보다 40% 높았고, 8월에 1만 700원으로 지난해보다 13%, 평년보다 16% 낮았음. 9월에는 1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0%, 평년보다 45% 낮았음.
- 애호박 7월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았던 것은 7월 집중호우와 고온의 영향으로 애호박의 생육여건이 불량해지면서 품위가 저하되었으며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4% 감소하였기 때문임. 8월 애호박 공급량은 지난해와 비슷하였는데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던 것은 8월 소비지 고온의 영향으로 찌게류, 전에 이용되는 애호박 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9월 애호박 가격이 낮았던 것은 애호박 주산지인 강원 화천, 춘천의 작황이 좋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86% 증가하였기 때문임.
- 10월 애호박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4% 많고, 11월에는 16%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10~11월 애호박 면적이 많은 것은 전남 나주 지역에서 태풍 ‘메기’ 피해를 입은 고추재배 농가가 재배가 비교적 용이한 애호박으로 재배작목을 전환하였기 때문임. 호박이 저온에 상대적으로 강한데다 고유가로 겨울철 애호박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농가가 많아 남부지방 애호박 축성재배 정식의향면적이 증가하였음. 한편, 경기 평택, 충북 청원에서는 일부농가가 최근 가격이 좋은 토마토, 가지 등으로 작목을 전환하였음.
- 10월에 수확될 애호박 예상단수는 강원 주산지 애호박의 생육상태가 좋아 지난해보다 9%정도 많고, 11월에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음. 10월 애호박 출하량은 단수의 증가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4%정도 많겠으며, 11월은 출하면적의 증가로 지난해보다 13% 많고, 평년보다 18% 많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0~11월 애호박 공급량이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가격은 작년(상품 20개당 10월 1만 2,500원, 11월 1만 6,900원)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0월 애호박 축성재배 정식면적은 작년보다 15% 증가하고, 11월은 9%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주출하기인 금년 1~4월 애호박은 공급량이 평년보다 15% 많았는데도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정식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음.

호박(애호박)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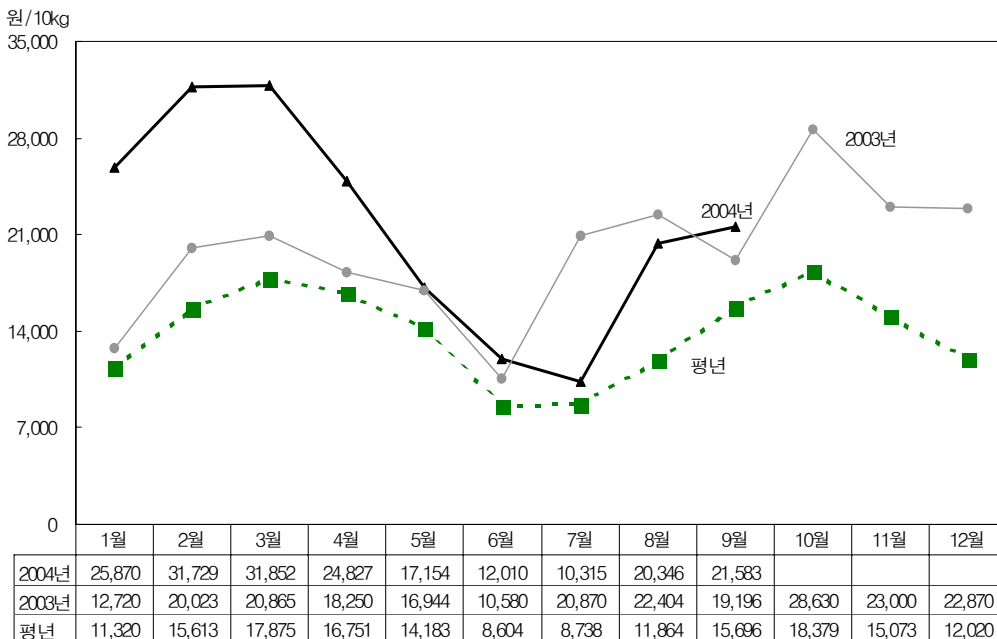
4.4. 일반토마토

- 3/4분기 일반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10kg 상자당 7월 1만 3,000원, 8월 2만 2,400원, 9월 2만 1,600원으로 7월, 8월에는 지난해보다 각각 51%, 9% 낮았고, 9월은 12% 높았음. 토마토 가격은 8월

중순에서 9월 상순까지 특히 높았는데, 이는 8월 중순의 매스컴 방영으로 수요가 증가한 데다 8월 말과 9월 초에 일시적으로 공급량이 적었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10~11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21~33% 늘어날 것으로 조사됨. 이는 지난해 토마토 가격이 좋아 강원 영월, 춘천 등지에서 일부 수박, 오이, 호박 농가가 일반토마토로 전환한 면적이 있고, 경기, 충남, 전남, 전북 등지에서도 재배면적이 늘었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10~11월 단수는 지난해보다도 5%정도 적을 것으로 나타남. 이는 8월의 고온과 집중 호우로 전남(광주기준 작년 대비 최고기온 2℃상승, 강수량 39% 증가)등지에서 생육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임.

일반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9~200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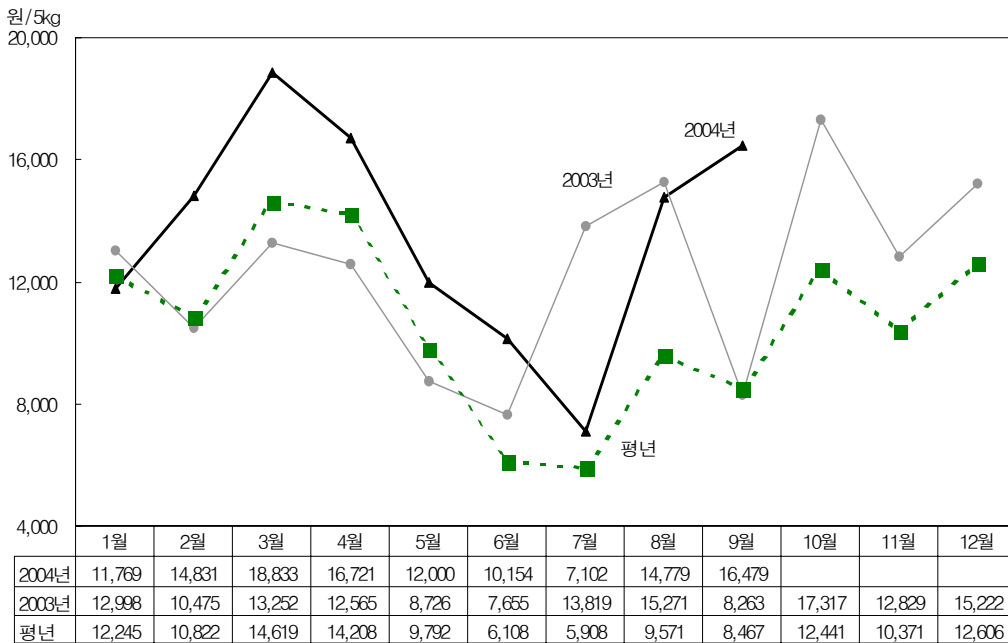
- 일반토마토 10, 11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23%, 18%(평년 대비 120%, 201%) 많을 것으로 전망됨.
- 일반토마토 9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경북 안동 등지에서 고추, 딸기에서 일반토마토로 작목전환한 농가가 많고, 전남 나주, 담양, 강진, 고흥 등지에서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일반토마토 10~11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5%정도 적을 것으로 조사됨. 유류가격이 올라 전남 담양, 보성, 충남 공주 등지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기 때문임.

4.5. 방울토마토

- 3/4분기 방울토마토 도매가격은 상품 5kg 상자당 7월 7,100원, 8월 1만 4,800원, 9월 1만 6,500원으로 7월과 8월에 지난해보다 49%, 3% 낮았고, 9월에 99% 높았음. 8월 하순에서 9월 중순까지 방울토마토 가격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았던 것은, 전남, 충남, 강원 등지에서 고온의 영향으로 방울토마토와 일반토마토의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적었으며, 8월 중순 마스크 품종으로 수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10~11월 출하면적은 지난해보다 21~24%정도 많을 것으로 조사됨. 이는 방울토마토 가격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여 전북 익산 지역은 수박에서 방울토마토로 품목 전환한 농가가 많고, 경북 구미, 충남 부여 등지에서는 신규면적이 많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10~11월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출하지인 전남 등지에서 8월의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 상황이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방울토마토 10~11월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7% 많을 것으로 전망됨. 이는 평년에 비해 10월이 42%, 11월은 29% 많은 양임.
- 방울토마토 9월 정식면적은 지난해보다 45%정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이는 충남 부여, 전남 담양, 강진, 고흥 등지에서 가격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여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 방울토마토 10월, 11월 정식의향면적은 지난해보다 각각 4%, 19% 정도 적을 것으로 조사됨. 정식면적이 적은 것은, 유류가격 상승으로 전남 담양, 충남 논산 등지에서 정식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었고, 전남 보성 지역은 노동력부족으로 일부농가가 감자로 작목 전환하였기 때문임. 방울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이 지난달 보다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월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방울토마토 도매가격 (상품)



주: 일별 가격은 5일 이동평균치임. 평년 가격은 1999~2003년의 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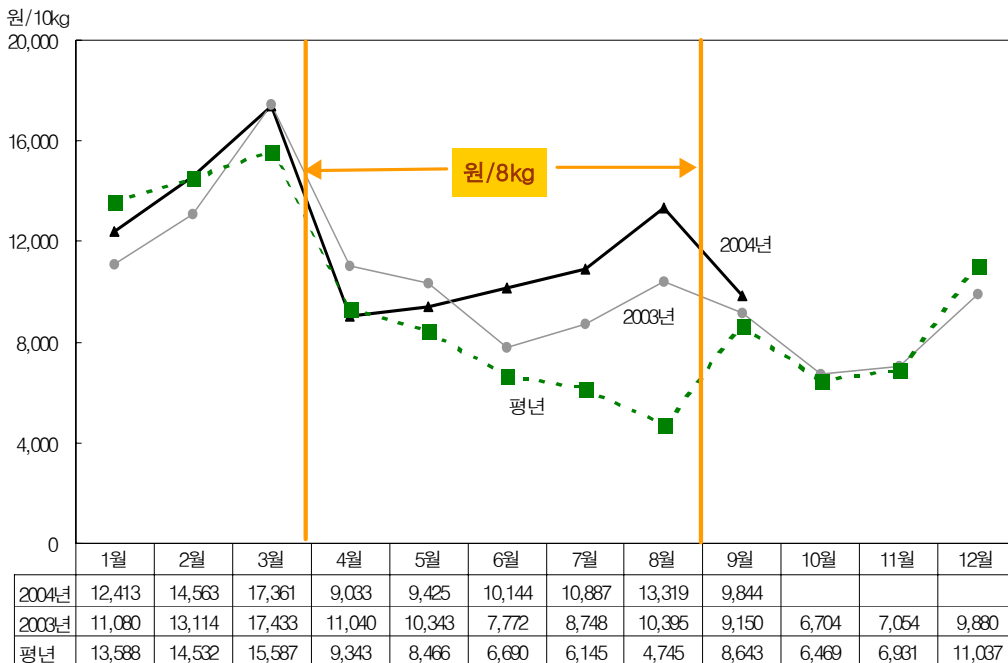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6. 수박

- 3/4분기의 수박 도매가격은 상품 8kg 개당 7월 1만 900원, 8월 1만 300원으로 7월에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4%, 77% 높았고, 8월에는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28%, 181% 높았다. 9월에는 상품 10kg 상자당 9,800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각각 8%, 14% 높았음.
- 3/4분기 수박 가격이 작년과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노지수박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 장마철에 계속된 비로 노지수박재배지역에 습해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작년과 평년보다 각각 19%, 32% 적었으며, 소비지의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수박의 품질이 좋아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수박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4% 정도 적은 2만 2,300ha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하우스수박의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 적고, 노지수박 재배면적은 16% 적은 수준임.
- 하우스수박 재배면적은 충청지방이 3% 증가, 영남지방은 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전북 고창, 충북 음성 지역의 일부 노지재배가 하우스재배로 전환되었고, 충북 진천, 청원지역은 벼 대신 수박 재배가 늘었음. 한편, 경남 진주, 경북 고령지역의 하우스수박면적 중 일부는 노동력이 적게 드는 멜론 등으로 전환되었음.
- 노지수박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충청지방이 14%, 호남지방이 16%, 영남지방 11% 등으로 전국에서 일제히 감소하였음. 전북 고창, 충북 음성지역에서는 노지재배에서 하우스재배로 변경하였고, 경북 봉화에서는 지난 2~3년간 비파해가 심해 일반토마토로 전환한 면적이 많았음.

- 금년 수박 출하량은 가락동 도매시장이 9% 감소하였고, 전국 도매시장은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수박의 월별 출하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연평균가격은 상품 기준 1kg당 1,3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높고, 평년보다 50%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수박 가격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매우 높음” 50%, 평년보다 “매우 높음” 48%로 나타나 수박재배농가가 느끼는 금년 가격수준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수박 도매가격 (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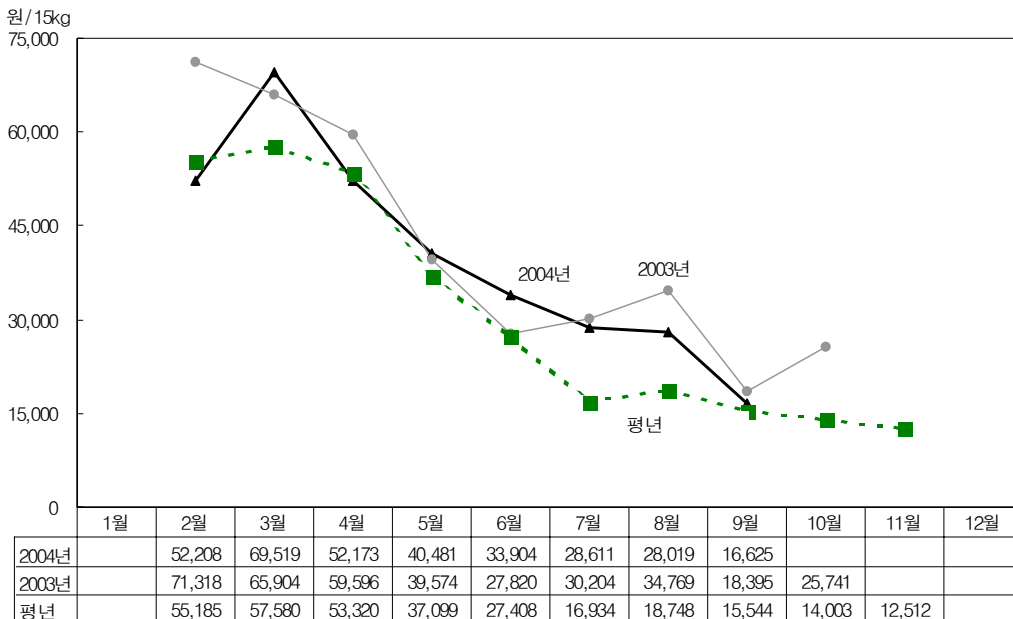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4~8월 가격은 8kg 개당 가격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4.7. 참외

- 3/4분기 참외 도매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7월 2만 8,700원, 8월 2만 8,000원, 9월 1만 6,600원으로 지난해보다 7월에는 5%, 8월에는 19%, 9월에는 10% 낮았으나, 평년보다는 각각 69%, 50%, 7% 높았음.
- 3/4분기 참외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았지만 평년보다 높았던 것은 지난해 여름철 장마와 고온의 영향으로 성주지역의 작황이 좋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성주지역의 7~8월 일사량이 지난해보다 27% 정도 많고 작황도 좋아 3/4분기 참외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5% 많았고 평년보다는 29% 적었기 때문임.
- 금년 참외의 총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 정도 적은 7,500ha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최대 주산지인 경북 성주 지역은 최근 2~3년간의 참외 가격이 좋아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참외 도매가격 (상품)



주: 평년가격은 1999~2003년의 월별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 경남의 참외 재배면적은 함안, 김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멜론과 일반토마토로 작목이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37%나 감소하였고, 경북 지역의 참외 면적은 칠곡, 안동, 구미 지역에서 수박, 방울토마토, 일반토마토 등으로 작목이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2% 정도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일부 수박재배면적이 참외로 전환되어 지난해보다 3% 정도 증가함.
- 금년 참외의 출하량은 가락동 도매시장이 지난해보다 11% 증가하였고, 전국 도매시장은 37% 증가하였음. 주산지인 성주지역의 산지거래량도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금년 참외의 월별 출하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연평균가격은 상품 15kg 상자당 3만 8,100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5% 높고, 평년보다 22% 높은 수준임. 한편, 참외 가격 수준에 대한 농가조사결과, 참외재배농가가 느끼는 금년 가격수준은 지난해와 평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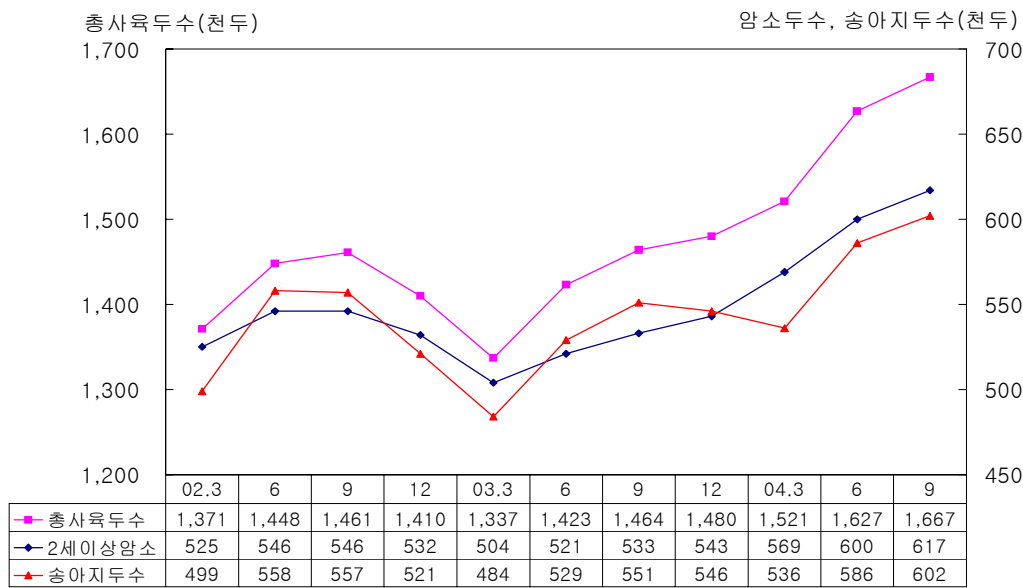
5. 축산¹⁰⁾

5.1. 한육우

- 2004년 9월 한육우 총 사육두수는 166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4만두(2.5%), 전년 동기에 비해 20만 3천두(13.9%) 증가하였음.
- 2004년 9월 한육우 2세 이상 암소는 61만 7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7천두(2.7%), 전년 동기에 비해 9만 1천두(16.3%) 증가하였음.

10) 이 자료는 농업관측센터 송우진(gnos@krei.re.kr), 김현중(kim1025@krei.re.kr), 이형우(ihw0906@krei.re.kr) 연구원이 작성하였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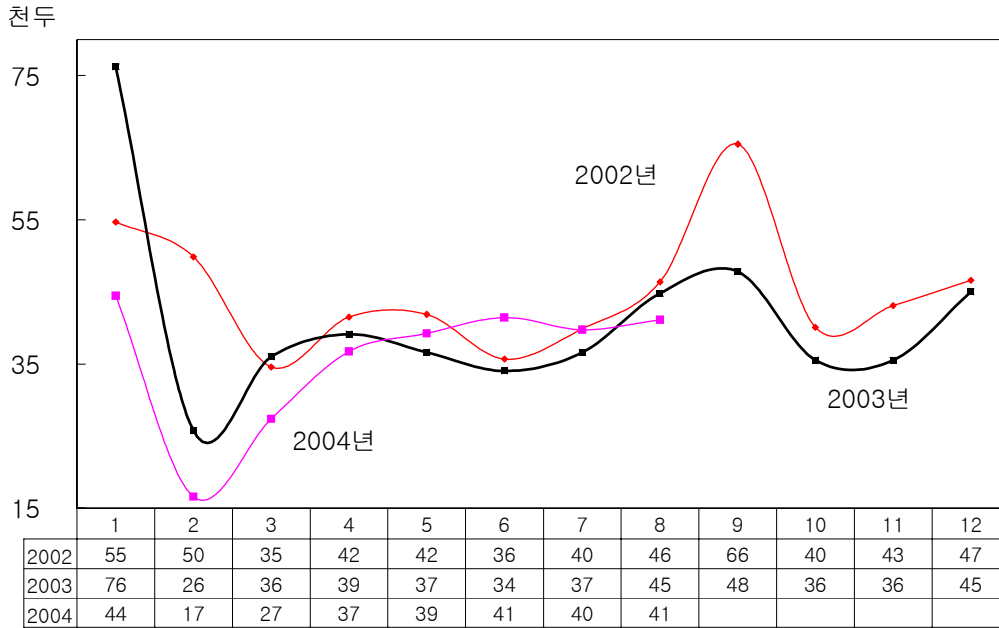
한육우 사육두수 변동



주: 가축통계는 2003년 3월부터는 신표본으로 변경되어, 과거 시계열 자료와 일부 단층이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2004년 9월 1세미만 송아지 두수는 60만 2천두로 3개월 전보다 1만 6천두(2.7%), 전년 동기에 비해 5만 1천두(9.3%) 증가하였음.
- 사육호수는 2004년 9월에 18만 9천호로 3개월 전, 1년 전과 비교하여 변동이 없음.
- 미국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위축이 완화되면서 5월 이후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년동월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8월에 도축두수가 감소한 것은 작년에 비해 추석이 늦어 추석대비 물량의 도축이 9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임. 2004년 1~8월 한육우 도축두수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12.9%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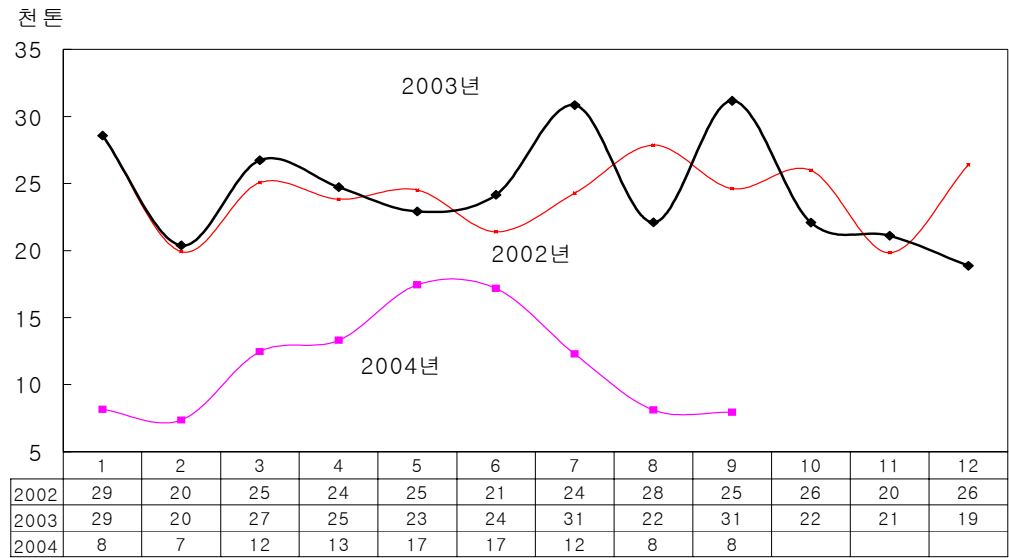
한육우 월별 도축현황



자료: 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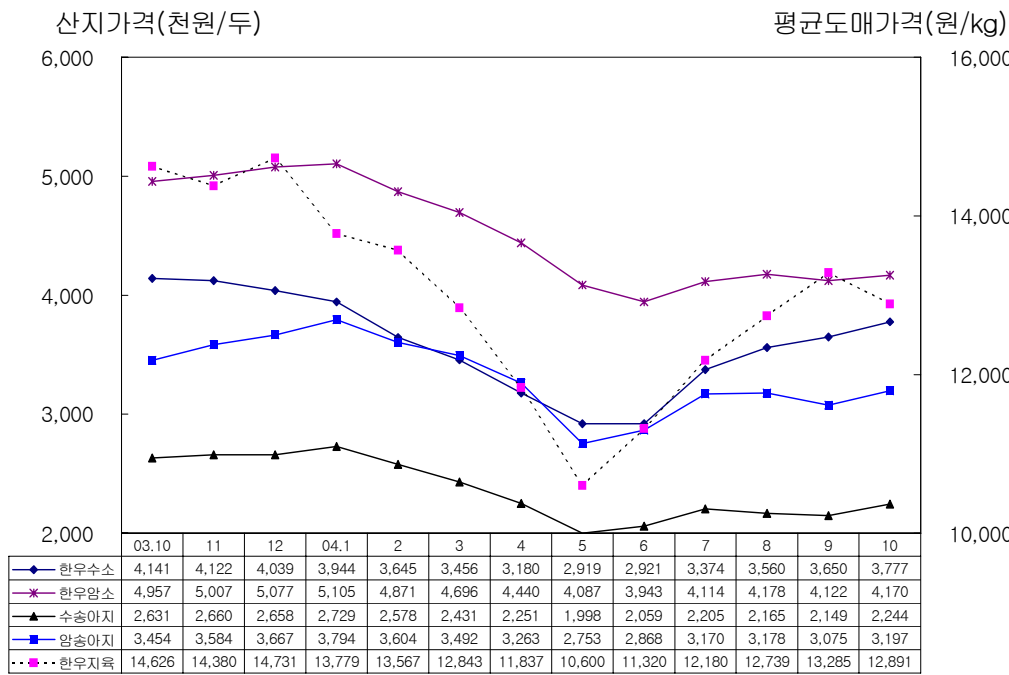
- 호주나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품질 차이로 인하여 미국산 쇠고기를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수입쇠고기 유통망이 붕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쇠고기 공급부족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취급하던 외식업체들의 폐업으로 인하여 쇠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다가서면서도 쇠고기 수입은 감소하였음.
- 2004년 1~9월 쇠고기 수입량은 10만 4천톤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55% 감소함. 국별 쇠고기 수입량 비중은 호주가 60.2%, 뉴질랜드 39.5%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부터 수입이 시작된 멕시코는 0.3%를 차지하고 있음.
- 미국은 일본과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 하고 있음. 일본이 ‘어린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면제방안을 승인하면 연내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쇠고기 월별 수입현황(검역기준)



자료: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한육우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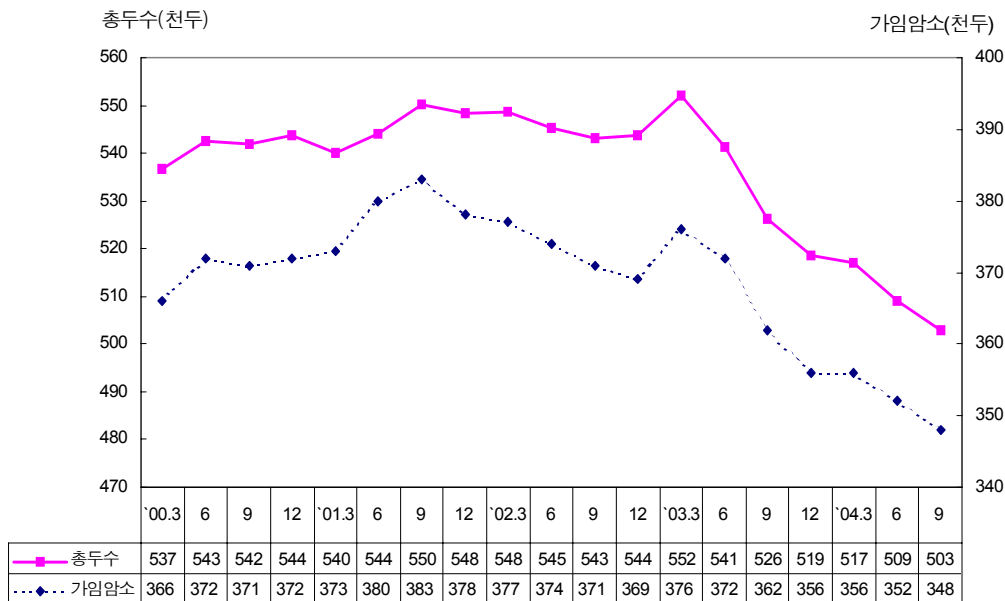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 한우 지육가격은 5월 10만 6천원/kg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고 6월 이후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소비기피 현상이 완화되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만 3300원 수준임.
- 한우 지육 가격의 상승과 함께 한우 수소 산지가격도 6월 이후 상승하고 있으나, 10월 초순 한우 수소 가격은 378만원으로 전년동월에 비해서는 8.8% 하락한 수준임.

5.2. 젓 소

- 2004년 9월 젓소 사육두수는 50만 3천두로 전년동기보다 2만 3천두(4.4%) 감소하였고, 가임암소 두수는 34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1만 4천두(3.9%) 감소하였음.
- 1세미만 두수는 9만 7천두로 전년동기보다 6천두(5.8%) 감소하였고, 1~2세 두수는 11만 6천두로 전년동기보다 6천두(4.9%), 2세 이상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 1천두(3.7%) 감소하였음. 2세 이상 두수 중, 경산우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만두(3.4%), 착유우 두수는 전년동기보다 4천두(1.6%) 감소하였음.
- 9월 젓소 사육호수는 1만호로 전년동기보다 800호(7.4%) 감소하였음.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호수는 전년동기보다 11.3%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사육호수는 전년과 비슷하였음.
- 9월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2만 4천두 감소하였고, 5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1천두 증가하였음. 호당사육두수는 50.5두로 전년동기보다 1.8두(3.7%) 증가하였음.

젓소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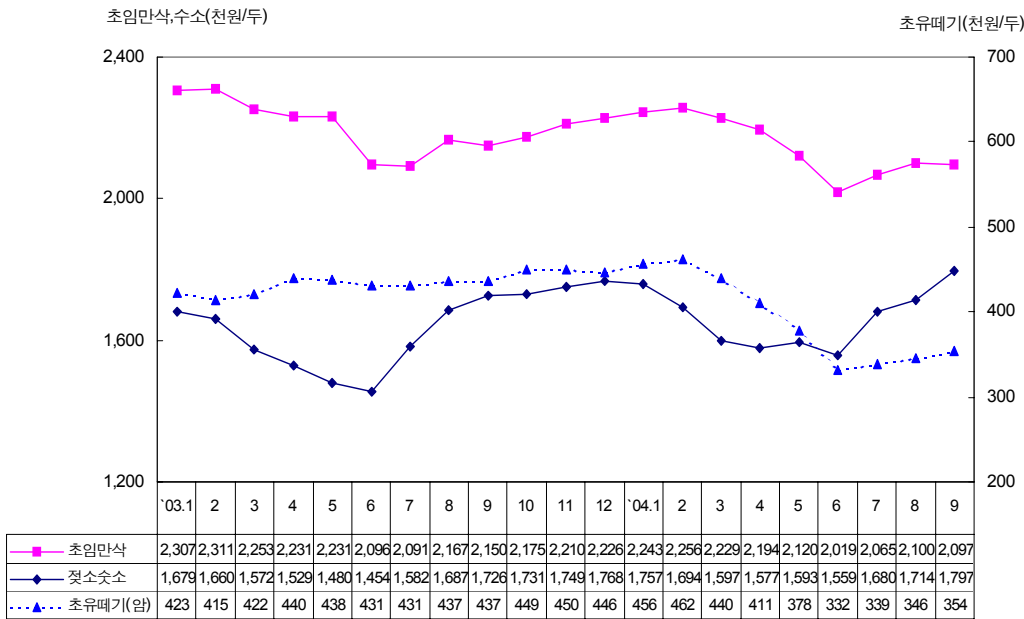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젓소 산지가격변동

- 초유떼기(암송아지): 원유생산쿼터제, 분뇨처리 문제 등으로 사육의향이 낮아져 2월 이후 하락하던 초유떼기(암) 산지가격은 원유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6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음. 9월 산지가격은 35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9% 하락하였음.
- 초임만삭우: 2004년 1월 이후 하락하던 초임만삭우 산지가격도 6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음. 9월 산지가격은 209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5% 하락하였음.
- 젓소수소: 작년 말 광우병 파동으로 하락하던 젓소수소 산지가격은 미국산 쇠고기의 대체수요로 인해 6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음. 9월 젓소수소 가격은 179만 7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4.1% 상승하였음.

젖소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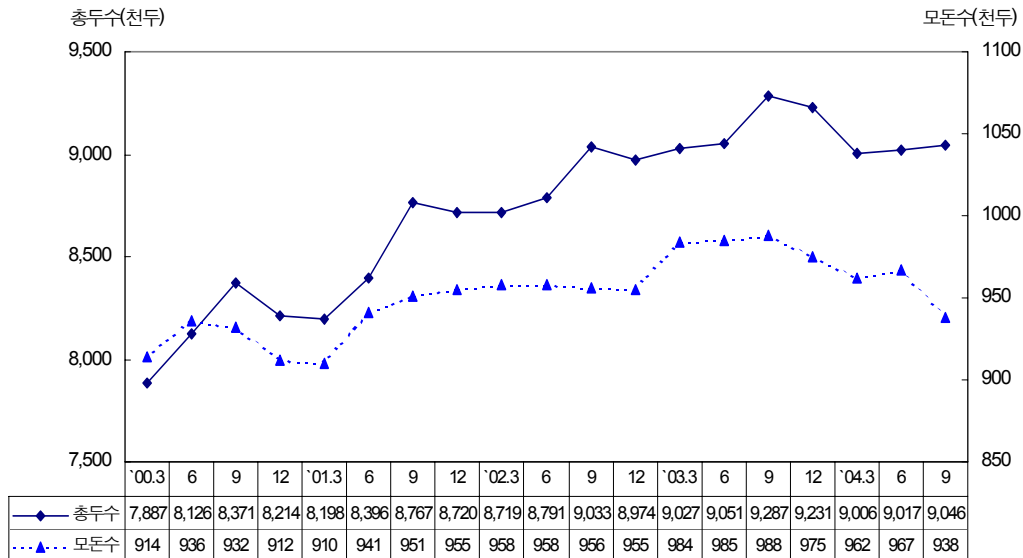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3. 돼 지

- 9월 사육두수는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모성 질병 피해,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보다 감소하였음. 사육두수는 904만 6천두로 전년동기보다 24만 1천두(2.6%) 감소하였고, 모돈수는 93만 8천두로 전년동기보다 5만두(5.1%) 감소하였음.
- 9월 돼지 사육호수는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생산비 상승, 분뇨처리 문제 등으로 사육의향이 낮아지면서 3개월 전보다는 330호(2.4%), 전년동기보다 2220호(14.4%) 감소한 1만 3250호였음.
- 1000두 미만 소규모 사육호수는 전년동기보다 2140호(17.2%) 감소하였고 1000두 이상 중·대규모 사육호수는 전년동기보다 80호(2.7%) 감소하였음.

돼지 사육마리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규모별 사육두수 보면, 1000두 미만 농가의 사육두수는 전년동기보다 30만두 감소하였고, 1000두 이상 전업농가의 사육두수는 5만 9천두 증가하였음. 1000두 이상 사육농가의 사육두수가 전체 사육두수 75.2%를 차지하였음. 호당 사육두수는 682.7두로 전년동기보다 82.3두(13.7%) 증가하였음.

○ 돼지 산지가격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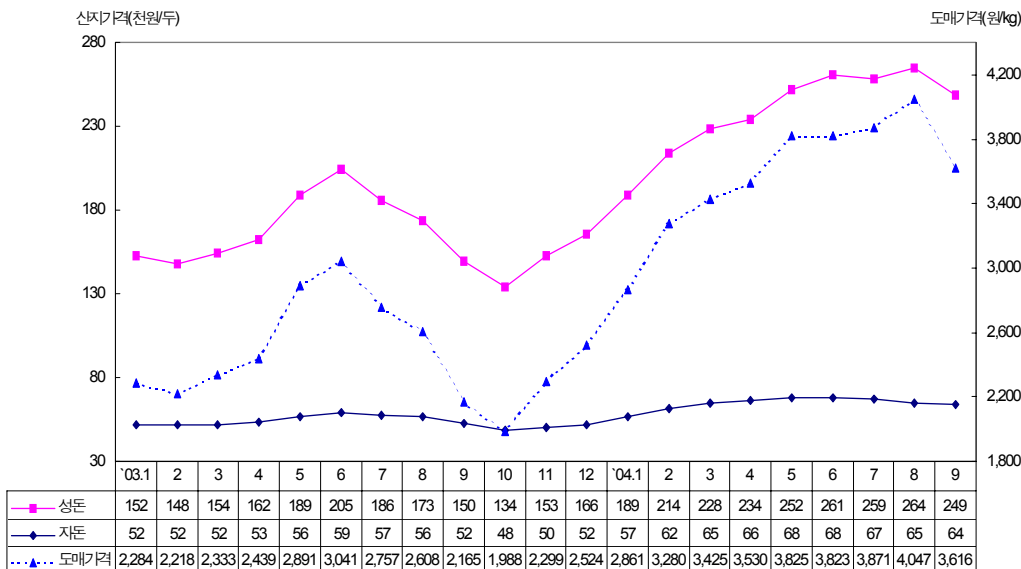
- 성돈(100kg) : 성돈 산지가격은 설사병과 소모성 질병 피해로 인한 출하두수 감소로 9월까지 높게 형성되었음. 그러나 9월 중순부터 무더위로 성장이 지체되었던 비육돈이 출하되면서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9월 평균 산지가격은 24만 9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66.3% 상승하였음.
- 자돈: 성돈 산지가격과 마찬가지로 올해 자돈 가격도 높게 형성되었음. 9월 자돈 가격은 6만 4천원으로 전년동월보다 22.1% 상승하였음.

- 평균경락가격(비육돈): 성돈 산지가격의 변동에 따라 경락가격도 9월 이후 하락하는 추세임. 9월 경락가격은 kg당 3616원으로 전년동월보다 67% 상승하였지만 전월보다 10.6% 하락하였음.

○ 돼지고기 수입

- 1~9월 돼지고기 수입량은(검역기준) 국내 산지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68% 증가한 8만 852톤이었음. 부위별 수입량을 보면, 3/4분기에는 목심과 갈비의 수입량이 감소하면서 삼겹살의 수입 비중이 증가하였음(삼겹살 수입비중 : 6월 52.9%, 7월 71.3%, 8월 69.2%, 9월 71.2%).

돼지 산지가격 및 도매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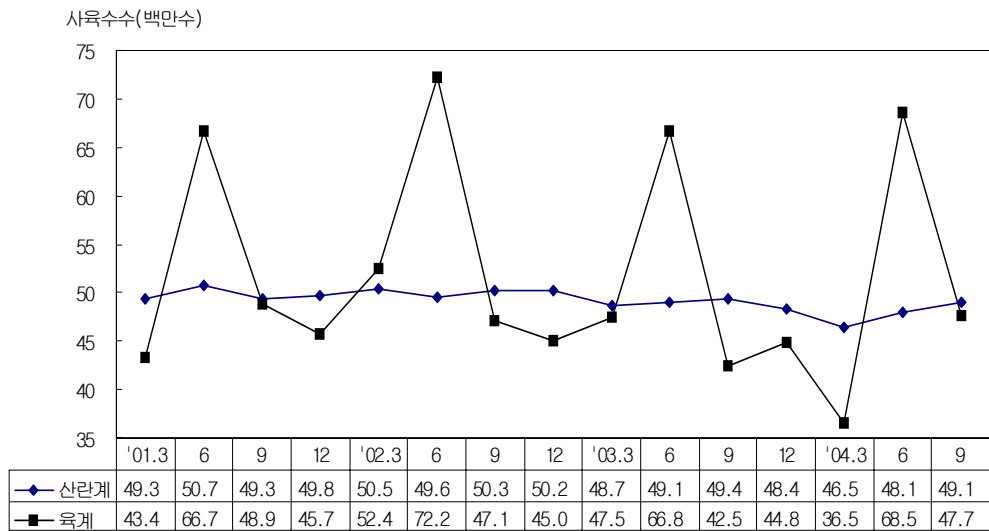
자료: 농협중앙회, 축산물 가격정보.

5.4. 닭

- 계란 산지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농가들의 도태의향이 낮아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6월보다 증가함.

- 9월 산란계 사육수수는 4909만수로 3개월 전보다 2.2% 증가하였으나 전년동기보다는 0.6% 감소하였음. 9월 산란계 사육호수는 2075호로 3개월 전보다 2.0% 증가한 반면 2003년 9월보다 10.0% 감소하였음.
- 북경기 이후 닭고기 소비 감소로 입식의향이 낮아 9월 육계 사육수수는 6월보다 크게 감소함.
- 9월 육계 사육수수는 4771만수로 3개월 전보다 30.4% 감소한 반면 전년동기보다 12.4% 증가함. 9월 육계 사육호수는 1661호로 3개월 전보다 25.9%, 2003년 9월보다 3.5% 감소하였음.

산란계 및 육계 사육수수 변동



자료: 농림부, 가축통계.

○ 계란 산지가격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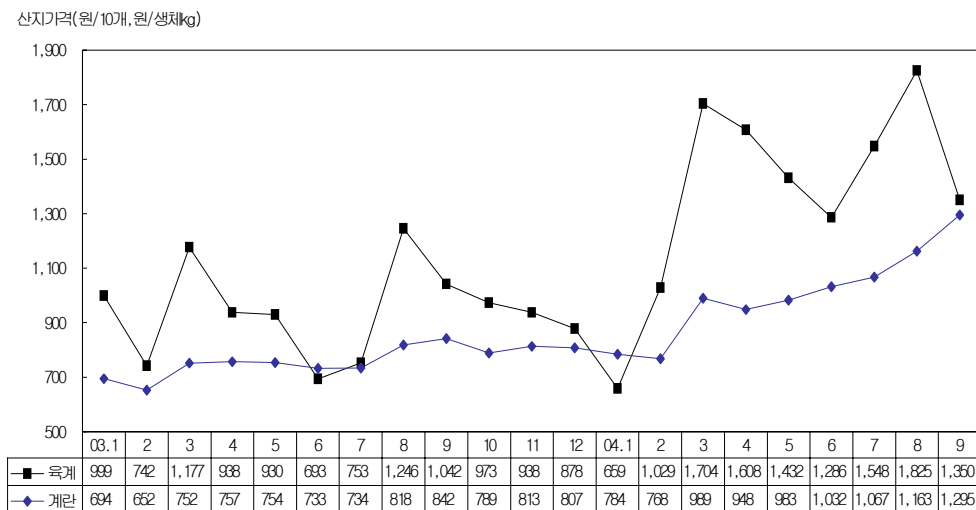
- 2/4분기에는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부활절 특수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32.0% 상승한 988원이었음. 3/4

분기에는 산란용 마리수의 생산성 저하로 계란 공급량이 전년보다 감소하고 추석 특수로 계란 산지가격은 전년동기보다 47.2% 상승한 1175원이었음.

○ 육계 산지가격 변동

- 2/4분기 육계 평균 가격은 닭고기 공급 감소로 전년동기보다 68.9% 상승한 1442원이었음. 3/4분기 닭고기 공급이 전년보다 감소하여 육계 평균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55.3% 상승한 1574원이었음.

양계산물의 산지가격 변동



주 : 계란 산지가격은 특란기준임.
 자료: 농협, 축산물 가격정보.

○ 종계 병아리 생산

- 2/4분기에 입식된 산란용 종계 병아리수는 5만 6천수로 전년동기보다 44.2% 감소하였음. 7~8월에는 11만 5천수로 전년동기보다 47.4% 증가하였음.

- 2/4분기에 입식된 육용 종계 병아리수는 80만 6천수로 전년동기보다 18.9% 감소하였음. 7~8월에는 82만 9천수로 전년동기보다 4.0% 감소하였음.

○ 닭고기 수입(통관기준)

- 2/4분기 닭고기 수입량은 5천톤으로 전년동기보다 77.6% 감소하였음. 7~8월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간(1만 4천톤)보다 크게 감소한 5천톤이었음.

Ⅵ. 특별주제

1.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2. OECD, 중장기 농산물 수급전망

국제유가 상승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¹¹⁾

1. 국제유가의 상승 동향과 요인

□ 국제원유가격 사상 최고치 갱신, 고유가 기조 지속

- 지난 8월 역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40달러(두바이유 현물 기준)를 돌파하였던 국제원유가격은 9월 들어 배럴당 34~35달러 수준으로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 수준 역시 OPEC 유가밴드(22~28달러)보다 7~13달러 높은 수준이고, 전년 동월보다 10달러나 높은 수준임.

□ 국제원유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은 원유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 2004년 1~2분기에 세계원유는 OPEC의 지속적인 생산쿼터 및 증산에 따라 초과공급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속해서 상승함. 유가상승은 산유국들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며, 이는 취약한 공급기반에 따른 공급부문 경직성과 더불어 가격 변동성을 보다 높인 요인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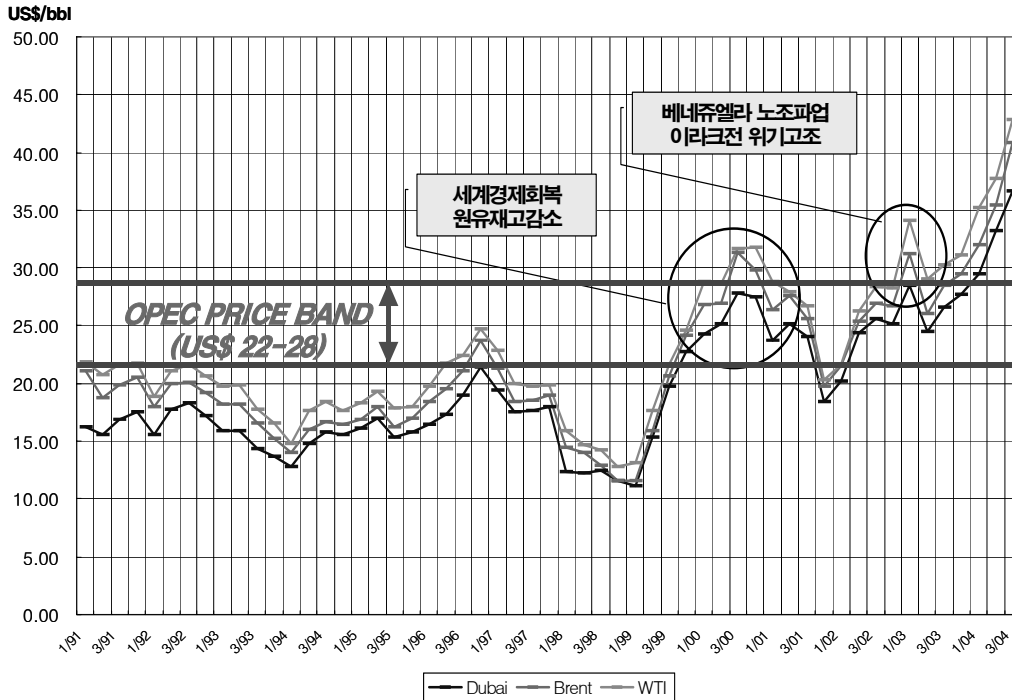
□ 원유시장 공급부문 경직성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가격 급등 가능성 커

- 고유가 상황에서 OPEC 산유국들의 지속적인 증산에 따른 비축량 확보의 어려움, 석유회사들의 비용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략적으로 적은 비축량 유지, OPEC의 생산여력 급감(2002년 7월 653만 배럴/일에서 2004년 7월 110만 배럴/일로 감소) 등은 공급부문 경직성

11) 이 자료는 'KREI 농정연구속보(제13권)'에서 다루었던 내용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이용선 연구위원(yslee@krei.re.kr), 김배성 전문연구원(bbskim@krei.re.kr), 정학균(hark8247@krei.re.kr) 전문연구원에게 연락하기 바람

을 높였고, 이는 시황에 따른 신속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됨. 또한, 공급불안 지속에 의한 각 국의 전략 비축량 증대는 이미 경직된 시장에서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임.

그림 1. 국제원유가격 분기별 동향 (현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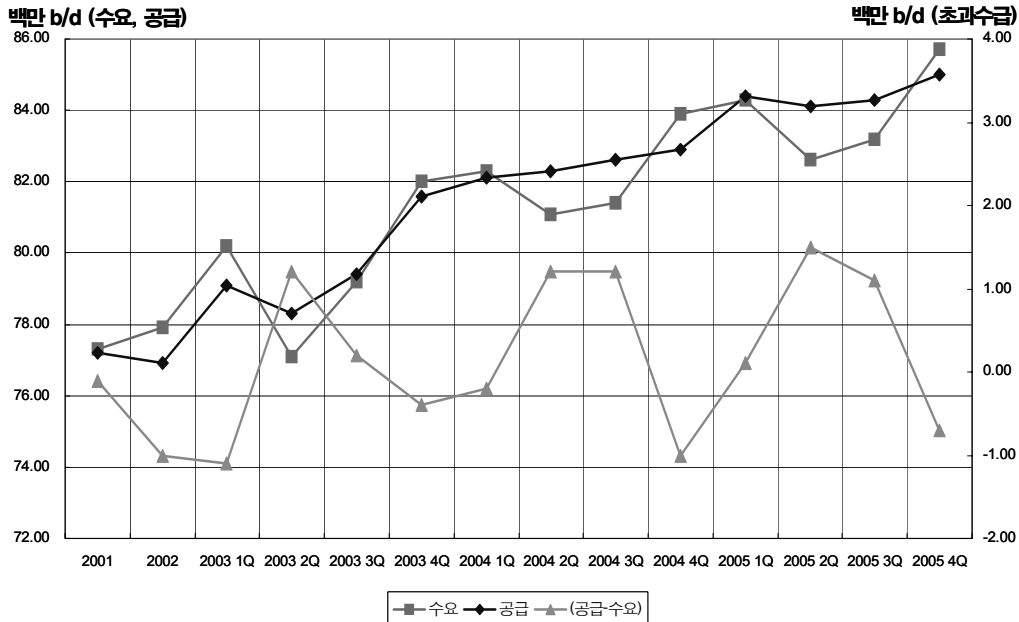


자료: 한국석유공사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원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는 향후 지속적인 유가 상승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
- 2004년 4/4분기 국제유가는 초과수요 발생에 의해 고유가 지속될 수 있으며, 2005년에도 공급불안 지속 시 고유가 상황 지속될 가능성 높아
- 고유가 상황에서 달러화 약세 지속에 따른 원유선물시장에서의 원유 수요 증가는 유가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것임. 다만, OECD 국가들의 원유 재고증가, 유가 상승에 따른 세계경기 둔화

가능성, 중국의 긴축정책에 따라 상승 압력은 다소 둔화될 수도 있을 것임.

그림 2. 세계 원유수급 전망, 2004-05



주: 2004년 2/4분기까지 자료는 IEA(2004. 8.) 추정치임. 2004년 3/4분기 이후 OPEC의 원유생산량이 2/4분기 수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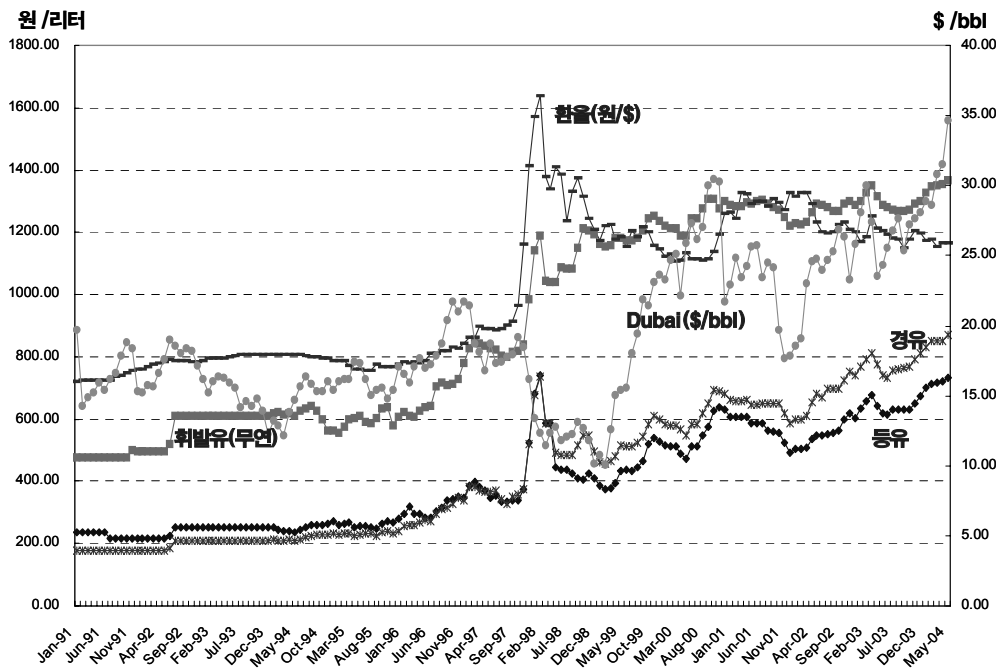
2. 유가 상승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2.1. 국제원유가격과 국내유가 관계 검토

□ 국제원유 고유가 기조에 따라 국내유가와 국제유가 상관도 보다 높아져

- 국내유가와 국제원유가격(Dubai) 및 환율과의 상관도를 측정한 결과,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환율 및 국제유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환율보다 국제원유가격과 보다 높은 상관도 보임.

그림 3. 국내유가 변동추이 (1991. 1.~2004. 5.)



2.2. 국제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¹²⁾

□ 유가상승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원유를 원료로 하는 중간투입재 가격 및 그 사용활동에 의한 영향과 유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에 의한 것

- 본고는 원유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계측하기 위해 KREI의 농업부문 시물레이션 모형인 KREI-ASMO모형을 이용하였고, 유가상승에 따른 영향계측을 위해 국제원유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은 3개로 구분함.

12) 본 계측결과는 유가상승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과 연도별 파급영향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결과(김배성, 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2004. 5.)와 차이가 있음.

표 1. 2004~05 국제원유가격에 대한 시나리오

구분	두바이유 가격(\$/bbl)		비고
	2004년	2005년	
시나리오 1	33.4	35.0	2004년 4/4분기 이후 35달러 수준 고유가 기조 지속
시나리오 2	32.4	30.0	2004년 4/4분기 이후 30달러 수준 유가 하락
시나리오 3	31.4	28.0	2004년 4/4분기 이후 28달러 OPEC 현 유가밴드로 수렴

주: 기준(baseline)은 2004~05년 지속해서 2003년 연평균 수준 26.8달러 유지를 가정.

- 2004년 4/4 분기이후에도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35달러 수준),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04년 3.9%, 2005년 3.7% 수준으로 하락, 소비자물가는 2004년 4.5%, 2005년 4.9%까지 상승할 전망

표 2. 시나리오별 주요 거시변수 전망과 가정

구분	유가 탄력성	baseline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2004	2005
국제원유가격		26.8	26.8	33.4	35.0	32.4	30.0	31.4	28.0
실질GDP 변화율	-0.05	(5.2)	(5.2)	-1.24 (3.90)	-1.54 (3.66)	-1.05 (4.09)	-0.60 (4.60)	-0.87 (4.29)	-0.23 (4.97)
소비자물가(%p)	0.06	(3.0)	(3.0)	1.49 (4.49)	1.85 (4.85)	1.26 (4.26)	0.72 (3.72)	1.04 (4.04)	0.28 (3.28)
환율	-	1170.41	1170.41	1170.41	1170.41	1170.41	1170.41	1170.41	1170.41

주 1. GDP와 소비자물가란의 ()는 각각 전년대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의미함.

2. 환율은 시장평균 환율로 2003. 9.~2004. 8.월 평균 환율임.

3. 유가탄력성은 Jones and Leiby(1996), 김성현 외(1999) 등을 참조하여 설정함.¹³⁾

13). Jones, D. W. and P. N. Leiby, "The Macroeconomic Impacts of Oil Price Shock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Issues."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김성현 외(1999)에서 재인용.

김성현, 김영덕, 조정엽, "국제 유가 상승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연산균형 모형에 의한 분석" 국제통상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국제통상학회, 1999.

- 고유가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기준전망치 대비 2005년 실질농업노임은 0.22%p 하락, 농기계가격은 1.41%p 상승, 경상투입재가격은 0.71%p 상승할 전망

표 3. 유가 시나리오별 농업투입요소가격의 기준대비 변화율(%p)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국제원유가격(Dubai)	35	30	28
경 상 재	0.71	0.43	0.29
농 기 계	1.41	0.86	0.57
농업노임(실질)	-0.22	-0.20	-0.17

주: 각 변화율은 기준(2004~05년 유가가 2003년 연평균인 26.8달러 수준유지)대비임.
자료: KREI-ASMO 2004

표 4. 유가 시나리오별 품목별 농산물가격의 기준대비 변화율(%p)

구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국제원유가격 (Dubai)	35	30	28
쌀(농판)	9.93	5.85	3.84
고추(농판)	8.10	4.78	3.15
마늘(농판)	9.57	5.50	3.53
양파(농판)	8.36	4.83	3.12
과실류(농판)	8.96	5.26	3.44
쇠고기(소비자)	2.58	1.62	1.10
돼지고기(소비자)	5.30	3.15	2.08
닭고기(소비자)	2.89	1.65	1.05
농산물판매가격(축산물제외)	8.75	5.15	3.38
축산물판매가격	2.53	1.54	1.03

자료: KREI-ASMO 2004

- 4/4분기 이후 고유가 상황 지속 시, 농산물판매가격은 기준전망치 대비 2005년 8.75%p 상승, 축산물판매가격은 2005년 2.53%p 상승할 전망

- 금년 4/4분기 이후에도 35달러 수준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실질농업총소득은 2005년에 기준전망치 대비 5.72%까지 감소,
특히 축산업 소득은 12.9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5. 유가 시나리오별 주요 품목별 실질농업소득의 기준대비 변화율(%)

구 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국제원유가격 (Dubai)	35	30	28
쌀	-1.18	-0.44	-0.11
채소류	-1.81	-0.79	-0.36
과실류	-7.01	-3.20	-1.60
축산물류	-12.92	-6.07	-3.03
농업총소득	-5.72	-2.72	-1.38

주: 1. 변화율은 기준(2004~05년 유가가 2003년 평균인 26.8달러 수준 유지) 대비 증감률.

2. 채소류는 시설채소를 제외한 노지채소만을 포함함

자료: KREI-ASMO 2004.

3. 유가 상승의 시설채소 생산에 대한 영향

3.1. 경영비용에 미치는 영향

- 4/4분기 국제유가가 35\$(두바이유 기준)수준 유지시, 면세유가는
지난해보다 20%정도 높고 시설재배 경영비는 4~7% 증가
할 전망

표 6. 경유소비자가격과 면세유가격의 추이, 1998~2004

단위: 원/리터

	1998	2000	2001	2002		2003		2004		
				연간	4/4	연간	4/4	1/4	2/4	3/4
경유소비자가격	579	611	643	696	767	811	838	879	909	972
면세경유가격	386	377	377	365	403	420	423	455	471	503

주: 2004년 3/4분기는 추정치임.

자료: 농림부, 농협중앙회.

- 금년 4/4분기 국제 유가가 두바이(Dubai)유 기준으로 작년보다 25% 정도 높은 35달러 수준이 될 경우, 국내 면세유가는 작년보다 20% 높은 리터당 500원 내외의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은 가온을 필요로 하는 시설재배작물이며, 특히 대체로 겨울철 가온을 함으로써 재배가 가능한 것임.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는 품목이나 재배방법에 따라 달라짐. 예를 들면 시설고추, 시설오이(촉성), 시설토마토(촉성), 시설방울토마토의 경우, 유류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으로서, 쌀의 1.1%에 비해 유류비가 월등히 많이 소요됨.¹⁴⁾ 시설가지, 시설오이(반촉성), 시설토마토(반촉성), 시설호박 등도 유류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작물로 유류비 비중이 17~28% 수준임.
- 유가가 10% 상승함에 따라 시설고추, 시설오이, 시설토마토 등의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경영비는 1.7~3.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금년 겨울 유가가 지난해 겨울에 비해 20% 높다면 이들 작물의 경영비는 3.4~7.1% 증가할 것이며, 만일 유가가 지난해보다 45% 높다면 경영비는 7.5~16.0% 증가할 것임.

표 7. 유가 상승 수준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단위: %

작 목 구 분	경영비에 대한 유류비 비중	유가상승에 따른 경영비 증가율		
		10%	20%	45%
시설고추	35.6	3.6	7.1	16.0
시설오이(촉성)	32.2	3.2	6.4	14.5
시설토마토(촉성)	31.9	3.2	6.4	14.4
시설방울토마토	30.5	3.1	6.1	13.7
시설가지	28.3	2.8	5.7	12.7
시설오이(반촉성)	24.8	2.5	5.0	11.2
시설토마토(반촉성)	17.6	1.8	3.5	7.9
시설호박	16.8	1.7	3.4	7.5

자료: 농촌진흥청, 2001년 표준소득자료(유류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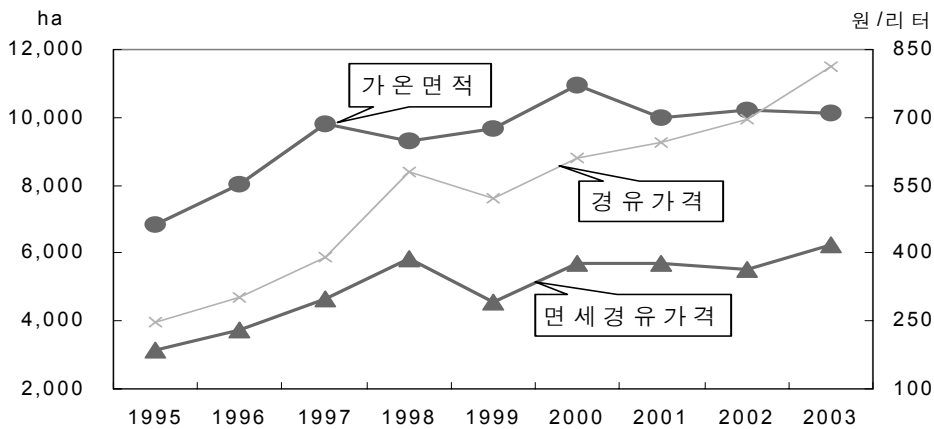
14)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유류비 비중은 유가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음. 따라서 여기서는 2002년에 비해 유가가 높았던 2001년 자료를 기준으로 함.

3.2. 재배면적에 미치는 영향

□ 가온시설 전체 면적은 변화가 적고, 작물 간 재배면적 이동이 클 듯

- 시설채소의 가온재배면적은 1990년대에 5배 규모로 크게 증가함.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경유소비자가격에 포함되는 세율이 증가하면서 면세유 가격은 소비자가격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가온재배시설면적은 감소하지 않았음. 2002년 후반기 이후 면세유가도 소비자가격과 함께 상승하였으나 시설재배면적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 상태가 지속됨.

그림 4. 면세유 가격과 가온면적 동향



자료: 농림부, 채소생산실적, 각 연도.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월보, 각 연도.

- 가온하우스시설은 일단 설치하면 다시 원상태로 복원하기 어려운 투자의 불가역성(不可逆性)을 지니므로, 같은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타 작목으로 전작을 선호하게 됨. 이번 조사에서도 유가 상승 시, 오이 등 고온성작물의 재배면적은 감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전년 가격이 높았던 일반(완숙)토마토나 유류비가 덜 드는 호박 등의 재배면적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시설오이 재배면적은 유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

축성재배를 주로 하는 전라남도의 시설오이 재배면적 반응함수를 추정
결과, 정식기(전년 9~10월)의 유가와 주출하기(전년 3~4월) 오이 판매
가격이 유의한 영향을 미침. 유가에 대한 오이 시설재배면적의 탄력성은
-0.384, 오이 가격에 대한 재배면적의 탄력성은 0.423으로 나타남. 즉 유
가가 10% 상승할 때 오이 시설재배면적은 3.84% 감소함을 의미함.

□ 유가 상승으로 겨울재배 회피 경향

- 유가가 올라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의 정식이 9월 이전으로 앞당겨지면서 10~11월은 감소하며, 일부는 12월 이후의 반축성 재배로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됨. 유가 상승률이 지난해대비 20% 수준일 경우에는 총재배면적 감소 폭은 크지 않겠음. 그러나 유가가 45% 정도로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재배면적은 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8. 9~11월 주요 과채 정식의향면적의 작년 대비 증감률

단위: %

면세유 가격	품 목	9월	10월	11월	합계
작년 대비 20% 상승시 (드럼당 10만원)	일반토마토	91.7	-5.0	-12.0	0.6
	방울토마토	29.0	-20.3	-22.1	-9.6
	백다다기오이	-0.2	-13.7	-0.8	-6.7
	취청오이	35.3	-17.0	-8.8	-0.9
	애 호 박	8.2	9.3	-7.1	9.1
작년 대비 45% 상승시 (드럼당 12만원)	일반토마토	70.2	-16.1	-17.6	-5.3
	방울토마토	21.7	-20.5	-23.1	-13.6
	백다다기오이	-11.1	-17.8	-24.5	-16.3
	취청오이	27.3	-23.3	-14.4	-7.3
	애 호 박	1.3	6.5	-10.1	4.1

자료: 농업관측정보센터, 8월 31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3.3. 공급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 겨울철 오이·토마토 공급량은 작년대비 6~12% 감소하고, 가격은 6~8% 상승할 전망

- 오이는 12~2월과 3~4월의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각각 12.3%, 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한편 재배기간 중 유류 사용량이 적은 11월 공급량은 지난해대비 12.1% 증가하겠음. 오이 가격은 공급량이 증가하는 11월은 지난해보다 12% 하락하겠으며, 공급량이 적은 12~2월에는 6.0% 상승할 듯.
- 방울토마토는 11~12월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17.0% 증가하고, 1~2월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방울토마토의 가격은 11월에는 공급량 증가로 지난해 대비 -1.3%~7.6%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1~2월 가격은 공급량 부족으로 지난해보다 2.8%~12.0%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9. 오이·토마토 공급량, 가격의 작년대비 변화율
(면세유가 20% 상승 시)

단위: %

		11월	12~2월	3~4월
오 이	공급량 증감률	12.1	-12.3	-4.3
	가격 등락률	-12.0	6.0	비 슷
방울토마토		11~12월	1~2월	3~4월
	공급량 증감률	17.0	-5.9	0.7
	가격 등락률	-13.1~7.6	2.8~12.0	-0.3~5.4

주: 방울토마토 가격 상승률의 최댓값은 작년 하반기 이후의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의 추정치임.

3.4.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오이·토마토의 겨울철 농업소득은 4~12% 감소할 전망

- 유가가 지난해보다 20% 높다고 가정하면, 오이와 방울토마토 재배를 위한 경영비는 지난해보다 각각 6.6%, 6.1% 증가할 것임.
- 면세유가가 20% 상승하면, 오이 재배의 조수입은 지난해보다 감소하고 경영비도 증가하여 농업소득은 지난해보다 5.9~1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겨울철 소득은 11.8%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어 유가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됨.
- 방울토마토는 공급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가격 신축성)이 적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배농가의 조수입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임. 조수입은 증가하겠지만 경영비도 유가 상승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농가 소득은 11~12월을 제외하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1~2월 농가 소득은 지난해보다 0~8%(평균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표 10. 오이·토마토의 작년대비 농업소득 증감률 전망
(면세유가 20% 상승 시)

단위: %

오 이		11월	12~2월	3~4월
	소득 증감률	-5.9	-11.8	-7.5
방울토마토		11~12월	1~2월	3~4월
	소득 증감률	-3.0~21.3	-7.9~0.8	-4.2~1.5

주: 품목별 소득률은 2001년 수준과 같다고 가정함.

4. 시사점

- 4/4분기 이후 국제유가는 초과수요와 공급불안으로 35달러(두바이 유 기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기준 시나리오인 2003년 유가수준(26.8달러)의 경우에 비해, 2005년 농산물 가격은 8.7%p 상승하고, 축산물 가격은 2.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유가 상승으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2005년 실질농업총소득은 기준 대비 5.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4/4분기 국제유가가 35달러 수준일 경우, 시설재배농가의 경영비는 작년대비 4~7% 증가하겠음. 유가 상승으로 겨울철 대표적 시설채소인 오이·토마토의 공급량은 작년대비 6~12% 감소하고, 가격은 6~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시설채소 농가의 경영비는 4~7% 증가하는 데다 조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채소 농가의 소득은 작년대비 4~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1) 고유가 기조가 지속된다면 농업에 누적적으로 미치는 파급 영향은 클 것이므로, 국제유가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2) 시설채소 등 유가의 영향이 큰 품목·시기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관측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여야 함.
 - 3)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배작물, 작형, 지역에 따른 경제적 에너지의 선택이나 에너지절감시설의 도입·관리에 대한 지도·보급 활동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OECD, 중장기 농산물 수급전망¹⁵⁾

- OECD는 2004년 7월 ‘OECD 농업전망 2004~2013’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EU 확대와 2003년 공동농업정책 개혁, 그리고 2002 미국 농업법 개정 등 세계 주요정책 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시장의 중장기 파급영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파급영향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요약

- OECD 회원국과 비 회원국의 소득 증가, 인구 성장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에 기인하여 전세계 1인당 소득 및 소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비 회원국 소비는 버터, 치즈 전지분유 등 낙농제품과 축산물을 중심으로 OECD 회원국 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지역은 높은 소득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금육, 치즈, 전지분유 등 축산물과 유제품을 중심으로 소비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기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비 회원국의 경우 생산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가축 생산활동의 증가로 OECD 지역 밖에서 사료(feedstuffs)소비는 증가할 전망이다.

15) 이 자료는 농정연구센터 이병훈 연구원(shopper@krei.re.kr)이 작성한 자료이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자메일로 연락 바람.

- 세계 생산(밀, 쌀, 잡곡, 쇠고기, 치즈 및 식물성 유지 등)은 소비보다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생산증대의 대부분은 면적확대와 지역의 경종작물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며 이와 같은 경향은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OECD 지역 외 국가의 생산 확대폭은 OECD 국가보다 능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세계 생산에서 OECD의 비중은 버터, 탈지분유의 경우 대폭 감소, 돼지고기 및 전지분유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타 다른 생산물에 대해서도 감소 경향을 보일 전망이다.
- 밀과 잡곡에 대한 세계무역은 쌀 무역 증가와 맞물려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설탕 무역의 경우 브라질과 같은 수출 주도국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국가 주도의 낙농제품 무역은 세계 원유생산에서 낮은 비율이 지속되거나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생산 주도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OECD 국가에서 비 회원국으로의 낙농제품 순 수출은 전지분유를 제외하고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육류 수입은 가금육을 중심으로 큰 비중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망 기간 동안 대부분 축산물 가격은 명목으로 상승세가 전망되었으나 실질로는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다양한 국내외 무역정책은 국내외 시장가격 변화와 통합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일부 품목에 반영되어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간의 큰 차이를 유지하면서 소비자에게 고 비용을 전가하고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 농산물 시장의 방향과 전망

2.1. 소비 전망

- 최근까지 소득과 인구의 증가는 전세계 소비 확대를 가져왔으며 식생활 패턴 변화와 다양화는 낙농제품과 축산물 등 고부가가치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를 야기하였다. 향후 2003~2013년 전망에 따르면 전 지역에 걸쳐 모든 식용 생산물 소비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식물성 유지는 연평균 2.9%의 가장 높은 성장률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버터, 치즈, 전지분유 그리고 가금육 소비 역시 연간 약 2% 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표 1참조>.
- 특히 쌀과 탈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생산물 소비는 인구성장률 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는 축산 및 우유 생산에 사용되는 유지박과 잡곡의 소비 성장률 증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유지박 소비는 연평균 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반면 식용보다 가축 사료로 사용되어지는 잡곡은 연간 1.5% 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1. 비 회원국 중심의 소비 증가

- 소비증대의 대부분은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지역 인구 증가 및 소득성장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OECD 지역의 소비는 OECD 지역보다 더욱 빠른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와 같은 축산물은 물론 버터, 치즈 그리고 전지분유 등 낙농제품의 소비는 상당히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일 전망이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유지종자박과 잡곡 등 간접 소비 생산물 또한 강한(robust) 소비 증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OECD 지역의 높은 소득과 만족수준 이상의 기본 칼로리 공급은 소비자 식단의 다양화와 새로운 맛과 편리를 더욱 추구하게 하여 외식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소비 증대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탈지분유의 경우 2013년경 소비는 2003년 수요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을 전망이다. 쇠고기와 버터 소비가 증가할 지라도 가금육, 치즈, 전지분유와 같은 생산물로 선호가 이동되기 때문에 미미한 동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표 1 소비 및 생산 연평균 증가율, 2003-2013

단위: %

구 분	소 비			생 산		
	Total	OECD	비 OECD	Total	OECD	비 OECD
밀	1.2	0.8	1.4	1.8	1.5	2
쌀	0.8	0.8	0.8	1.3	1.1	1.3
잡 곡	1.3	0.8	1.8	1.6	1.4	1.8
사료용 잡곡	1.5	1.0	2.1	NA	NA	NA
유지종자	NA	NA	NA	2.7	2.5	2.8
유지종자박	2.6	1.6	3.8	2.6	2.2	2.9
쇠 고 기	1.5	0.4	3.0	1.6	0.6	2.8
돼지고기	1.5	0.8	2.0	1.5	0.8	2.0
가 금 육	2.0	1.7	2.5	1.9	1.7	2.1
버 터	2.3	0.4	3.3	2.2	0	3.8
치 즈	2.0	1.7	2.8	2.0	1.6	3.4
탈지분유	1.0	0	2.3	0.7	-0.7	5.6
전지분유	2.6	1.7	2.8	2.6	1.9	3.4
식물성 기름	2.9	1.7	3.8	3.0	2.0	2.9
설탕	1.8	0.5	2.2	1.7	0.5	2.2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 전망기간 동안 비 OECD 지역의 소비성장률이 높은 것은 농산물 생산증가율만큼 OECD 지역 외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OECD 지역의 탈지유(skim milk) 소비하락에 기인하여 전세계 탈지분유 소비 중 OECD 비중은 2003년 60%에서 2013년에는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쇠고기, 버터 그리고 돼지고기의 경우도 소비 비중 감소로 나타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OECD 쇠고기 소비는 2003년 61%에서 2013년 54%로 감소, 버터 37%에서 31%로 6%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돼지고기는 42%에서 39%로 약간 감소할 전망이다. 비 OECD 지역의 비육 사료용 생산물 소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비 OECD 국가 중심으로 가축생산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의 세계 잡곡 소비 비중은 2003년 55%에서 2013년 52%로 감소, 유지종자박은 58%에서 52%로 감소할 전망이다.

2.2. 생산 전망

2.2.1. 생산은 더욱 빠르게 확대

- 평년기후 조건과 생산성 향상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대부분 농산물의 생산 성장률은 소비 성장률 보다 더욱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실질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2. 비 OECD국가, OECD국가 생산 추월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개 품목 중 6개 품목(밀, 쌀, 버터, 치즈, 탈지분유, 전지분유)에서 비 OECD 지역의 생산 성장이 소비 성장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버터와 가금육 그리고 탈지분유만이 생산보다 소비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전체 생산물 기준으로 육류는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낙농제품과 설탕이 큰 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 외 국가의 생산확대는 OECD 국가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결과 OECD가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생산에서 OECD 의 비중은 탈지분유의 경우 약 12%p, 버터 9%p, 돼지고기, 쇠고기, 치즈 그리고 전지분유의 경우 3~5%p 하락할 전망이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미미한 하락이 예상되며 곡물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2>.

표 2 전세계 소비·생산 중 OECD 국가 비중

단위: %

구 분	소 비			생 산		
	2003년	2008년	2013년	2003년	2008년	2013년
밀	33.0	32.0	31.0	44.0	43.0	42.0
쌀	4.0	4.0	4.0	4.0	4.0	4.0
잡 곡	51.0	50.0	48.0	54.0	54.0	53.0
사료용잡곡	55.0	54.0	52.0	NA	NA	NA
유지종자	NA	NA	NA	38.0	39.3	37.2
유지종자박	58.0	55.0	52.0	41.7	41.9	40.1
쇠고기	61.0	57.0	54.0	59.0	56.0	54.0
돼지고기	42.0	41.0	39.0	43.0	42.0	40.0
가금육	64.0	64.0	63.0	64.0	64.0	64.0
버 터	37.0	34.0	31.0	46.0	41.0	37.0
치 즈	77.0	77.0	75.0	79.0	78.0	76.0
탈지분유	60.0	58.0	55.0	83.0	77.0	71.0
전지분유	19.0	18.0	18.0	54.0	52.0	50.0
식물성 유지	36.0	33.0	32.0	29.0	29.0	26.0
설탕	27.8	26.0	24.5	27.8	26.0	24.5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 세계 곡물 생산은 연간 1.6%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밀과 잡곡 생산은 각각 연평균 1.8%, 1.6% 증가할 것으로, 쌀 생산은 이보다 약간 작은 연 1.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의 곡물생산 성장률은 비 회원국 지역 성장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확면적 증가율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확대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밀 면적 연간 약 0.7%, 잡곡과 쌀 면적 연간 0.4% 이하 증가). 추가적 수확면적 증가는 대부분 OECD 이외 지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3 곡물 생산 및 증감률, 2003~2013

단위: 백만톤, %

품 목	지 역	98/99 -02/03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증감율
밀	OECD	243.6	240.8	253.5	250.4	263.8	269.4	279.3	1.49
	비OECD	333.3	310.5	329.1	338.4	352.8	363.2	378.3	1.99
	세계	576.9	551.2	582.6	588.8	616.6	632.6	657.6	1.78
잡곡	OECD	470.5	469.6	490.8	498.4	520.1	530.6	541.1	1.43
	비OECD	390.8	405.4	419.0	428.7	450.0	463.5	484.6	1.80
	세계	861.2	875.0	909.7	927.1	970.1	994.1	1,025.7	1.60
쌀	OECD	23.5	21.1	23.0	22.9	23.0	23.2	23.6	1.13
	비OECD	372.8	372.2	386.4	393.9	406.0	414.4	424.5	1.32
	세계	396.3	393.2	409.4	416.8	429.0	437.6	448.1	1.32
유지 종자	OECD	105.2	92.7	111.8	111.8	113.0	114.6	118.3	2.47
	비OECD	123.4	151.4	157.5	159.4	174.5	185.5	199.8	2.81
	세계	228.6	244.2	269.2	271.2	287.5	300.0	318.1	2.68
유지 종자박	OECD	70.6	66.9	71.4	73.9	78.3	80.7	83.2	2.20
	비OECD	75.8	93.5	99.0	101.3	108.5	114.4	124.4	2.90
	세계	146.5	160.4	170.4	175.2	186.8	195.1	207.5	2.61
식물성 유지	OECD	22.7	21.3	22.6	23.2	24.3	25.0	25.8	1.94
	비OECD	44.7	51.4	53.9	55.3	60.7	65.1	71.9	3.41
	세계	67.4	72.7	76.5	78.5	85.0	90.1	97.7	3.00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 세계 유지종자 생산은 2003~2013년 기간동안 연평균 2.7%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은 곡물생산에 대한 성장률 보다 1.0%p 이상 높다. 이와 같은 생산 성장은 OECD 이외 지역의 생산성 증대와 면적 증가의 결과이며 유지종자 확대 면적은 OECD 지역에서 연간 0.4%, 비 OECD 지역에서 연간 1.5% 씩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지종자 및 유지종자 박 그리고 식물성 유지 등의 파생 생산물 생산 또한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증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3. 낙농제품 및 육류 생산 확대

- 세계 원유생산은 아르헨티나와 중국의 대량 증산에 힘입어 1억 2,1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OECD국가는 쿼터제에 기인하여 전체 증산량의 2,500만 톤까지만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지역 증산량은 뉴질랜드와 호주를 중심으로 증량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비 OECD 지역의 처리능력에 투자증가를 통해 생산성 증대와 원유생산 성장은 OECD 지역을 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따라서 OECD 이외 지역에서 낙농제품 생산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ECD 생산물 중 버터와 탈지분유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반면 비 회원국 경우 각각 연평균 3.8%, 5.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육류별 성장률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상당히 높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세계적으로 낮은 물가상승과 안정적 사료가격 그리고 저가의 유지종자박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잡곡 가격을 상쇄시켜 낮은 생산단가 환경을 제공하여 육류 생산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표 4 세계 원유 및 낙농제품 생산

단위: 백만톤 1), 천톤, %

품 목	지 역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증감율
원유1)	세 계	573.9	583.3	594.2	630.9	655.2	695.3	1.9
버터	OECD	3,708	3,701	3,611	3,640	3,675	3,702	0.0
	비OECD	4,422	4,607	4,795	5,338	5,733	6,409	3.8
	세 계	8,130	8,308	8,406	8,977	9,407	10,111	2.2
치즈	OECD	13,925	14,217	14,469	15,228	15,662	16,302	1.6
	비OECD	3,598	3,727	3,841	4,245	4,538	5,036	3.4
	세 계	17,523	17,945	18,310	19,473	20,200	21,338	2.0
탈지분유	OECD	3,005	2,895	2,855	2,825	2,818	2,803	-0.7
	비OECD	634	676	727	846	931	1,098	5.6
	세 계	3,639	3,571	3,582	3,671	3,749	3,902	0.7
전지분유	OECD	1,901	1,914	1,998	2,115	2,181	2,291	1.9
	비OECD	1,657	1,740	1,799	1,971	2,108	2,326	3.4
	세 계	3,558	3,654	3,798	4,087	4,288	4,617	2.6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표 5 OECD 육류 생산전망

단위: 천톤

구 분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쇠고기	26,565	26,894	26,149	26,789	27,461	28,333	0.6
돼지고기	37,104	37,293	37,769	39,029	39,482	40,073	0.8
가금육	34,289	34,838	36,691	38,167	39,219	40,763	1.7
양고기	2,751	2,665	2,672	2,675	2,654	2,602	-0.6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3. 무역

3.1. 곡물 무역

3.1.1. 곡물 및 유지종자박 무역 확대 전망

- 세계 밀과 잡곡 무역은 최근 들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쌀 무역과 함께 2013년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지역의 총 밀 수출은 연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잡곡의 경우 연간 3.3%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OECD 지역에서 중국 등 비 OECD 지역으로 대량규모 무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 회원국으로의 밀 수출은 연간 4.4%, 사료용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잡곡의 경우 연간 10.1%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국가/지역별 전망에 따르면 유지종자박 무역은 연간 3.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의 대부분은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비 회원국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브라질의 경우 2013년에 600만 톤 이상의 수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 아르헨티나의 470만 톤 보다 많은 수준이다. 특히 미국은 전망기간동안 수출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기간 주요 수입국 EU와 중국은 약 500만 톤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6 OECD 수출입 무역 전망

단위: 천톤, %

수 출	98-02 평균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밀	78,058	77,012	83,853	84,125	92,811	95,148	100,299	2.7
잡곡	80,847	70,373	80,676	80,219	89,724	94,329	97,265	3.3
쌀	4,240	3,838	4,341	4,466	4,415	4,463	4,487	1.6
설탕	11,653	11,521	11,797	11,765	11,982	12,228	12,591	0.9
쇠고기	4,995	4,330	4,046	4,993	5,276	5,754	6,106	3.5
돼지고기	3,074	3,441	3,582	3,770	4,027	4,184	4,306	2.3
가금육	3,759	3,598	3,799	3,863	4,164	4,367	4,645	2.6
양고기	..	415	313	327	313	299	250	-4.9
버터	..	822	900	860	861	836	832	0.1
치즈	..	1,167	1,115	1,168	1,294	1,345	1,413	1.9
탈지분유	..	1,013	1,015	1,024	1,006	1,036	1,015	0.0
전지분유	1,169	1,305	1,319	1,399	1,460	1,487	1,540	1.7
수 입	98-02 평균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밀	24,615	29,066	25,484	25,858	26,037	26,288	26,725	-0.8
잡곡	53,786	52,784	51,035	50,145	51,501	52,481	51,241	-0.3
쌀	3,337	3,520	3,813	4,044	4,534	4,752	5,133	3.8
설탕	8,447	8,951	8,368	8,619	9,203	9,710	10,457	1.6
유지종자	..	5,166	-2,644	-1,955	2,167	4,060	3,705	-3.3
유지종자박	..	26,012	25,777	25,146	24,258	24,457	25,431	-0.2
식물성유지	..	4,882	4,387	4,266	4,111	4,358	4,932	0.1
쇠고기	4,088	4,086	3,858	4,809	4,849	5,112	5,287	2.6
돼지고기	2,064	2,400	2,414	2,545	2,814	3,032	3,155	2.8
가금육	1,486	1,794	1,918	2,011	2,244	2,417	2,617	3.8
버터	..	207	232	234	272	280	290	3.4
치즈	..	751	800	853	1,007	1,063	1,147	4.3
탈지분유	..	257	288	291	306	319	348	3.1
전지분유	82	79	79	76	70	66	60	-2.7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표 7 세계 유지종자박 무역 전망

단위: 천톤, %

국 가	98-02 평균	2003p	2004	2005	2008	2010	2013	'03/13 연평균
호주	수 입	0.3	0.3	0.2	0.3	0.3	0.3	1.9
캐나다	수 입	1.0	1.1	1.5	1.4	1.5	1.5	4.3
	수 출	1.7	1.6	1.6	1.5	1.6	1.6	-1.0
EU25	순무역	-23.4	-24.6	-25.0	-25.2	-25.5	-26.0	1.1
일본	수 입	1.2	1.1	1.2	1.1	1.1	1.2	0.0
한국	수 입	2.0	2.3	2.2	2.4	2.5	2.5	2.3
멕시코	수 입	0.5	0.6	0.8	1.2	1.4	1.7	13.8
미국	수 입	1.7	1.0	1.3	1.4	1.4	1.4	-1.8
	수 출	3.4	4.8	6.6	8.3	8.9	9.1	10.3
기타OECD	순무역	-1.1	-1.1	-1.2	-1.2	-1.3	-1.4	2.0
아르헨티나	수 출	21.1	22.1	22.2	23.2	24.2	25.7	2.0
브라질	순무역	13.3	14.7	15.4	16.4	17.5	19.9	4.1
중국	수 입	1.3	1.9	2.5	3.5	3.7	4.4	13.3
CIS	순무역	0.4	0.4	0.4	0.3	0.3	0.2	-5.7
세계 기타	순무역	-9.1	-11.4	-12.1	-14.0	-15.5	-17.6	6.8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3.1.2. 비 회원국 주도의 설탕무역

- 설탕무역은 주요 수출국이며 생산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브라질을 중심으로 50%까지 수출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태국과 호주 역시 각각 21%, 15% 까지 수출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 주로 미국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수출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세계 설탕시장 수입 양상은 수출지역과 달리 지역적으로 집중도가 낮으며 세계최대 수입국 러시아로의 수입 지속이 예상되고 있으나 자국내 생산 확대로 일부 수입물량을 대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2. 축산물 무역

3.2.1. OECD 국가, 높은 육류무역 비중 지속

- 쇠고기 수출은 연간 성장률 약 3.1%대에서 2013년까지 20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주요 수출국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동시에 2004년 초반 이후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와의 쇠고기 무역이 재기될 전망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은 2005년 초반부터 재기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총 수출량은 광우병 발생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돼지고기 무역은 2003년 보다 크게 증가하여 2013년에는 약 67.3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대 비 회원국 수출량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아 무역의 대부분은 OECD 지역 내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U는 OECD 지역 내에서 세계 최대 수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망 후반기에 들어 2위의 수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 미국은 2013년까지 300만 톤에 가까운 막대한 가금육 수출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소비량도 50kg으로 OECD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금육 수출국인 브라질의 경우 내수확대로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주요 가금육 수입국은 중국과 러시아이며 이중 러시아는 최대 순수입국 입지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2.2. 낙농시장의 축소, 미미한 무역성장세 지속

- OECD 낙농제품 무역량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적은 비중을 나타내거나 역내무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교적 무역비중이 높은 일부 품목은 세계 소비량의 약 30% 이상을 수입하는 탈지분유나 35%의 전지분유 등이며, 이와 대조적으로 무역비중이 낮은 품목은 치즈(7%), 버터(8%) 등이 예상되고 있다. 치즈 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연간 2.1%, 전지분유는 1.3%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탈지분유 수입은 연간 0.4% 성장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버터는 연간 약 0.4%씩 실질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세계 낙농제품 무역은 OECD 국가에 의한 주도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OECD 국가에 의한 낙농제품 수출은 곧 전 세계 수입의 90% 이상인 치즈, 버터, 전지분유 등의 수입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낙농제품 무역 대부분이 OECD 지역 내에서 이뤄지고 후발 생산국의 강력한 생산 성장으로 비 OECD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지분유를 제외한 모든 낙농제품에서 감소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3.3. 주요국의 무역구조 상황

3.3.1 EU, 밀 시장점유 회복

- 최근의 환율변동은 밀 수출국 경쟁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에서 미국의 밀 수출 비중은 2013년에는 약 27%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EU를 제외한 기타 수출경쟁국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로화의 고평가에도 불구하고 EU의 밀 수출은 계속 확대되어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가뭄으로 낮았던 2003년 9%에서 2013년에는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잡곡의 경우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은 2003년 59%에서 2013년에는 62%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EU를 제외한 기타 수출경쟁국의 시장점유율은 가뭄의 영향으로 극히 낮았던 2003년의 3%에서 2013년에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3.2. 중국, 주요 곡물 수입국으로 전환

- 추가 무역량의 대부분은 중국의 곡물 수요에 대한 수입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 곡물시장에서 순수입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순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과거 중국의 소득 수준 향상으로 유제품 및 육류 소비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축산부분에 대한 잡곡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규모 수입이 예상되어 왔지만 자국내 재고 방출 등을 통해 중국 내 공급을 증대시켜왔다. 중국의 재고 수준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수입보다 재고방출을 통해 국내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재고수준이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을 경우 중국의 곡물수입량은 감소하고 국내외 가격 또한 하락할 전망이다. 따라서 WTO가입국으로써 곡물의 TRQ 이행 결과에 따라 곡물가격은 심한 변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3.3. 브라질, 세계 최대 유지종자 수출국으로 성장

- 유지종자의 세계 수입수요(수출)는 연간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국가의 경우 단지 연간 0.7%의 소폭 성장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부분 비 회원국을 중심으로 수입수요가 확대될 전망이다. 비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수요는 증가될 전망이며 과거 세계 최대 유지종자 수출국인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3년 경 미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1%로 2003년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2013년 경 21%까지 확대가 예상되고 있으며 브라질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최대 수출국의 입지를 차지할 전망이다.

3.3.4. 남미, 육류 무역대국 예상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세계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다. 특히 브라질은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수출이 확대되면서 2013년까지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내수용 생산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성장은 느린 속도로 나타날 전망이다. 그 결과 세계 시장 점유율 역시 하락할 전망이다.

- EU는 쇠고기 수출공동체에서 수입공동체로 전환 전망 결과에 의하면 EU가 1970년에 이후 30년간 지속된 역내 시장정책이 전환하게 되어 결국 쇠고기 수출공동체에서 순 수입공동체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비 회원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 곡물시장에서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유지종자(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은 설탕 및 쇠고기 시장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자국내 시장 개방확대로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4. 가격

4.1. 장기적으로 실질 농산물가격 하락 전망

- 명목기준으로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주요 품목별 명목가격을 물가요인을 고려하여 실질 가격으로 전환하면 대부분 품목의 실질가격이 최근 수준보다 하락한 반면 곡물, 쇠고기,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의 경우만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2. 곡물 및 식물성 유지 가격 강세

- 곡물의 경우 공급은 수요보다 빠르게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명목 가격은 밀, 잡곡, 특히 쌀에 대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낮은 세계 재고 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곡물 재고비율은 최근에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 곡물 재고 감소의 주요 요인은 중국과 비 회원국 재고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 곡물 가격과는 대조적으로 유지종자 가격은 급속히 하락한 이후 수요증가가 생산 증가로 이어져 명목가격으로 안정 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망기간 내내 유지종자 가격의 안정세는 유지종자 박 가격 하락과 식물성 유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4.3. 설탕가격 강세 지속

표 8 주요 품목별 세계 가격 전망

품 목	단위	98-02평균	03/04P	05/06	08/09	10/11	13/14
밀	USD/t	126	152.7	154	156.4	154.8	152.9
잡 곡	USD/t	94	104.9	111.5	114.1	114.5	113.7
쌀	USD/t	218	203.8	252	286.3	298.8	316.3
유지종자	USD/t	218	316.8	245.6	254.9	249.9	254.1
유지종자박	USD/t	166	237.3	180.2	180.7	179.1	179.5
식물성 유지	USD/t	429	582.6	568.1	599	589	602.8
설탕	USD/t	177	149.9	200	150	185.1	176.4
쇠고기	EUR/100 kg	245	245.4	240.7	248.9	247.5	247.9
돼지고기	EUR/100 kg	127	124.9	129.5	133.4	130.3	134.9
가금육	USD/100 kg	129	136.5	139.3	142.4	141.3	142.5
양고기	NZD/100 kg	325	379.4	347.4	348.5	347.2	355.5
버터	USD/100 kg	145	139.2	146	148.6	149.6	151.6
치즈	USD/100 kg	188	187.7	191.1	198.6	202.5	209
탈지분유	USD/100 kg	159	173.3	173.4	174.1	176.6	177.2
전지분유	USD/100 kg	167	175.2	177.1	181.6	186	187.4
카세인	USD/100 kg	434	359.6	411.6	436.5	435.1	433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 설탕 시장은 본질적으로 약세를 보여 왔으며 전세계 설탕 소비는 연평균 1.8% 씩 증가할 전망이다. 생산은 가격상승 예상되는 대부분 시기 때마다 소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 재고 비율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 세계 명목가격은 전망기간 동안 7~9 cents/lb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질가격 하락세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4.4. 축산·낙농제품 가격 상승세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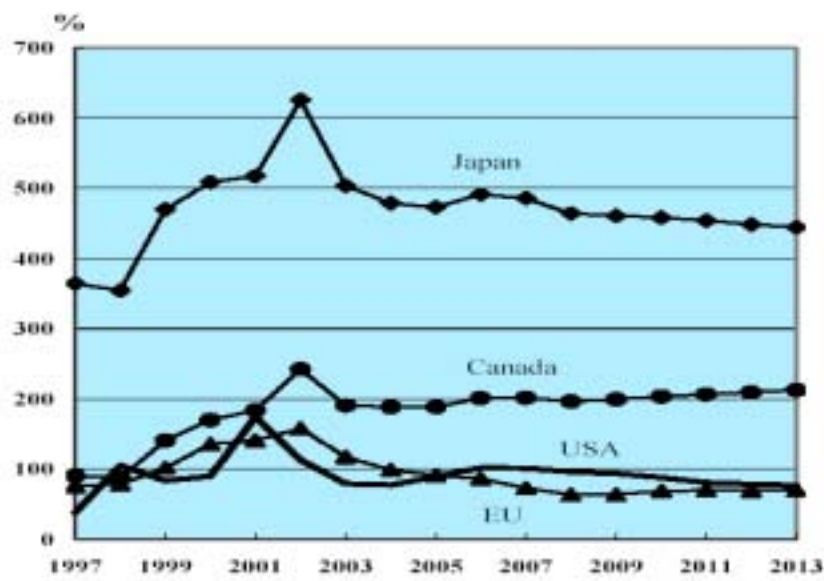
- 세계 치즈 명목가격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소비 증대와 치즈, 전지분유 수입증가 그리고 달러화 약세의 영향을 받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우병 발병 초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쇠고기 가격은 주기적 패턴을 반복하며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고기 가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기적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명목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금육 가격은 비교적 보험세를 보일 전망이나 양고기 가격의 경우 뉴질랜드와 호주의 수출공급량 감소로 과거 수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4.5. 정책반영에 따른 가격변화 전망

4.5.1. 버터와 탈지분유 국제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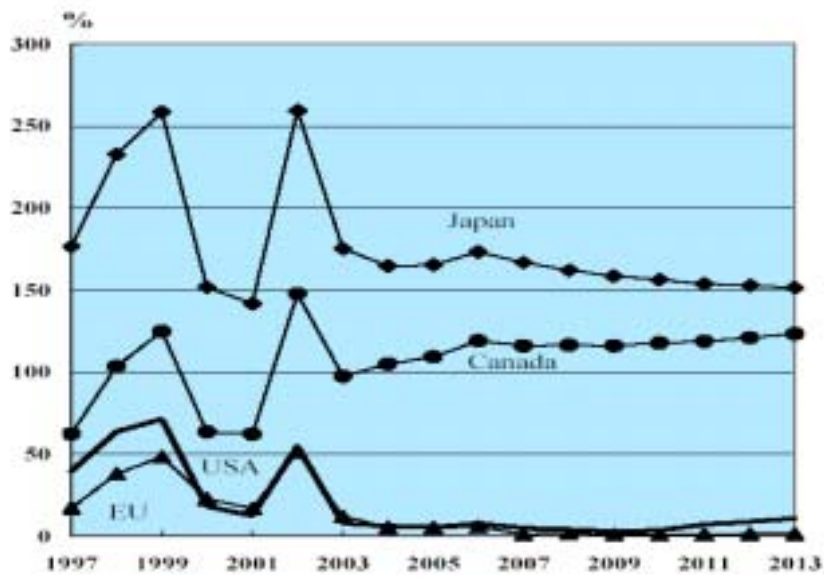
- 생산운영제도(생산쿼터제 등), 국경보호조치(TRQ 등)와 같은 일부 국내 및 무역 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생산자 가격 하락 위험을 축소시키는 등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그림 1, 2와 표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캐나다, EU 그리고 미국 등 주요 4대 국가의 경우 세계 버터 가격과 자국내 가격간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버터 국제가격차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그림 2 탈지분유 국제가격차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표 9 주요국별 버터 및 탈지분유 국제 가격차

단위: %

버터	EU	캐나다	미국	일본
1997년	70	90	45	360
2003년	111	192	80	501
2005년	94	189	93	475
2008년	65	199	99	461
2010년	71	205	90	458
2013년	79	219	81	442
탈지분유	EU	캐나다	미국	일본
1997년	12	101	44	174
2003년	11	112	10	172
2005년	9	120	9	168
2008년	9	122	10	164
2010년	8	134	9	158
2013년	6	219	12	151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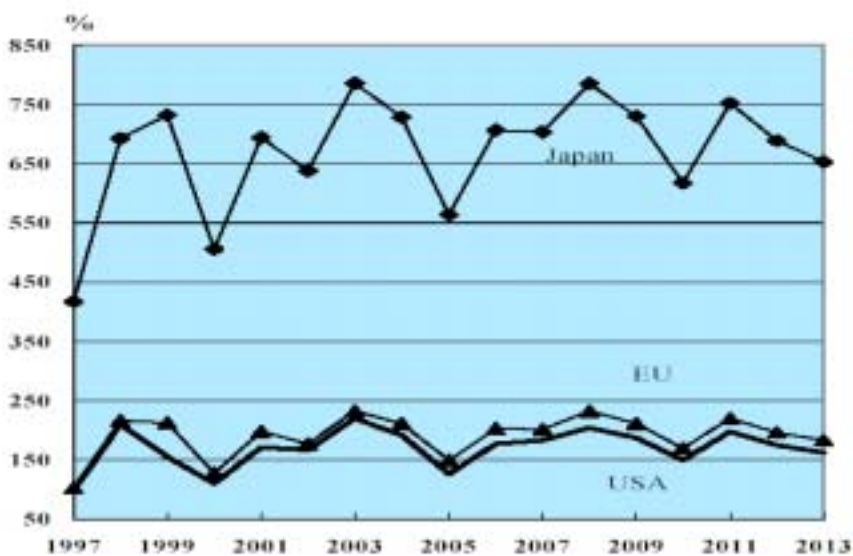
특히 1997년 일본은 세계 가격보다 약 4배 높은 가격을 보였으며 전망기간 내내 같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경향으로 캐나다는 세계 가격 보다 2배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반면 EU와 미국은 전망기간 기말 년도 기준으로 세계가격의 7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 그림 2와 같이 4개 국가의 탈지분유 가격은 버터와 달리 생산자가 가격 보호 장치가 미미하기 때문에 적은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캐나다는 전망 기간동안 가격차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과 EU의 가격차이는 보합세 내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5.2. 설탕과 쌀 국제가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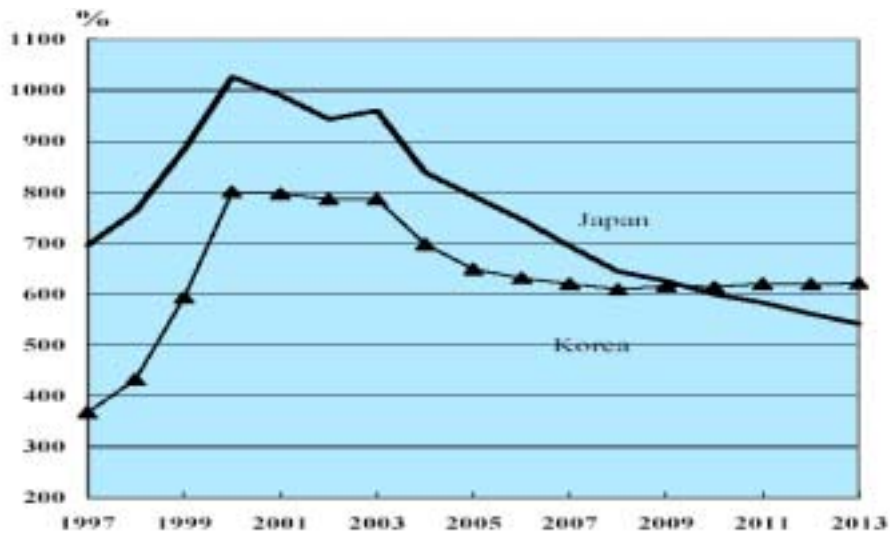
- 설탕의 국내외 가격차는 1997년과 비교할 때 2013년에는 모든 국가에서 큰 폭으로 확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본의 경우 약간의 변동기간을 거치면서 2013년 가격차이는 6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미국과 EU의 가격차이의 경우도 일본보다는 작지만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확대되어 약 170~180% 수준의 가격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 쌀 시장의 가격차이를 시간 경과에 따라 차이는 점차 좁혀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세계 가격과 약 6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일본은 이 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림 3 설탕 국제가격차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그림 4 쌀 국제가격차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표 10 주요국별 설탕 및 쌀 세계 가격차

단위: %

설탕	EU	미 국	일 본
1997년	103	102	422
2003년	224	230	781
2005년	152	142	563
2008년	244	198	792
2010년	162	153	628
2013년	172	189	652
쌀	한 국	일 본	-
1997년	372	703	-
2003년	789	962	-
2005년	650	799	-
2008년	610	638	-
2010년	612	599	-
2013년	618	543	-

자료: OECD Agricultural Outlook 2004-2013, July 2004.

부 록

- 2004년 3분기 농정 이슈와 여론동향

2004년 3분기 농정 이슈와 여론동향¹⁾

1. 3분기 여론동향 개요

- 3분기에는 지난 5월6일부터 시작된 쌀 재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협상 상대국들의 의무수입물량 증량과 수입쌀 시판 등 무리한 요구로 협상에 난항을 겪고, 국내에서는 관세화 개방과 관세화 유예에 대한 찬반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농민들의 개방반대 집회가 확산되면서 언론들이 쌀과 농업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보였음.
- 답보상태를 계속하던 세계무역기구(WTO) 도하라운드협상(DDA)은 세계무역기구가 7월3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어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와 수입세 경감을 골자로 한 기본 골격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 이로써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가운데, 기본골격 합의안은 수출국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농업 개방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쌀 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 연장과 상관없이 의무수입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정부는 쌀재협상과 DDA 기본골격 합의에 따라 농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전업농 육성을 강화하는 구조조정 대책, 지역농업 활성화를

1) 이 자료는 여론정보팀 김동원 전문연구원(dongweon@krei.re.kr)이 2004년 3분기 동안의 주요 농정 이슈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쟁점, 유관기관 동향, NGO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임. 이 자료의 기초가 되는 「농업관련 주간 여론동향」은 매주 월요일 발행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 볼 수 있음. 문의사항은 전자우편으로 연락바람.

위한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는 이들 대책이 개방을 전제로한 것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있었음.

- 농민단체의 식량자급률법제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월 초 발표한 농진청 자료에서 10년내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는 언론보도가 주목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면적이 67년 이후 최소규모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안정적 식량확보에 대한 여론도 형성되었음.
- 농림부가 농특위 활동을 200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론은 농업계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연장이 불투명하다는 논조로 보도했으며, 농특위가 농지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설과 부동산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아 수위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었음.
-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체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한편에서는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했던 농업분야 피해가 예상외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엇갈린 가운데, 정부는 아세안을 비롯한 20여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키로하는 등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FTA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음.
- 이밖에, 9월말에는 농민 90%가 40세 이상이며 소득은 도시근로자의 76% 수준이라는 ‘농림업 주요통계’가 발표돼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에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있었으며,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축산물 관리의 식약청 이관에 대해 농림부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8월말에는 농민단체를 비롯해 사회시민단체가 연대기구 형식으로 ‘쌀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쌀지키기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음.

2. 주요 이슈와 여론

2.1. 쌀 재협상, 의무수입물량 확대 등 무리한 요구로 난항

- 우리 정부는 쌀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있는 미국, 중국, 태국과 4차 쌀재협상을 9월중순 잇따라 개최했으며 중국과는 5차협상까지 마쳤으나, 상대국들이 관세화유예 대가로 의무수입물량 2배 이상 증량, 관세율 인하, 검역절차 완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는 쌀개방 반대 농민시위가 전국 100여개 시군에서 사흘간 계속된 것을 비롯해 쌀개방 반대 시위에 농민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문화계, 지자체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하는 등 범 농업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회적으로 쌀 문제가 이슈화되었음.
- 9월18일 KBS 심야토론에서 이명수 농림부 기획관리실장은 ‘관세화유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쌀협상에서 이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정부가 협상전략을 바꿔야할 시기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 쌀협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9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협상 내용이 구체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한경 9.23>은 중국과의 5차 협상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과의 3,4차 재협상 과정에서 제기했던 ‘쌀 이외의 통상현안’들에 대한 요구를 사실상 철회한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데 협상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언론들 보도를 종합하면, 쌀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중국을 비롯한 미국과 태국 등 주요 협상 상대국들이 의무수입물량을 증

량하는데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증량요구 수준도 협상 초기보다는 상당히 현실화되고 있어 정부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일부언론은 의무수입물량 증량 수준이 현재 4%인 것을 8%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국쌀의 국내시판 문제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협상 상대국의 요구가 과도할 경우 4백% 안팎의 관세부과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문제도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음.
- 한편, 쌀 시장 개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전남 등 지역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농민단체는 쌀개방 찬반 국민투표를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쌀협상 관련 논란도 계속되었음.

2.2. DDA 협상 기본골격 합의 “농업 개방확대 불가피” 관측

- 세계무역기구(WTO)는 7월31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일반이사회를 열어 농산물 수출보조금 지급 금지와 수입세 경감을 골자로 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기본 골격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음.
- 이로써 지난해 9월 멕시코 칸쿠회의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던 DDA 협상이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기본골격 합의안이 수출국 주장이 상당수 반영된 것으로 농업개방 폭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쌀 협상에서도 관세화 유예 연장과 상관없이 의무수입 물량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정부는 일단 이번 합의안이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농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수출국 위주로 진행됐으며 협상 거부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였음.
- 국내 언론들도 UR 이후 수입 농산물의 경쟁력 등에 밀려 답보 또는 퇴보 흐름을 보여온 우리 농업에 다시 한번 거대한 개방과 고가들이닥칠 것임은 자명하다며,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 폭을 아직까지는 가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추가개방과 이에 따른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하였음.

<DDA 기본골격 합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농업분야	▪ 고율관세일 수록 더욱 많이 감축 ▪ 모든 회원국 일정수 관세항목 민감품목지정 허용 ▪ 관세감축과 저율관세수입물량 연계 ▪ 관세상한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평가 ▪ 개도국 적절한 수 품목 특별품목 지정 가능 ▪ 국내보조 높은 보조 지급국 큰폭 감축, 이행기간 첫째 ▪ 무역 왜곡 보조금 총액 20%이상 감축 ▪ 생산제한을 전제로 한 보조금 다소 융통성 도입 ▪ 모든 형태 수출보조 향후 결정시점까지 철폐
비농산물	▪ 관세감축 비선형 인하방식 채택 - 관세가 높을 수록 높은 감축률 적용
서비스	▪ 회원국 2차 양허안 2005년 5월까지 제출 ▪ 1차 양허안 미제출국 양허안 조속 제출
싱가포르 이슈	▪ 무역원활화는 협상개시 ▪ 나머지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등은 DDA 협상 작업계획에서 제외

- KREI는 8월3일 DDA 기본골격 평가를 통해 향후 모델리티 협상에서 우리 나라는 관세상한의 철폐와 함께 민감품목의 최소 개수 확보 및 TRQ(의무수입물량)확대 최소화에 협상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 <한국> 등 언론들은 8월2일과 3일 일제히 사설을 통해 DDA협상 기본골격 합의는 공산품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면서도 농업의 대폭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보였고, <문화> 등 일부 언론은 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므로 농업에 대한 보호주장을 접고 농업개혁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지지 의사를 보였음.

2.3. 수매제 폐지와 전업농 육성 등 농업대책 논란

- 정부가 DDA협상 대책으로 8월2일과 8월3일 잇따라 발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전업농 육성 대책에 대해 <한경> 등 중앙언론은 수매제 폐지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논평한 반면, <광주>, <전북>, <국제> 등 지역언론들은 수매제폐지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농업해법에 대한 중앙과 지역언론간의 시각차를 보였음.
- 전농 등 농민단체도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 성명을 내고 “추곡수매제 폐지는 개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빙자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농민단체 출신 의원들이 많은 민주노동당은 추곡수매제의 국회동의제 폐지는 사실상 수매제 폐지를 의미하는 만큼 양곡관리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농림부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6ha 수준의 쌀 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기 위한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을 8월2일 발표하였음.

- 이에대해 전농은 성명을 통해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규모화 정책을 포기하고 영세 소농과 가족농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요구하는 등 DDA협상 농업대책 논란도 있었음.
- 이처럼 양곡관리법 개정안 및 전업농 육성 대책은 학계에서도 논란이 돼 서울대 노재선 교수는 공공비축제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행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3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상대 김병택교수는 “대규모로 경영하는 쌀 전업농을 육성하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규모화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음.

2.4. 언론, “정부 ‘10년내 식량위기 가능성’ 인정”

- <한국>은 9월8일자 신문에서 내년부터 쌀시장의 완전 개방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 이내 식량위기의 발생 가능성과 대응책의 필요성을 인정,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보도는, 농촌진흥청이 9월7일 펴낸 정책홍보 자료에서 “2010년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2억톤 이상의 식량이 부족해 식량위기가 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곡물 가격이 폭등한 뒤 식량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그 가능성을 일축해 왔는데, 정부가 식량위기 가능성 그것도 10년 이내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대해 쌀 시장 개방을 전제로 정부가 구체적인 식량안보 보장 방안 마련에 착수했기 때

문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부 관계자도 “공공비축제를 도입해 600만석의 쌀을 의무적으로 비축하는 한편, 농업농촌기본법에 최소한의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현재 29% 수준에 불과한 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전국농민회총연맹 박웅두 정책위원장은 “영국 가이언지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도 기상이변으로 세계적인 기근이 발생해 식량의 무기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였음.
- 이와 관련해 <연합 8.23>은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 67년의 123만5천ha부터 따져도 역시 가장 작은 규모 100만1천200ha로 작년보다 1만4천900ha, 1.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23일 밝혀 현행 방식의 표본조사가 채택된 지난 74년의 120만4천ha 이래 최소 면적이며, 벼 재배면적에 대한 정부승인 통계가 시작된 지난 67년의 123만5천ha부터 따져도 역시 가장 작은 규모라고 보도하였음.

2.5. 농특위 3년 연장 추진…언론, “성사 여부는 불확실”

- 농림부는 최근 법정 활동시한을 3개월여 앞둔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농특위)의 존속기간을 200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농특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월22일 밝혔음.
- <연합 9.22> 그러나 농업계의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데다 청와대 의중도 아직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연장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이 언론은 농정은 농림부에서 맡고, 농업개방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논의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농특위가 제 역할을 찾기가 쉽지않은 상황이지만 정부는 물론 농민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 국민적인 합의기구로서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필요성도 강조하였음.
 - 한편, 개정안은 본위원회의 구성을 현재보다 소비자 대표 1명을 줄이고 농어업인단체 대표는 1명 늘려 위원장 1명, 재경부장관 등 정부대표 6명, 농어업인단체 10명, 소비자 시민단체 4명, 전문가 언론인 9명 등 총 30명 이내로 이뤄지도록 하고 있음.
- ⇒ 이와 관련, 장원석 농특위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농림부가 곧 농민단체장들과 만나 향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농민단체들은 새로운 형태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농특위보다 강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음.

2.6.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개시

- 농림부가 9월21일 연내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10개 지역을 지역농업 클러스터로 선정, 내년부터 1개 지역당 약 20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에따라 산-학-연 연계를 통해 지역농업과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예정임.
- 농림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선정지역을 늘려나가면서 오는 2013년까지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에 총 1조7천168억 원을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인데, 이 사업은 국내 녹차의 주산지인 전남 보성군 사례처럼 농산물 주산지를 둘러싼 관광, 가공산업 등 전후방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자체가 지역의 산-학-연과 연계해 지역 농업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게 하는 것임.

- 한편, ‘지역농업클러스터 T/F’가 9개도 소속 시·군 자치단체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설문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농정담당 공무원의 48%가 향후 농정의 중점으로 경쟁력강화를 들고 있으며, 90%가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인 농업정책추진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지역농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3순위 복수응답)으로 “고령화·영세화 등으로 농업인의 혁신의지가 약하고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가 24%, “지방재정이 어렵고 중앙의 예산지원 또한 부족하다”가 22%로 나타났다.
- 또, 응답자의 90%가 지자체 스스로 지역농정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평가하고, 지역농정을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로는 지자체 공무원(63%), 농민단체(21%), 농협(15%)등을 들었음. ‘농업·농촌종합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는 ‘경쟁력 강화’가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촌복지(17%), 직접지불제(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7. 농어업법인 10곳중 4곳 휴폐업 상태

- 농어업법인 10곳 중 4곳 꼴로 사업 부진 등에 따른 휴·폐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운영 중인 법인들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업체는 32.7%에 불과했고 그나마 결산업체 중 31.6%는 적자 경영에 허덕이는 등 운영이 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9월15일 통계청이 낸 ‘농어업 법인 사업체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만1804개 농어업법인 가운데 운영 중인 업체는 54.9%인 6483개에 그쳤으며, 4452개는 휴·폐업 등 소재 불명의 사업체였고 869개는 사업 준비중인 것으로 조사됨.

- 운영 중인 업체를 유형별로 영농조합 4274개, 농업회사법인 1158개, 일반회사 78개 등 농업법인이 5788개였고 영어조합 517개, 일반회사 128개 등 어업 법인이 695개였고, 운영 중인 사업체는 1년 전보다 202개가 감소. 지역별로는 전남 1247개, 충남 104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2.8 농특위, 농지 개발이익 환수 강화 추진…반론도 만만치 않아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농지전용규제완화와 관련, 이미 발표된 농지보전부담금외에 개발 농지에 개발이익 환수조치를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임.
- 이는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 로드맵상의 개발이익 환수제와 궤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나 건설·부동산경기를 한층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수위 조정이 주목됨.
-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 관계자는 7월27일 “최근 열린 회의에서 토지시장안정화 방안 로드맵을 구축중인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농지규제완화시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이익환수조치의 필요성을 의결해 강력 요구했다”고 말하였음.
- 농특위는 올 하반기에 농지의 합리적 보전대책, 농지관리기구 설립방안, 중장기 농지수급대책, 농지제도 개편과 연계된 농업구조개선 촉진방안 등을 중점 검토한 중장기 농지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2.9. 정부, 아세안 등과 적극적인 FTA 추진키로

- 한국과 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정부 협상이 내

년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가운데, 외교통상부는 지난 9월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측이 내년부터 한-아세안 FTA체결을 위한 공식 정부협상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 정부는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 일본, 아세안 국가 등 20여 개국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중이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는 올해 안에 FTA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짐.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9월10일 “앞으로 5년 내 FTA가 전세계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도 아세안, 메르코수르, EFTA, 멕시코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 나라와 미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가능성도 고조돼,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9월8일 미국 뉴욕에서 “최근 미국이 한국의 농업개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FTA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제안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재차 전달해왔다”면서 “로버트 쉴릭 USTR(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을 만나 한-미 FTA에 대한 미국측 입장 등을 알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그동안 미국측의 적극적인 한·미 FTA체결 의사에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오던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되는데, FTA를 통해 최대 교역상대국인 미국과의 무역장벽이 낮아지면 우리 나라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크게 확대되지만 미국 농산물이 값싸게 들어오게 돼 국내 농업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언론들은 관측하였음.
- 한편, 9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협동연구’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3국간 FTA 체결로 인한 경제적 후생효과는 한국이 178억 달러로 일본(616억달러), 중국(473억달러)보다 적다”고 밝혔으며,

또 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박사는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가로 인해 농산물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4억12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해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EU나 NAFTA 등의 선례로 볼 때 FTA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도 가져다준다”라며 “세계 제조업의 산실 역할을 하는 한·중·일이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적 위상을 갖추려면 FTA체결이 필수적”이라고 반대의견을 밝혔음.

2.10 韓-칠레 FTA 협정체결 6개월 ‘성과 논란’

-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지 6개월이 지난 10월 현재 한 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對)칠레 무역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다른 한편에서는 당초 우려했던 농업분야 수입 피해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나고 무역적자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 논란이 되었음.
- <동아>는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4월1일부터 8월 말까지 5개월간 대칠레 수출은 2억5400만달러, 수입은 7억8200만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는 5억28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며 주정적인 논조로 보도하였으며, <매경>은 한-칠레 FTA 효과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한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포도와 복숭아, 참다래(키위) 재배 농가들을 대상으로 과수농업 구조조정을 위한 과수원 폐원 신청을 받기로 하자 농민들의 신청이 봇물을 이뤄 정부의 예상보다 약 5배나 많은 폐원 신청이 쏟아

지면서 장기적으로 과수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2.11. 농민 91% 40살 이상, 소득은 도시 76% 수준

- 9월31일 농림부가 발간한 <농림업 주요통계>를 보면, 2003년 말 현재 농가 수는 195만 가구로, 10년 전인 1993년 259만 가구에서 24.8%가 감소했으며, 농민 가운데 40살 이상의 비중이 78.6%에서 91.0%로 크게 늘어났고, 특히 65살 이상 비율은 93년 15.9%에서 33.1%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경지규모별 농가 수에서는 0.5ha 미만 소농의 비중이 93년 29.6%에서 지난해 35.6%로 늘어나고, 2ha 이상 중농 이상이 12.3%에서 14.2%로 늘어나 경지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농가 소득 비율은 93년 95.5% 수준이었으나 98년 80.1%, 2003년 76.2%로 해마다 줄어 도-농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반면 가구당 소득 대비 농가부채 비율은 93년 40.3%에서 98년 83.0%, 2003년 99.0%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2.12.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추진...개편 방향 논란

-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을 맡고 있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는 8월23일 종합보고서를 발표하고 8월말까지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먹는물과 산자부의 천일염, 해양수산부의 수산식품·심층수, 국세청의 탁주·약주는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할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농림부에서 생산, 가공, 유통단계까지 책임지는 축산식품도 가공단계부터 식약청에

서 담당하게 되어있음.

- 개편안에 대해 환경부와 농림부, 국세청 등이 반발하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은 축산물. 축산물 104개 유형의 위생관리 업무는 가축사육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농림부는 축산물을 사육단계부터 관리하면 문제 발생때 신속한 역추적 및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식약청은 축산품의 생산 이후 모든 과정은 식품관리를 하고 있는 식약청에서 일관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반박해 논란이 되고 있음.

2.13. 쌀 지키기 범국민운동본부 출범

- 한농연과 한여농, 한국노총, 소시모 등 121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8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쌀 지키기 범국민협약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이 연대기구를 결성하고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운동에 본격 나섰다.
-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쌀 산업의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고자 우리쌀 지키기 국민협약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농업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혁신하며 노력하는 생산자와 이를 신뢰하고 공감하는 소비자들을 비롯한 사회단체 간에 범국민협약 운동을 전개해 슬기롭게 극복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힘.
- 운동본부는 “국내 농업의 붕괴는 소비자가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을 막아 결국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농촌 기반을 약화시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말함.

3. 중앙언론에 다뤄진 주요 논단

3.1. 사설 논조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서울경제/7.15	한-일FTA	한-일 FTA 서두르기에 앞서 - 일본과의 FTA는 양국간 교역증진은 물론 동북아경제권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지만 취약부문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보완책을 강구하는 것이 한-일 FTA의 과제
서울경제/7.20	쌀 재협상	쌀 관세화가 유리할 수 있다면 - DDA 농산물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확보 등 개방축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만이 우리 농촌을 살려낼 수 있을 것.
한국경제/7.23	한-일FTA	한-일 FTA 기피할 일은 아니다 - 한-일 FTA에 있어서 경쟁력 격차가 현격한 산업에 대해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관세인하폭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문화일보/8.2	DDA협상	피할 수 없는 농업개방 흐름 - 농업 보호해야 한다는 일부 정서 농업에 피폐만 키울 뿐. 과감한 경쟁체제 도입과 농가소득 보전 큰 틀 국민적 합의 필요
국민일보/8.2	DDA협상	농산물 시장개방 대책세워야 -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개방 대비책 서둘러야
한국경제/8.3	DDA협상	농업 추가개방 대비책은 있는가 - 개도국 지위 등 핵심사안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내야 함과 동시에 우리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정혁신 시급.
매일경제/8.3	DDA협상	농업경쟁력 강화 서두를 때 - 쌀의 경우 관세화를 관철시키려는 국가가 많은 상황이므로, 관세화 수용이라는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야
파이낸셜/8.3	DDA협상	농업개방, 이번엔 근본대책을 - 시장개방 장기적으로 이득. 개방 막으려 할게 아니라 취약한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근본대책 등 개방 통한 발전 전략 짜야
한국일보/8.3	DDA협상	전환점에 선 쌀농사의 운명 - DDA협상의 기본골격 공산품 수출 위주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이득. 쌀 산업은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 희박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국경제/8.4	수매제폐지	추곡수매 폐지는 불가피하지만 - 추곡수매제도 폐지는 불가피. 전업농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성 확보, 생산비 절감, 쌀 유통체계의 혁신 등 대책 시급
경향신문/8.20	중국쌀	표백제 찌쌀, 또 식약청인가 - 중국 내부에서도 찌쌀의 유해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는 점임을 인식해야. 유통실태와 부작용에 대해 철저한 대비책 필요.
문화일보/8.20	중국쌀	중국산 유해 찌쌀 얼마나 유통됐나 - 정부는 유해성분이 확인된 중국산 찌쌀의 수입을 중단하고 국내 유통경로를 추적,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폐기해야.
세계일보/8.20	중국쌀	중국산 유해 찌쌀 철저 단속하라 - 식약청은 모든 중국산 수입식품 위생검사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재 생산과정 실사 등 선진국 수준의 대응 나서야.
경향신문/9.1	기금통폐합	정부기금 통·폐합 미흡하다 - 기금개편은 결국 다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해 설득하고 관철시켜야
매일경제/9.2	기금통폐합	걸치레에 불과한 기금 통폐합 -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감한 기금정비로 개혁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세계일보/9.2	새만금사업	새만금 간척지에 540홀 골프장? - 세계적 갯벌 자산을 희생해서 결국 골프장단지를 조성한다면 환경 보전 차원에서 도저히 설득력을 얻을 수 없을 것
파이낸셜/9.3	대미통상	대미 무역보복 신중한 접근을 - 대미 무역보복은 일본과 EU의 동태, 10월에 열릴 서방선진 7개국 재무장관 회담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국경제/9.4	쌀재협상	쌀개방 관세화도 검토해볼만 - 쌀협상에서 중국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 제시하고 있어 관세화 개방도 적극 검토하는 등 실리 추구 전략 필요
한국경제/9.6	한-일FTA	한-일 FTA와 눈덩이 대일 적자 - 대일무역적자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태에서 한-일 FTA 체결은 국내산업기반이 무너지는 부정적 효과만 두드러질 것
경향신문/9.6	쌀재협상	쌀개방 사회적 합의 필요 - 정부는 쌀개방 이제 결단을 내려야. 불가피하게 쌀을 개방해야 한다면 농민 충격과 피해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 내놓아야
헤럴드/9.9	FTA추진	FTA, 일본 수준 따라가야 - FTA체결은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인 일본보다 속도가 늦어선 곤란.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 임해야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겨레/9.13	식량주권	안타까운 외침 식량 주권 지키자 - 농업의 특수성과 350만 소수자를 배려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농업기반을 허무는 대책은 정책이라 보기어려워
동아일보/9.14	쌀재협상	주민투표로 쌀 개방 문제 풀 수 있나 - 지자체들은 개방 반대 여론 확산이 협상의 전략과 전술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동아일보/9.16	위원회	대통령소속 위원회, 확 줄여야 한다 - 위원회 설치 남발, 실효성에 의문들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축소, 정리하는 것이 옳아.
한국경제/9.20	FTA	일본-멕시코 FTA타결, 우리는... -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이제는 일본마저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대해 남의 일로만 여겨서는 안돼.

3.2. 오피니언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중앙일보/7.12	농촌체험	농촌 체험기회 늘려 어린이 정서 순화를/박재형 농협 조사역 -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연에 대해 사랑할 줄 아는 순수한 마음을 되돌려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1사 1촌 맺기 운동'과 더불어 1가 1촌 맺기 운동을 제안.
문화일보/7.12	조류독감	조류독감 예방하려면/이항 서울대 수의학 교수 -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조사와 연구은 단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
중앙일보/7.13	농업기능	텃밭 가꾸기로 생태도시 만들자/최지훈 서울대 환경대학원 - 서울시에 늘리는 땅을 텃밭으로 만들고 그곳에 작물을 재배하거나 나무나 꽃을 심자. 이를 위해 신청자를 받아 그곳에서 난 작물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자
서울경제/7.15	식품안전	식품안전을 위한 제언 /심창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안전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식생활 환경의 변화,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불완전이 주 원인. 이에 대한 해결책 시급.
서울경제/7.15	친환경농업	농업개방과 친환경농업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친환경농업이 진정 개방화시대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농업인·소비자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실천노력을 기울여야.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매일경제/7.15	한-일FTA	너무 소홀한 한-일 FTA 대응 /강응선 논설실장 - 지금부터라도 업계의 진정한 목소리를 빨리 수렴해 충분한 대응체제를 갖춰가면서 그에 걸맞는 자유무역을 추구해야.
조선일보/7.16	농업정책	농어가목돈마련저축 폐지해선 안된다/박정희 농협조사연구소 금융연구실장 - 한·칠레 FTA 체결, 쌀 협상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어민들에게 재경부가 농어가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의 폐지 추진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아니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살려야.
한국일보/7.16	농협법개정	농민이 반대하는 농협법/방민준 논설위원 -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인들과 학계 관계자는 경쟁력 강화 중심의 개혁에 치중한 나머지 조합원의 복지 및 지위 향상이라는 협동조합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외면하고 있어
세계일보/7.19	유기농업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 교훈 /김성훈 중앙대 교수 -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사례는 수입개방으로 쓰러져 가는 우리나라 농업에 큰 교훈과 희망이 아닐 수 없어.
문화일보/7.19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은 공존의 길 /김미숙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사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민과 농민 모두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자주 가서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국민일보/7.21	아세안FTA	아세안과의 FTA 추진해야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아세안과 FTA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지만 아세안 국가중 다수는 농산물 수출국이고, 우리 농업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FT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일보/7.19	유기농업	쿠바 유기농업의 성공 교훈 /김성훈 중앙대 교수 - 쿠바의 유기농업 성공사례는 수입개방으로 쓰러져 가는 우리나라 농업에 큰 교훈과 희망이 아닐 수 없어.
문화일보/7.19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산물은 공존의 길 /김미숙 친환경농산물 홍보대사 -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민과 농민 모두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자주 가서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국민일보/7.21	아세안FTA	아세안과의 FTA 추진해야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 아세안과 FTA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지만 아세안 국가중 다수는 농산물 수출국이고, 우리 농업 시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FTA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문화일보/7.22	산림정책	광릉숲만은 지켜야 한다 /김형광 국립수목원장 - 우리는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광릉 숲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넘겨 주어야 할 책임이 있어.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중앙일보/7.22	친환경농업	농촌 살길은 친환경 농업뿐 /정황근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우리 실정에선 경작 규모를 키워도 세계 수준에서 보면 어차피 가족농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친환경을 전제하고 육성해야.
서울경제/7.22	브랜드농업	브랜드가 살아야 농촌도 산다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지금 농촌은 관광자원을 어떻게 상품으로 전환하고 브랜드를 구축해 여가인구를 농촌으로 끌어모을 것인가가 과제.
국민일보/7.26	쌀재협상	쌀 관세화 전향적으로 봐야 /서진교 KREI 부연구위원 - 쌀 협상에서 개방 방식을 떠나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과연 무엇이 진정 쌀 농가를 위하는 것인지 냉철한 판단 필요.
국민일보/7.26	식품안전	수입 유기 가공식품 국내인증의무화 /이태근 사단법인 흙살림회장 - 유기농식품 규정을 ‘유기식품법’으로 통합, 농림부로 일원화해 관리하고 수입 유기 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인증 의무화해야.
서울신문/7.27	식품안전	소비자가 직접 찾는 농촌 만들자 /이홍규 농촌사랑운동본부 대표 - 유기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업인·생산자단체·관계당국이 지혜를 모아 다양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중앙일보/7.27	DDA협상	WTO 제네바협상 성공할까 /제프리 J 쇼트 미 국제경제연구소(IIIE) 선임 연구위원 - WTO 협상이 재개된 만큼 비중있는 교역국들은 성의있는 자세로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하며 자국의 제조업과 농민을 보호하려는 현행 정책을 근본부터 바꿀 각오 해야.
문화일보/7.28	농업개혁	일본의 농업부흥 /유재상 일본복지대 복지경영대학장 - 일본 민간기업들이 고도의 기술과 마케팅 노하우를 발휘해 농산물 시장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는 등 일본의 농업부흥을 위한 갖가지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문화일보/7.28	식량지원	北 식량지원 보리쌀로 대체를 / 이동희 농축산업유통연구원장 - 대북 식량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 일부 물량은 외국산 수입 쌀 대신 국내산 보리쌀로 대체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해야.
서울경제/7.29	농업투자	농업에 투자하면... /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업에 투자하는 것에는 경제적인 이득으로만 따질 수 없는 다양한 이득이 존재하고 있어 농업·농촌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동아일보/7.30	농업개방	농업 쇠국서 개국으로 /후나바시 요이치 아사히신문 칼럼니스트 -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식량안보를 외치며 농업 쇠국을 주장해 왔으나 농민이 더 어렵게 돼. 적극적인 농업개혁 필요해.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조선일보/7.30	식품안전	식당 메뉴에도 원산지 표시를 / 박종세 조선일보 경제부기자 - 이제는 식당 메뉴에도 미국산인지 한우인지 원산지를 분명히 표시하고, 속일 경우 엄한 벌을 받게 하는 '원산지 표시제'가 속히 도입돼야.
한국경제/8.4	DDA협상	DDA 개방 빠를수록 좋다 /崔炳鎰 이화여대 경제학 교수 - 한국정부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유지를 공언. 더 우려할 부분은 시장개방 시점 늦춰질수록 우리에게 호재라는 일부 인식
문화일보/8.4	쌀개방	쌀 개방, 관세화 전환이 더 유리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DA연구팀장 - 농업부문 세부원칙은 관세상한까지 없어진다면 쌀시장 개방 관세화 유예보다 관세화가 보다 유리해질 수 있음을 시사
서울경제/8.5	농촌관광	농촌관광 지도자 육성하자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촌관광을 상품화하고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민적 관심 필요해
한겨레/8.5	식품안전	먹거리 교육 등 나침반 필요 /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인 과제 검토 필요
한국일보/8.6	식량자급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사무국장 - 쌀은 반드시 자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으로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
한겨레/8.6	특화사업	농림부 특화사업 선정기준 선진화해야 /이성우 서울대 농경제사 회학부 지역개발전공 교수 - 특화품목 선정기준 너무나 진근대적. 실질적 농가소득 증진 및 농촌자치단체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매일경제/8.9	WTO협상	WTO의 희소식 /콜린 헤슬타인 호주 대사 2004-08-09 -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면서 이젠 한국 소비자들이 질 좋은 쇠 고기를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돼 선택 폭 넓어지는 등 무역자유화 영향 소비자들에게는 진화위복의 측면 있어.
파이낸셜/8.9	농촌관광	농촌체험관광은 미래자원 /김영성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 소장 - 농촌관광은 도시문제를 완화시켜주는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농촌에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
서울신문/8.9	농지제도	미래를 내다보는 농지제도 개선을/서성배 농업기반공사 부사장 - 농지제도 개선이 투기와 난개발로 얼룩지지 않고, 농촌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원과 협조 필요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국경제/8.10	농산물유통	농산물 유통마진 줄이려면/이준원 농림부 유통정책과장 - 농산물 유통마진을 줄이려면 산지 유통사업의 규모화를 통해 소비지와 직거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국경제/8.12	지역농업	이상적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조건 /전성군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 농촌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서울경제/8.12	영농규모화	광작농 許拱의 가르침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업 경제의 궁극적 원리는 경작 농지의 규모를 확대하면 생산비는 감소되고 수익은 증가하기 마련.
한겨레/8.13	농지제도	위헌적 농지법 개정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정부는 위헌적 농지법 개정 작업을 중단하고, 이미 탈법 불법에 의해 극도로 문란해진 농지질서를 헌법정신과 농지법 이념에 따라 재정비하고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매일경제/8.14	DDA	DDA를 수출확대 기회로 / 최혁 주 제네바 대사 - DDA 협상에서 농업부분의 개방폭 최소화와 함께 비농업 부문은 우리의 수출 시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겨레/8.16	쌀배협상	간과해서는 안 될 쌀 관세화의 위험/윤석원 중앙대 교수 - KDI '관세화 유리' 보고서 등 쌀 협상에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나 주장은 도움 되지 않아.
한겨레/8.16	농업인력	농정을 새로 짜자/황대권 생태공동체운동센터 대표 - 농업농촌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농촌을 이끌어갈 사람을 모으고 양성하는데 집중해야.
세계일보/8.18	FTA추진	FTA, 두려워만 할것인가/안경업 세계일보 국제부장 - 현재 검토 중인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 산업간 차이 상쇄해야
문화일보/8.19	농촌유지	농촌이 살아야 선진국 된다 /신상조 농협 성남시지부장 - 농촌이 못사는 선진국은 없음을 인식하고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진리를 선진국에서 배워야.
파이낸셜/8.19	농산물	두부와 콩나물 /주장환 유통부장 - 채소값이 오르자 콩나물과 두부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우리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는 두부와 콩나물이 새삼 귀해 보여.
서울경제/8.19	농업인력	손자의 인재론과 농업인력 육성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업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즉 개방화시대를 이끌어갈 농업인 스스로의 능력.
문화일보/8.20	농촌개발	고추와 함께 춤을 /유연숙 수필가 - 수필가이자 귀농인이 농촌생활에서, 고추를 키우며 느끼는 잔잔한 행복을 소개한 글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문화일보/8.20	새만금	새만금, 천성산, 원흥이 방죽/김옥경 청주대 교수 -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새만금 갯벌과 청정하고 수려한 천성산과 지리산과 원시 자연 그대로인 우포늪이 파괴되고 있어.
한국일보/8.20	농협개혁	농업인을 위한 농협법 개정 /장태평 농림부 농정국장 - 농협법 개정안은 우리 농협을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조선일보/8.23	산림정책	적당한 벌목이 건강한 숲 만든다/ 석현덕 KREI 연구위원 - 나무를 베면 숲을 파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리여부에 따라 오히려 생태적으로 더욱 건강한 숲을 만들 수 있어
서울경제/8.26	농촌개발	다함께 잘사는 농촌개발/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촌정책은 곧 농업정책이라고 여겨왔지만 이제 농촌은 활력 증진을 위한 보다 복합적인 기능으로의 전환 요구받고 있어
한겨레/8.26	학교급식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 막는 정부/이빈파 학교급식조례제정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정부는 그동안 학교급식 관련 전국적인 법개정과 조례제정 운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국일보/8.26	쌀재협상	쌀 개방 반대만이 능사는 아니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 농산물 시장 개방을 막는 것이 실제로 우리 경제와 장래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경향신문/8.27	산림정책	숙아낸 나무도 에너지 자원/윤영균 산림청 산림자원국장 -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우리로서는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목질바이오매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국경제/8.28	식량안보	미래의 식량동맹국에 관심갖자 /정영구 駐파라과이 대사 - 식량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파라과이와 같이 농업잠재력이 높은 국가에 견고한 식량생산기지를 확보하고 미래의 농축산 강국과 식량동맹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중앙일보/8.28	식품안전	식품안전기본법 시안 소비자 입장 일방적 반영 /신광순 한국식품안전협회장 - 식품안전기본법의 근본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도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본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어 개편해야
한겨레/8.30	학교급식	정부도 우리농산물 사용지원/이유훈 교육부 특수교육보건과장 - 현재 정부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화일보/8.31	농협개혁	日 농협의 경영전략 /유재상 일본 복지대학교 복지경영대학장 - 일본 농업협동조합과 정부는 일본농업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농업협동조합 경영개혁이 필수요건으로 인식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문화일보/9.2	기금통폐합	정부기금 과감하게 정비하라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 교수 - 정부 기금의 통폐합이야말로 정부가 술선수범해야 할 개혁의 일순위이고, 작고 강한 정부의 출발점임을 인식해야
매일경제/9.4	농촌지원	농업과 공생하려면/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저명한 미국 경제학자도 농촌발전이 선진국 진입의 중요한 단서임을 강조한 것처럼 농업 발전없는 선진국 진입은 어려워
국민일보/9.6	가축분뇨	가축 분뇨液肥 제대로 알아야 /최영열 대한양돈협회 회장 - 정부는 축산분뇨액비를 단순히 농토에 뿌린다는 차원을 벗어나 농토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동아일보/9.7	농사예찬	농사는 평화를 향한 기도 /황덕명 내일을 여는 책 출판사 대표 - 농부들의 종교는 평화라고 믿어. 평화의 화(和)가 쌀이 입에 들어가는 모양인 것은 차라리 부차적인 설명
한국일보/9.8	산림자원	高유가시대, 나무자원 활용하자 /강호덕 동국대산림자원학과 교수 - 국토의 65%가 산림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나무자원이 풍부하지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자원들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
서울경제/9.8	산림자원	나무와 숲, 효율적 관리를 /강호덕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교수 - 나무와 숲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관리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
한국경제/9.8	농업기술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필요성 /이석하 서울대 식물생산과학부 교수 - 미래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바탕으로 발달시켜야
세계일보/9.9	토지정책	토지 정책적 수용시 세금 탄력 부과 /한수택 연천군라이온스회장 - 정부는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토지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각종 세금 혜택 탄력적 적용할 필요가 있어
조선일보/9.9	장류산업	中·일에 무너진 한국 된장·고추장 /강훈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14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된장과 고추장이 일본과 중국의 견제로 우리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경제/9.9	쌀산업	쌀 산업 구조조정도 시급 /安忠榮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어떠한 방향으로 쌀협상이 귀결되든, 농촌의 종합적 발전과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도 이행되어야
한겨레/9.10	식량안보	식량안보 불감증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 쌀시장 개방 저지가 농민만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란 농민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때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매일경제/9.10	농촌개발	농촌도 기회의 땅 /안종운 농업기반공사 사장 - 농촌공간은 도시에 밀려나지 않기 위해 노력 하는 만큼만 노력한다면 더 나은 기회가 열려 있는 곳
서울신문/9.10	쌀협상	쌀협상 농심부터 달래라 /조명환 서울신문 경제부장 - 정부는 쌀 협상의 과정과 득실을 농민들과 투명하게 공유하도록 해야. 농심이 풀려야 쌀 협상도 합리적으로 풀릴것
서울경제/9.10	FTA추진	FTA 성공의 선결조건/서정명 서울경제 특파원 -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등 교역 상대국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 만들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서둘러야
한겨레/9.13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를 막고선 살 수 없다 /허정균 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회원 - 전북의 번영이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임을 알아야.
파이낸셜/9.13	쌀재협상	불가피한 쌀시장 개방과 대책 /이창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농업체질을 강화하는 정책과 소득수준에 맞는 농촌개발 및 지원정책의 정책을 함께 추진한다면 경쟁력 확보할 수 있어
서울신문/9.14	쌀재협상	쌀개방 공론의 장 필요하다 /박상건 서울여대 겸임교수 - 쌀개방 문제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며 올바른 정보를 통해 갈등 조정하는 합의 도출위한 언론 역할 절실한 시점.
중앙일보/9.15	원유가인상	정부가 우유값까지 /김영훈 중앙일보 경제부 기자 - 우리 나라가 계획경제 체제도 아닌데 당정이 나서서 원유 납품가를 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워.
한국일보/9.15	친환경농업	농약이 인간을 공격한다 /박형숙 한서대 독성학 교수 - 정부는 농약의 폐해를 널리 알려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양만 사용함으로써 농약 내성을 줄이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국일보/9.15	생명공학	농업생명공학 키워야 /최양도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 농업생명공학은 식량난 해결과 고용 창출, 비용 절감, 기술력 수출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는 미래산업
한국경제/9.15	한-미 FTA	韓-美 FTA가 정답이다 /金榮奉 중앙대 경제학 교수 - 한·미 FTA는 실현만 된다면 한-일 , 한-중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이득을 줄 것.
세계일보/9.15	FTA추진	자유무역협정 서둘 일 아니다 /김익수 고려대 경영학 교수 - FTA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대한 해결책은 FTA 협상의 진행 속도를 내부 준비에 맞춰 최대한 늦추면서 대비해야
한겨레/9.16	새만금	새만금 방조제가 침수피해 해결책 /이명식 기반공사 새만금사업팀장 - 새만금 방조제는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 피해를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공되어야

언론사-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이코노미21/9.17	쌀 재협상	쌀 협상 악으로, 깡으로 되나/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쌀 협상에서 후회하지않을 결과에 대한 정답은 없는만큼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농민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 찾아야
중앙일보/9.20	FTA	한·중·일 FTA 과소평가돼 있다 /채 욱 KIEP 부원장 - 한·중·일 FTA가 가져올 경제 전반적 이익과 함께 부문별 파급 효과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사전분석 진행돼야
한겨레/9.20	농업보도	언론에 농업은 있다 /박웅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농민들에게는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모든 언론인들이 협조해 주길바래
파이낸셜/9.20	FTA	FTA는 선택 아닌 필수 /송유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 - 왜 세계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해
서울신문/9.20	쌀산업	쌀농사 포기해선 안된다/이홍규 농촌사랑운동본부 대표 - 쌀은 우리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고 민족정신과 주권 유지시키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우리 쌀 지키는 범국민 운동 일어나야
조선일보/9.21	쌀협상	쌀협상 대책 일괄타결을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 대외협상과 국내 농업대책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모든 쟁점은 일괄타결 되어야.
한겨레/9.21	농촌문화	들쥐가 잡아먹은 옥수수 /주영미 농민
문화일보/9.22	도-농결연	都農 상생의 길 순탄하다 /김성훈 중앙대 교수 - 소외되고 경시돼 온 농업·농촌·농민들에게 파스한 별이 들게 한 '1사1촌운동'은 농촌과 도시의 공생이 가능함을 보여줘
경향신문/9.24	농업가치	농업발전은 선진국 필수조건 /나승렬 농림부 농촌정책과장 - 우리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요구돼
매일경제/9.24	기타	농림차관 사표의 진실은/윤상환 정치부 기자 - 참여정부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김 전 차관의 사표 수리한 것이라면 힘있는 부처나 정권 실세에게도 동등한 잣대 적용해야
서울신문/9.25	쌀협상	쌀 협상 논쟁보다 급한 일 /오승호 논설위원 - 쌀 협상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관세화유예나 관세화 개방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 보전 문제로 모아져야

3.3. 주요 농민단체 성명

단체명-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농연/7.16	농협법개정	농민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농협법 개정 취지를 흐려선 안돼 - 농협법 개정에 대한 한국일보 7.16일자 논평 '농협법 개정의 근본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일부 이해집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어 유감'
전농/7.16	쌀재협상	쌀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4,500만 국민의 운명과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임을 명심해야 - 정부는 쌀시장 완전 개방을 언급하기 전에 국민의 안정적인 식량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사안으로 삼아야 할 것
전농/7.23	농지법개정	경자유전(耕者遺傳)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투기만 부추기는 농지법 개정안을 규탄한다 -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의 헌법조항을 어기는 위헌행위이며 농민을 농토에서 쫓아내고 투기꾼이 농촌의 주인으로 만드는 '농지 투기법'에 다름 아니다.
한농연/7.23	쌀협상	국책연구기관들의 선부른 쌀 관세화 개방 주장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최근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이 국제 쌀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쌀 관세화 개방을 주장하고 있어 심각한 사실 왜곡 및 국민 여론 오도마저 우려되고 있어.
한농연/7.24	DDA협상	정부는 '오시마 초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하고 협상에서 국내농업여건과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라 - 초안에서 유보된 관세상한선설정을 반드시 철폐하고 TRQ증량과 대폭적인 관세감축 및 보조금 삭감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농연/7.31	DDA 협상	오시마 의장 2차 초안을 거부하고 농민생존권 보호에 총력하라 - 2차협상 초안은 미국 등 G5 그룹의 밀실협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고, 농업부문의 관세감축 및 국내보조정책 관련 내용이 우리 나라에 매우 불리한 것으로 평가돼 거부해야
전농/7.31	DDA협상	오시마 농업협상안을 거부하고, 식량주권 수호에 총력을 다하라 - 오시마 초안 내용 개도국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미국 등 수출강대국들의 입장만 고스란히 반영. 정부 협상안 거부해야
전농/8.3	수매제폐지	정부는 진정 농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식량생산을 포기할 셈인가!! - 추곡수매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단체명-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농민연대/8.5	수매제폐지	수매제 폐지와 농지법 개정안 농업포기정책으로 규정 - 농업현안문제 논의를 위한 농민단체장-정당대표 간담회 및 농림해양수산위원장, 양당 간사와의 긴급 간담회를 공개 제안
한농연/8.9	추곡수매	정부는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악을 즉각 철회하라 -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고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및 농가소득 안정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
한농연/8.11	농협개혁	시군지부 확대 방침을 농협중앙회는 즉각 철회하라 - 농협중앙회는 중평군·계룡시 등 7개 시군 분리 지역에 중앙회 시군지부 추가 설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불필요한 관리형 조직의 확대 즉각 철회해야
전농/8.14	낙농산업	정부와 농림부는 낙농산업 존폐위기 조장 중단하고 즉각 대책마련에 나서라! - 정부는 ‘원유가 조정이 필요없다’거나 ‘농가수취가격이 계속 인상되어 생산비보다 높다’는 왜곡 중지하고 1만 낙농인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농연/8.20	중국쌀	정부는 중국산 찌쌀이 다른 목적으로 팔리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원산지 표시제를 의무화 해야 - 정부는 조속히 국내농산물 보호와 수입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제고와 검역강화에 힘써 국민건강권에 이바지해야
농민연대/8.24	낙농산업	농민연대, 국회에 낙농소위 구성 제안 - 국회는 즉각 낙농소위 구성으로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포함, 중장기적 낙농산업 발전 위한 기본방침 마련에 나서야.
한농연/9.3	쌀재협상	정부는 수입쌀에 대해 전량 국영무역 유지 원칙을 확고히 하라 - 정부는 쌀 재협상에서 중국 등의 수입쌀 시판 요구를 과감히 거부하고 전량 가공용 등으로 유지한다는 의지 보여야
한농연/9.9	쌀개방	우리 쌀 사수, 농협개혁을 위한 350만 농민 투쟁선포문 - 쌀관세화 협상에서 정부는 개방을 전제로한 소극적인 협상 자세 보여. 전 농민 쌀사수와 농협개혁 위한 투쟁 강화할 것
국민연대/9.10	쌀개방	이경해 열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 이경해 열사가 칸쿤에서 쌀개방에 반대하며 자결한 이후에도 WTO는 각국의 특성을 무시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한농연/9.15	농협개혁	농협중앙회 스스로가 뼈를 깎는 조직 혁신을 - 농림부 내에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 및 조직·사업 혁신, 시군지부 폐지, 시도지역본부장 선출직 전환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단체명-일자	분야	제목 및 논조
한농연/9.23	농업재해	나주시와 제주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하라 - 제15호 태풍 ‘메기’로 전남 나주와 제주지역의 피해가 심각해 조속한 대책 필요. 실질적인 정부 지원과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각 선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
전농/9.24	쌀개방	겉으로는 농업사랑, 알고보면 수입개방 앞장서는 농림부장관의... - ‘논을 갈아엎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농림부장관 편지에 분노. 농림부 장관과 정부는 진정 우리 농민들의 심정과 분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아야 할 것